



제66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경기



경기분과위원장 / 김 봉 기

때 : 1985. 10. 11 ~ 14 (4 일간)

곳 : 강릉시 강릉상고 체육관



전 국체육대회는 모든 국민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스포츠정신을 고취하여 국방과 생산력의 원천이 되는 국민체위를 향상시키며, 지방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명량하고 질서있는 사회기풍을 조성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대회 운영으로써 '88서울올림픽 및 '86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도록 함에 있다.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국 체전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살려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의 시에 분산 개최하였다.

태권도는 영동지방의 중앙에 위치한 강릉시 강릉상고체육관에서 10월11일~14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다.

10월10일 오후 4시 김용희사무국장의 사회로 대표자회의를 개최, 엄운규부회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황춘성전무이사가 태권도전반에 관한 이해를 돕는 말씀과 '86년에는 통합체전(소년체전과 전국체전) 실시등에 설명이 있었고 계체 및 경기일정등을 김봉기 경기위원장이, 공명정대한 심판을 다짐하는 안영택 심판위원장, 경기장 질서확립에 관한 권경옥 기술심의회 의장의 말씀 순으로 대표자회의를 마쳤다. 오후 7시 강원도 협회 주최로 각 시·도 협회 임원 환영찬을 통해 관광호텔 연회장에서 성대히 갖고 입전대회를 갖추었다.

10월 11일

따아닌 가을 장마로 풍년을 구가하는 국민의 가슴에 안타까움을 주던 비도 활짝 개이어서 임원, 선수들의 마음도 가벼웁게 경기에 임하는데 있었다.

경기장에는 대회 프랑카드(각시도 협회)를 강릉시 자매결연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제작하여 부착함으로써 안정되고 정돈된 분위기를 주었다. 경기는 A, B코트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A코트는 편급경기로 고등부 김태형(부산) 대 남규현(대구) B코트는 강철우(서울) 대 고지형(제주)의 대진으로 경기를 시작하였다.

각기 향토의 명예를 걸고 신중하게 경기에 임하였으며, 핀, 플라이급에서는 부산, 서울, 충북, 경북등이 고루 1차전을 통과 하였으며 인천과 제주는 연패로 침울하였고, 전북은 플라이급의 함준(전 국가대표)선수가 첫 승리의 포문을 열었다.

밴텀급에서는 왼손부상으로 손에 붕대를 감고 나온 신영만선수가 충북의 권오현 선수를 맞아 선전 인천에 첫 승리를 안겨 주었으며 충북에는 첫 패배를 주었다.

페터급은 충북 대 충남의 대결, 신체적 조건이 우위인 김명창(충북)은 1회전에서는 우세한 경기를 펼쳐 충북코치석에 승리의 미소를 주었으나 2회전부터 급격히 체력이 떨어져 긴리치를 활용하지 못하였고 스텐드 상단에 어머니인듯한 중년부인이 들어찍어! 한스텝 전진 앞차! 등 경기장에 많이 참관한 어머니코치의 열띤 작전 지시(?)를 안타까웁게 따돌리고 충남선수의 판정승.

라이트급에는 박봉권(서울) 국가대표 선수가 안정철(경남)선수를 맞아 예상대로 일방적인 계임을 전개 낙승하였고,

강원도는 주최팀으로 부전승 쉼트배정을 받아 경기장 질서에 최대한 노력을 함으로 질서정연한 가운데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대학부 플라이급 이선장(충남, 현 국가대표 1진) 선수가 제주대표 윤희섭선수를 맞아 고전분투하였으나 판정패함으로서 예상을 뒤엎은 이번으로 제주에서 「금메달」의 부푼 꿈을 꾸게 하였다.



단체위의 주역들 <서울시합회>

10월 12일

대진번호 81번게임으로 일반부 핀급 이종철(대구) 대 안정현(경남)의 경기로 시작, 대구의 승리로 서전을 장식하였다.

91번게임 벤텀급 양기모(경기, 전국가대표)대 채중남(대구)의 대전은 1회 1분57초에 양기모 선수의 앞돌려차기가 채선수의 몸통을 강타 경기 불능으로 카운트아웃—.

대진번호 99번 황갑복(대구) 대 이영대(경남)의 경기는 황갑복선수의 탁월한 기량으로 압승, 돋보이는 선수로 부상되었고,

100번게임의 현 국가대표 한재구(충북) 대 전남의 윤오남의 대결은 전남의 태권도 가족 5兄弟의 응원과 성원을 받으며 선전하였다. 특히나 코치는 형인 윤판선이 작전지시를 하는등 분전하였으나 윤선수는 마음은 앞서고 투지는 있으나 29세의 나이처럼 몸이 마음처럼 움직여 주지를 않은듯…… 워낙, 노련한 한재구선수의 테크닉에 눌려 판정패. 윤선수는 3번째나 전국체전에서 한선수에게 고배(?)를 마셨다고 결승에서 만나야 할 선수를 초반에 만났다고 쓴 웃음을 지었다.

웰터급 현 국가대표 정국현(전남)대 전국가대

표 정찬(경기)선수의 접전은 결승전을 방불하는 대접전이었다. 경기도로서는 결승에서 대진되어야 할 게임이 예선에 대진되어 패함으로서 손실이 컸음은 기정사실로 안타까운 한판이었고,

미들급 재미동포 지용호선수 대 경남의 송창경은 대전에서 체위에서 열세인 지선수는 뛰어 열차기등 다부진 공격을 하였으나 득점하지 못하고 판정패하였다.

138번 게임의 현 국가대표 박봉권(서울) 대 김동섭(대구)선수의 대전은 허리부상으로 응급처치를 받고 출전한 박선수는 1~2회전은 혼전 3라운드에서 득점을 주고 받으며 혼전, 컨디션이 좋지 않은 박선수는 입술이 터지는등 고전을 하며 판정승, 대구협회 임원의 어필등으로 개운치 않게 승리를 거두었다.

156번 대학부 핀급 최영덕(서울) 대 신재동(전남)선수의 대전은 한치의 양보가 없는 대전으로 장내를 흥분시켰다.

B코트는 관중이 스탠드에서 심판원이 득점순간에 체크하는 모습이 위에서 보임으로 심판원들에게 득점을 그으라는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들이 유발되었으며 「심판들의 잔치」라는 얘기가 나도는 등, 판정에 불만이 많았다.

특히나 고등부와 대학부는 매달진입 직전의 계임이라 더욱 고조되는듯 했다.

오후 쏟아지는 폭우로 185번 게임까지 진행할 것을 170번게임으로 15게임을 13일로 미루고 경기를 마쳤다.

10월 13일

경기가 메달권 진입을 목전에 둔 게임의 연속이라 8시45분에 심판전원을 모아놓고 공명정대한 심판을 촉구하는등 경기장 질서대책을 주지하는등 예방을 철저히 하고 경기에 임했다.

미들급 일반부 현국가대표 이동준(강원) 대 김태용(서울) 선수의 경기는 1회 종료후 김태용의 기권으로 가별계 기권승.

213번 게임의 전국가대표 오일남(경북) 대 신재근(전북)의 게임은 태권도 경기사상 제일 싱거운 한판이었다. 노련한 오선수는 1-2회전을 공격한번 제대로 안하고 신선수의 공격을 교묘하게 무릎을 들고 막고는 잡았다 놓았다고 일관하고 3회전에서도 중반까지 계속되다가 1득점으로 판정승하는 졸전을 보여 관중들에게 어이 없다는 눈총을 받았다.

준결승전이 되는 고등부 대학부는 3위에 머무는 입상자들이 결정되자 금메달을 확보하기 위한 임원진들의 관심은 고조되기 시작하였고 등위를 점치느냐구 분주한 모습들이었다.

대학부 플라이급 윤희섭(제주) 대 강호중(경남)의 대전에서는 66회 체전경기중 가장 큰 어필로써 경기가 잠시 중단되는 상황까지 도래하였었고, 웰터급 이강식(충남) 대 박상식(서울) 선수의 대전은 1~2회전을 우세하게 경기를 리드하는듯 운영한 이강식은 3회전에서 세차게 몰아붙이는 박선수의 공격을 피하여 점수지키기(?)로 선전하였으나 판정패로 결정이 내리자 승리감을 느끼는듯 하던 코치석에서는 멍하니 서서 실소를 하는 모습은 승패의 비정함을 눈으로 보는듯 하였다.

일반부 페터급 장양호(전남) 대 이인배(경남) 대전을 끝으로 경기를 종료하였다.

10월 14일

모처럼 가을하늘이 보이는 일기로 체전 태권도경기 최종일을 맞았다.

준결승의 잔여경기를 마치고 결승에 오는 48명의 선수들은 저마다 금메달 확보를 위한 마지막 카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경기에 임하였다.

■ 고등부 결승전 경기

핀

급의 김현일(경남) 선수를 제치고 결승에 진출한 김태형(부산)은 권혁선(충남) 선수를 제치고 올라온 신재현(충북) 선수와 결승에 맞섰다. 경기전 삭발을 하고 경기에 임한 김태형(부산) 선수는 1회전을 우세하게 게임을 리드하고 2회에서 백중세 3회에서 득점을 1~2개씩 주고 받으며 열전 3:2 판정승으로 금메달에 선착.

플라이급: 양춘열(서울) 선수는 함준(전북, 국가대표) 선수를 심판전원일치 판정승으로 누르고 결승에 올랐고 여은수(전남) 선수도 박상찬(강원)





단체2 위의 주역들 <전남협회>

선수를 일방적으로 누르고 결승에 올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었으나, 1회전에 1실점후 이선수의 기권으로 양선수가 우승.

밴텀급 : 장혁(서울) 선수는 김우창(전남)을 3 : 2로 어렵게 이기고 결승에 올랐고, 배상준(부산) 선수는 주영호(강원) 선수를 일방적으로 이기고 결승에 올랐으나 장혁 선수를 맞아 심판전원 일치 판정패를 당하여 은메달에 머물렀다.

페터급 : 김경환(서울) 선수는 김현주(충남) 선수를 5 : 0으로 누르고 결승전에, 임내락(전남) 선수는 김덕용(경북) 선수를 5 : 0으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하였으나 전남의 임선수의 기권으로 서울에 금메달을 안겨 주었고,

라이트급 : 이종학(경북) 선수는 박봉권(서울) 선수의 부상으로 기권, 결승에 진출, 백봉진(전남) 선수는 김태형(제주) 선수를 맞아 1회전에는 고전하였으나 2~3회전에 치열한 접전으로 신승하여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 이종학은 1회전에서 맹공, 승세를 잡는 듯 하였으나 2회전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3회전에서 접전을 벌였으나 아깝게도 4 : 1로 판정패 백봉진 선수에게 금메달을 넘겨 주었고,

웰터급 : 김웅중(충남) 선수는 박두제(부산) 선수를 일방적으로 공략하고 결승에 진출, 윤순철(서울)은 윤만철(경북) 선수를 5 : 0으로 누르

고 결승에서 김웅중 선수를 맞아 선전, 심판전원 일치 판정승으로 금메달에 안착하였다.

미들급 : 서정학(충남) 선수는 임영훈(전남) 선수를 가볍게 누르고 결승에,

신용욱(경남) 선수는 이용혁(서울) 선수와 백중한 경기로 득점을 주고받았으나 아깝게 판정패하여 동메달에 머물렀고, 이용혁 선수는 결승에서 서정학 선수를 1~2라운드 우세하게 경기의 기선을 잡고 3라운드에서 맹공하는 서선수의 공격을 선방, 서울에 다섯번째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헤비급 : 최정주(경남) 선수는 이장원(전북) 선수를 맞아 3 : 2로 신승을 하였고, 김동욱(서울) 선수는 이건원(경북) 선수를 제치고 최정주를 맞아 1회전에 승세를 잡았으나, 2회전 맹공으로 득점을 주고 받으며 추격을 받았으나 3회전에서 선전 우승을 하였다.



고등학교 입상자 명단

핀 급

- 1위 / 김 태 형 / 부산체육고등학교 / 부산
- 2위 / 신 재 현 / 청주신흥고등학교 / 충북
- 3위 / 김 현 일 / 삼천포공업고등학교 / 경남



(영예의 고등부 우승자들)

3위 / 권 혁 선 / 병천고등학교 / 충남

플라이급

1위 / 양 춘 열 / 서울체육고등학교 / 서울

2위 / 이 은 수 / 학다리고등학교 / 전남

3위 / 박 상 찬 / 강대사대부속고등학교 / 강원

3위 / 함 준 / 전북체육고등학교 / 전북

밴텀급

1위 / 장 혁 / 서울체육고등학교 / 서울

2위 / 배 상 준 / 송도상업고등학교 / 부산

3위 / 주 영 호 / 강대사대부속고교 / 강원

3위 / 김 우 창 / 학다리고등학교 / 전남

페더급

1위 / 김 경 환 / 서울체육고등학교 / 서울

2위 / 임 내 락 / 전남체육고등학교 / 전남

3위 / 김 덕 용 / 경북체육고등학교 / 경북

3위 / 김 현 주 / 대전체육고등학교 / 충남

라이트급

1위 / 백 봉 진 / 동일실업고등학교 / 전남

2위 / 이 종 학 / 경북체육고등학교 / 경북

3위 / 박 봉 권 / 동성고등학교 / 서울

3위 / 김 태 영 / 오현고등학교 / 제주

웰터급

1위 / 윤 순 철 / 서울체육고등학교 / 서울

2위 / 김 웅 중 / 대전체육고등학교 / 충남

3위 / 박 두 제 / 부산체육고등학교 / 부산

3위 / 윤 만 철 / 경북체육고등학교 / 경북

미들급

1위 / 이 용 혁 / 서울체육고등학교 / 서울

2위 / 서 정 학 / 병천고등학교 / 충남

3위 / 임 영 훈 / 목포고등학교 / 전남

3위 / 신 용 옥 / 삼천포고등학교 / 경남

헤비급

1위 / 김 동 옥 / 서울체육고등학교 / 서울

2위 / 최 정 주 / 삼천포고등학교 / 경남

3위 / 이 장 원 / 전북체육고등학교 / 전북

3위 / 이 건 원 / 경북체육고등학교 / 경북

● 입상자 전적 ●

김 태 형 (1968. 3. 1) 핀 급
제64회 전국체육대회 (핀) 우 승
제65회 전국체육대회 (핀) 우 승

양 춘 열 (1968. 11. 2) 플라이급
제1회 신인선수권대회(플) 1위(중등부)
제19회 추계중, 고연맹회장기대회(벤) 1위(")
제11회 춘계중, 고연맹 " (핀) 3위(고등부)
제12회 춘계중, 고연맹 " (플) 1위(")
제21회 추계대한태권도협회장기(플) 1위(")
제66회 전국체육대회(플) 1위(")

장 혁 (1969. 10. 3) 밴텀급
제10회 추계중, 고연맹회장기(플) 1위(중등부)
제12회 전국소년체육대회(페) 1위(")
제12회 추계중, 고연맹회장기(미) 1위(")
제20회 대통령하사기대회(벤) 2위(고등부)
제66회 전국체육대회(벤)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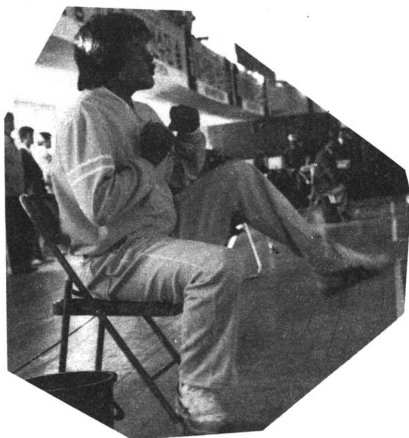
김 경 환 (1968. 5. 1) 페터급
제7회 연세대총장기쟁탈대회(라) 1위
제11회 중고연맹회장기쟁탈전(라) 2위
제65회 전국체육대회(라) 1위
제20회 대통령기쟁탈전(페) 1위
제21회 협회장기쟁탈전(페) 1위
제12회 중, 고개인선수권대회(페) 1위
제66회 전국체육대회(페) 1위

백 봉 진 (1968. 2. 26) 라이트급
1985년도 중별선수권대회(라) 2위
제66회 전국체육대회(라) 1위

윤 순 철 (1967. 7. 19) 웰터급
제12회 중, 고연맹회장기쟁탈전(춘)(웰) 1위
제20회 대통령기쟁탈전(웰) 1위
제21회 협회장기쟁탈전(웰) 1위
제12회 중, 고개인선수권대회(웰) 1위
제66회 전국체육대회(웰) 1위

이 용 혁 (1968. 1. 9) 미들급
제11회 중, 고연맹회장기쟁탈전(미) 3위
제20회 대통령기쟁탈전(미) 1위
제21회 협회장기쟁탈전(미) 3위
제66회 전국체육대회(미) 1위

김 동 욱 (1969. 2. 10) 헤비급
제19회 대통령하사기대회(헤) 3위(고등부)
제11회 춘계중, 고연맹회장기(헤) 3위(")
제12회 춘계중, 고연맹회장기(헤) 2위(")
제21회 추계대한태권도협회장기(헤) 3위(")
제66회 전국체육대회(헤) 1위(")



■ 대학부 준결, 결승전 경기

핀

금 정재균(강원) 대 이해진(부산)의 준결승 대전은 1, 2, 3 회전 거의 대등한 경기였으나 3 회에 이선수가 경고를 받음으로서 판정패, 최천(경기) 대 최용덕(서울)의 대전은 최선수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우승, 결승에서 정재균(강원) 선수를 맞아 선전 심



단체 3 위의 주역들 <강원도협회>

판전원일치 판정승으로 경기도에 첫 금메달을 선사하였다.

플라이급: 강효중(경남) 대 윤희섭(제주)의 준결에서는, 1 회전에서 기선을 잡은 강선수가 2 회전까지 세차가 몰아붙이는 등, 승세를 굳히려는 듯 3 회전에서는 윤선수가 역전을 시키려 맹공을 하였으나 조금도 굴하지 않은 강선수의 선방으로 제주는 동메달에 머물렀고, 국가대표선수 인해진(서울) 대 진만식(대구)의 대전은 1~2 회전 인해진선수의 우세한 경기운영으로 기선을 잡고 3 회전에서는 지키기작전(?)인듯 선방으로 결승에 진출, 강호중(경남) 선수를 맞은 인해진(서울) 선수는 선전, 심판전원일치 판정승으로 서울에 7 번째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밴터급: 이우선(부산) 대 박범수(서울)의 대전은 이우선선수의 맹공으로 강세 서울에 쐐기를 박는 일전이였다. 지용석(충북) 대 국가대표 유명식(충남)의 대전은 심판일치 판정승으로 지용석 선수가 결승에 진출, 결승에서 국가대표 선수를 물리친 지선수는 여세를 몰아 1-2 회전에 기선을 잡고 3 회전에 치열한 공방전으로 5:0 판정승으로 충북에 첫 금메달을 선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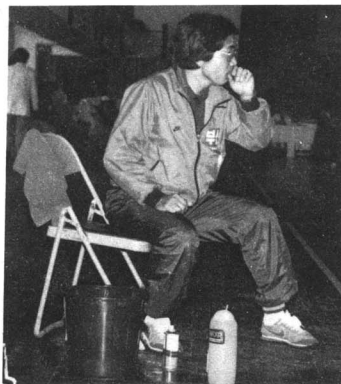
페터급: 하계수(서울) 대 김대환(충북)의 대전은 1 회전부터 치열한 공방으로 득점을 주고받으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기를 진행, 2 회전은 좀 소강상태였고, 3 회전에 득점을 주고받는 공방전이였으나 심판전원일치 판정승으로 하

선수는 결승에 진출하였고, 정승환(전남) 대 오명식(전북)의 대전은 현국가대표다움게 게임을 리드 무난히 결승에 진출 서울의 하계수선수를 맞아 분전하였으나 3 : 2로 판정패 은메달에 머물고 말았다.

라이트급 : 김윤태(서울) 대 김용수(부산)의 대전, 1회전에 득점을 한점 빼앗긴 김용수의 2-3회전 끈질긴 추격을 선방 2-3회전 경기를 우세하게 이끌었으나 확실한 득점이 없어 판정패하여 동메달에 머물고, 최공집(전남) 대 이창건(경북)의 대전은 주고받는 공방전을 전개하였으나 2회전의 1실점이 이창건의 판정패의 원인이 되어 동메달에 머무렀다.

결승에서는 서울과 전남의 대결로 치열한 공방전으로 3 : 2로 전남이 신승,

웰터급 : 최상진(경기) 대 곽병호(전남)의 준결승은 최상진선수의 임방적인 승리, 전국가대표 박상식(서울) 대 이강식(충남)의 대전은 이렇다할 득점없이 3 : 2 판정승으로 박선수가 결승에 진입하여, 최상진(경기) 선수를 맞아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서 3 : 2로 아깝게 판정패하여 은메달에 머무렀다.

미들급 : 전국가대표 김종석(전북) 대 이주열(서울)의 대전은 3 : 2로 김종석 선수의 판정승, 김양기(전남) 이성우(부산)의 대전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의 공방전으로 3 : 2로 김



영예의 대학부 우승자들

양기선수의 판정승으로 결승에 진출한 전남의 김선수는 전북의 김종석 선수를 맞아 지나친 승부욕으로 경고를 2개씩 주고 받으며 1,2,3 회 전 고루 득점을 빼앗은 김종석선수의 5 : 0 판정승으로 전북에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헤비급 : 현국가대표 이계행(전남)선수는 김재영(강원)선수를 맞아 득점을 주고 받으며, 헤비급답지않게 재미있는 게임, 이 선수가 판정승으로 결승에 진출하였고, 최호성(전북) 대 이정진(경기)의 대전은 1회전을 우세하게 리드한 이정진은 2회전 초반에 1실점, 3회전에 1득점씩 주고받아 아깝게 판정패하여 동메달에 머물렀고, 최호성(전북)은 결승에서 이계행선수를 맞아 이렇다 할 공격한번 못하고 5 : 0으로. 판정패하여 이선수는 국가대표로서의 체모를 유지 금메달을 전남에 선사하였다.

대학부 입상자 명단

핀 급

- 1위 / 최 천 / 경희대학교 / 경기
- 2위 / 정 재 균 / 관동대학교 / 강원
- 3위 / 이 해 진 / 동아대학교 / 부산
- 3위 / 최 용 덕 / 성균관대학교 / 서울

플라이급

- 1위 / 인 해 진 / 한국체육대학 / 서울
- 2위 / 강 호 중 / 경상대학교 / 경남
- 3위 / 윤 희 섭 / 제주대학교 / 제주
- 3위 / 진 만 식 / 계명대학교 / 대구

밴 텀 급

- 1위 : 지 용 석 / 청주대학교 / 충북
- 2위 / 이 우 선 / 동아대학교 / 부산
- 3위 / 박 범 수 / 홍익대학교 / 서울
- 3위 / 유 명 식 / 한국체육대학 / 충남

페 더 급

- 1위 / 하 계 수 / 한국체육대학 / 서울
- 2위 / 정 승 환 / 한국체육대학 / 전남

- 3위 / 김 대 환 / 청주대학교 / 충북
- 3위 / 오 명 식 / 우석대학교 / 전북

라이트급

- 1위 / 최 공 집 / 조선대학교 / 전남
- 2위 / 김 윤 태 / 한국체육대학 / 서울
- 3위 / 김 용 수 / 동아대학교 / 부산
- 3위 / 이 창 진 / 한국체육대학 / 경북

웰 터 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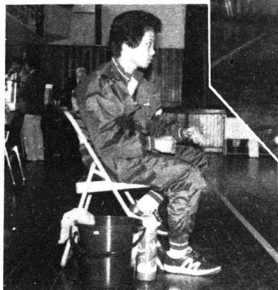
- 1위 / 최 상 진 / 경희대학교 / 경기
- 2위 / 박 상 식 / 한국체육대학 / 서울
- 3위 / 박 병 호 / 조선대학교 / 전남
- 3위 / 이 강 식 / 한국체육대학 / 충남

미 들 급

- 1위 / 김 중 석 / 원광대학교 / 전북
- 2위 / 김 양 기 / 조선대학교 / 전남
- 3위 / 이 주 열 / 한국체육대학 / 서울
- 3위 / 이 성 우 / 동의대학교 / 부산

헤 비 급

- 1위 / 이 계 행 / 조선대학교 / 전남
- 2위 / 최 호 성 / 원광대학교 / 전북
- 3위 / 김 재 영 / 한국체육대학 / 강원
- 3위 / 이 정 잔 / 경희대학교 / 경기



우승자 전적

최 천 (1965. 7. 5) 핀급

1982년도 한국대표선발전최종(핀) 1 위
제18회 중.고연맹회장기쟁탈전(핀급) 1 위
제 6 회 연세대총장기쟁탈전(핀) 1 위
제 5 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핀) 1 위
제19회 대통령기쟁탈전(핀) 1 위
제20회 대통령기쟁탈전(핀) 1 위

인 해 진 (1966. 2. 18) 플라이급

제 9 회 전국소년체육대회(페) 1 위
제 7 회 연세대총장기쟁탈전(벤) 1 위
제65회 전국체육대회(플) 1 위
제 7 회 대학연맹전(추)(플) 1 위
1985년도 한국대표선발전 1 차(플) 1 위

지 용 석 (1966. 2. 27) 밴텀급

제17회 대통령기쟁탈전(핀) 2 위
제63회 전국체육대회(핀) 1 위
1982년도 전국우수선발전(핀) 1 위
1983년도 한국대표선발전(핀) 2 위
제18회 대통령기쟁탈전(플) 3 위

하 계 수 (1966. 4. 3) 페터급

제64회 전국체육대회(페) 1 위
제19회 대통령기쟁탈전(페) 1 위
제 회 중.고연맹회장기쟁탈전(페) 2 위
제65회 전국체육대회(페) 3 위
제12회 대학연맹전(춘)(페) 2 위

최 공 집 (1963. 1. 3) 라이트급

제18회 대통령기쟁탈전(웰) 1 위
1984년도 한국대표선발전(1 차)(웰) 2 위
1984년도 한국대표선발전(최종)(웰) 2 위
제19회 대통령기쟁탈전(웰) 1 위
제65회 전국체육대회(웰) 3 위

최 상 진 (1966. 1. 20) 웰터급

제63회 전국체육대회(페) 2 위
제10회 중.고연맹회장기쟁탈전(웰) 3 위
제64회 전국체육대회(웰) 2 위
제11회 중.고연맹회장기쟁탈전(웰) 2 위



영예의 일반부 우승자들

김 종 석 (1963. 6. 30) 미들급
제61회 전국체육대회(라.미) 1위
제64회 전국체육대회(미) 1위
1984년도 한국대표선발전(1차)(해) 1위
1984년도 한국대표선발전(최종)(해) 1위
제19회 대통령기쟁탈전(L.해) 1위
제6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라.해) 1위

이 계 행 (1965. 4. 20) 헤비급
1982년도 전국신인선수권대회(미) 1위
제63회 전국체육대회(미) 1위
제18회 대통령기쟁탈전(L.해) 1위
제64회 전국체육대회(L.해) 1위
제65회 전국체육대회(L.해) 1위
1985년도 한국대표선발전(1차)(미) 1위

■일반부 준결·결승전 경기

핀급: 송영협(강원) 대 이종상(경기) 득점을 주고 받은 아가자기한 경기로 3:2로 강원도 송영협선수가 결승에 진출,

이창석(충남) 대 서재현(전북)의 대전은 이창석선수가 1-2회전을 확실히 리드하고 3회전에 득점을 주고 받아서 5:0판정승으로 이창석선수가 결승에 진입하였다.

이창석(충남)선수는 송영협(강원) 선수를 맞아 1회전에 기선을 빼앗기고 2-3회전을 주고받으며 선전하였으나 송선수가 5:0 판정승으로 강원도에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플라이급: 현 국가대표선수 김영식(경북) 대 박규남(전남)의 대전은 김영식선수는 국가대표 다음계 선전 판정승, 전 국가대표선수 김기호(서울) 대 진교진(전북)의 대전도 노련한 김기호선수의 판정승으로 결승전에서는 같은 상무팀 소속이며 현, 전 국가대표선수의 일전으로 흥미를 가중시키는 게임이었다. 상무팀 감독 임용인은 두선수에게 승패에 관계없이 최선을 당부하였고

두선수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열전 1회전을 우세하게 경기를 치른 김기호(서울) 선수의 판정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밴텀급: 최일영(경남) 대 장경수(서울)의 대전은 1회전을 우세하게 리드한 최선수는 2회전에서 주고받는 공방, 3회전에서 우세하게 게임을 리드 결승에 진출하였고, 윤용철(전남) 대 전국가대표 양기모(경기)의 대전은 피차 노련한 선수들로서 관객이 보기에는 재미없는 게임이었고 판정패한 선수나 판정승한 선수나 찻팬한 대전이었고 판정이었다. 윤용철이 3:2 판정승으로 결승진출하여 경남의 최일영선수를 맞아 1-2회전은 주고받는 공방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으나, 3회전에 결정타 1득점으로 윤용철선수에게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윤용철은 금번 체전 최고령선수(29세)로 우승은 더욱 값진 것일게다.

페터급: 장양호(전남) 대 이인배(경남)의 대전은 3:2로 이선수가 석패, 동메달에 머물렀고, 정범수(서울) 대 임관인(충북)의 대전도 3:2로 임선수가 석패, 서울과 전남이 결승전에서 맞섰다. 특별한 득점없이 3:2로 서울이 우세승으로 금메달을 확보 10 번째 금메달을 서울이 획득하였다.

라이트급: 현 국가대표 한재구(충북) 선수는 한체급을 올려서 신중호(강원)를 맞아 시중 여유있는 게임으로 게임을 리드 결승에 진출하였고, 이강일(서울) 선수는 최찬웅(경기) 선수를 맞



아 판정승으로 결승에 올라 국가대표인 한재구와 겨루어 3:2로 판정승 하였고, 한편 충북은 금메달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전이었다.

웰터급: 현국가대표 정국현(전남)은 예선에서 강적을 물리쳐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경기를 치루었고 준결에서도 김현근(전북)을 맞아 1회전을 가볍게 기선을 잡았으나 2-3회전에 무섭게 돌진하는 김현수를 득점을 주고 받으며 선전 결승에 안착하였고, 정영훈(충남) 대 시인규(경북)의 대전은 주고받는 득점의 혼전으로 3:2로 충남의 정영훈선수가 승리하여 정국현선수와 결승에서 맞서 노련한 정선수를 잡지 못하고 5:0으로 판정패를 하였다.

미들급: 국가대표 이동준(강원)은 황선두(충남)선수를 가볍게 누르고 결승에 진입하였고, 전 국가대표 오일남(경남)선수는 임종남선수를 맞아 1회전은 점전으로 밀리는 듯하였으나 2-3회전에 득점을 하여 경고를 받고도 결승에 진출하였으나, 준결승에서의 발목부상으로 결승에서 기권 은메달에 머무는 그쳐 「오일남의 작전」은 은메달로 머물고 말았다.

헤비급: 현국가대표 강승우(서울) 대 현승호(경기)의 대전은 1회 기선을 잡은 강승우의 여세가 2회전까지 지속 3회전에서 역전을 시키려는 현선수의 공격을 선방 결승에 진출하였고, 현국가대표 고영철(전남) 대김화영(경남)의 대전은 3:2로 고영철이 석패함으로써 김화영은 강승우와 결승에서 겨루게 되었다. 시소게임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렵게 1-2회전을 마치고 3회전에서 군특유의 상무정신으로 밀어부친 강승우선수의 공격이 유효하여 3:2로 헤비급 왕자가 되었다.

일반부 입상자 명단

핀 급

- 1위/송 영 협 / 설악케이블카 / 강원
- 2위/이 창 석 / 대전교도소 / 충남
- 3위/이 종 상 / 국군체육부대 / 경기
- 3위/서 재 현 / 전북협회 / 전북

플라이급

- 1위/김 기 호 / 상무 / 서울
- 2위/김 영 식 / 상무 / 경북
- 3위/박 규 남 / 전남태권도협회 / 전남
- 3위/진 교 진 / 여산체육관 / 전북

밴 텀 급

- 1위/윤 웅 철 / 전남체육관 / 전남
- 2위/최 일 영 / 한려체육관 / 경남
- 3위/장 경 수 / 상무 / 서울
- 3위/양 기 모 / 경기선발 / 경기

페 더 급

- 1위/정 범 수 / 상무 / 서울
- 2위/장 양 호 / 영광체육관 / 전남
- 3위/임 관 인 / 제천시청 / 충북
- 3위/이 인 배 / 경남체육관 / 경남

라이트급

- 1위/이 강 일 / 상 무 / 서울
- 2위/한 재 구 / 제천시청 / 충북



헤비급 왕자 탄생

3위/신 중 호/강원선발/강원
3위/최 찬 웅/국군체육부대/경기

웰터급

1위/정 국 현/전남태권도협회/전남
2위/정 영 훈/예산도장/충남
3위/김 현 곤/남원웅비체육관/전북
3위/시 인 규/경천체육관/경북

미들급

1위/이 동 준/설악케이볼카/강원
2위/오 일 남/경천체육관/경북
3위/황 선 두/유도대학/충남
3위/임 중 남/국군체육부대/경기

헤비급

1위/강 승 우/상 무/서울
2위/김 화 영/공군제3659부대/경남
3위/현 승 호/경기선발/경기
3위/고 영 철/전남태권도협회/전남

우승자 전적

승 영 협 (1964. 1. 4) 핀 급
제64회 전국체육대회 (핀) 준 우 승
제65회 전국체육대회 (핀) 우 승

김 기 호 (1961. 8. 7) 플라이급
제16회 대통령기쟁탈전(플) 1위
제62회 전국체육대회(플) 1위
제10회 대학연맹전(플) 1위
제18회 대통령기쟁탈전(플) 1위
1983년도 전국우수선발전(플) 1위

윤 웅 철 (1958. 12. 19) 밴텀급
제60회 전국체육대회 1위
제61회 전국체육대회 1위
제65회 전국체육대회 1위
제66회 전국체육대회 1위

정 범 수 (1962. 10. 10) 페터급
1980년도 한국대표선발전 (1차) (밴) 1위
제15회 대통령기쟁탈전 (밴) 1위
1981년도 한국대표선발전 (밴) 1위
제1회 월드게임태권도대회 (밴) 1위
제62회 전국체육대회 (밴) 1위

이 강 일 (1964. 2. 1) 라이트급
제3회 연세대총장기쟁탈전(라) 2위
1983년도 전국신인선수권대회(라) 3위
제15회 대통령기쟁탈전(라) 3위
1982년도 한국대표선발전 (1차) (웰) 3위
제5회 연세대총장기쟁탈전(라) 3위

정 국 현 (1962. 3. 15) 웰터급
1983년도 한국대표선발전(최종)(미) 1위
제6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L.미) 1위
1984년도 한국대표선발전(L.미) 1위
제6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L.미) 1위
1985년도 한국대표선발전(최종)(웰) 1위

이 동 준 (1961. 3. 5) 미들급
제63회 전국체육대회(미) 1위
제5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미) 1위
1983년도 한국대표선발전(최종)(미) 1위
1985년도 한국대표선발전(최종)(미) 1위
제6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미) 1위

강 승 우 (1962. 6. 14) 헤비급
1981년도 최우수선발전 1위
1984년도 대학연맹 1위
1985년도 국가대표 최종선발 1위
제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위

1985 년도

전국 우수 선수 선발 대회



대표선수 선서문을 김운옹회장께 드리고 있는 박상식선수



나동식 / 경기분과 부위원장

19 85년도 전 대회를 결산하는 우수선수 선발대회를 10월31일~1일까지 2일간에 걸쳐 국기원에서 실시하였다.

본대회는 제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이어 두번째로 전광판을 사용한 국내 최초의 대회로 선수 본인의 우열을 가늠하여 선수와 코치나 림대로 작전을 짜내는 신중한 경기로 전광판 사용은 바람직한 형태로 나타났다.

11시 개회식에서 김운옹회장은 태권도는 '86아시안게임 '87팬암게임(미주) 등, 활동무대가 높아졌

고 넓어졌음을 강조, 기술습득은 물론, 태권도정신으로 진력 국위를 선양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체대 박상식선수의 대표선서후 계속된 경기에서는 이번이 속출하였다.

대진번호 28번 밴텀급의 한국가대표 유명식(한국체대) 선수가 2차전에서 장혁(서울체고) 선수를 맞아서 예상을 뒤엎고 판정패함으로써 대표선수들에게 채찍을 가하였고, 대진번호 42번 국가대표 이선장(한국체대) 선수는 이종선(동대문 상고) 선수를 맞아 1~2회전을 우세하게 리드를 하였으나 3회전에서 이종선선수의 뒤돌아 뛰어엿차기에 얼굴을 맞고 실점을 하여 석패함으로 대학선수들이 고교선수들에게 강한 도전을 받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대진번호 52번 하계수(한국체대) 선수는 이현석(성동상고) 선수를 맞아 대학선수들의 분패를 만회라도 하려는 듯 맹공을 퍼 부어 1회 2분45초에 앞돌려 차기로 얼굴을 강타 K.O승을 거두었다.

또한 이주열(한국체대) 선수는 이천인(익산중고) 선수를 맞아 주심의 경기시작 싸인이 떨어 진후 즉시 뒤돌아차기로 얼굴을 강타 눈깜짝 할 사이(?)에 통쾌한 K.O승을 거둠으로써 고교선수들에게 주눅이 들었던 대학부의 체면을 세웠다. 이틀째인 11월 1일 경기는 단일코-트에서 실시하였다.

특기할 사항은 김철호(동성고) 선수는 동성고 선배인 최천(경희대) 선수를 맞아 선전하여 판정승 하였으나 오른쪽 팔목부상으로 결승에 도전을 포기하는 상황이었으나, 경기장에 들어선 김철호선수는 경기목이 생겨 경기를 수행 성동상고의 이관우선수를 판정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부상을 당한 선수가 태권도 특유의 정신과 인내로 경기에 임한 감투정신은 높이 평가하여야 할 일이나 선수 보호측면에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전광판 사용으로 판정의 시비가



전광판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기본

없었으나, 역시 심판원들의 채점에 의한 표시임으로 「공명정대」의 뒷 얘기는 있었으나 경미함이 다행스러웠다.

그리고, 금번 우수선수권대회는 대학입학의 특기자 신청마감후의 경기라 고 3의 우수한 선수의 참여가 부진하였으며,

특히 금번 우수선수권대회에 우승자에게는 매년 실시하는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 참가할 자격 등 혜택이 없어 우수선수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았으며 참가인원도 적었다.

본대회를 평가 해 본다면, 총 입상자 32명중 14명의 고교생이 입상을 하였으며, 3명이 우승을 하는등 강세를 보임이 특이할 일로 대학 선수들에게 경중이되었으며, 서울체고 양대승 선수는 중고연맹전에서 맞수인 박봉권(국가대표) 선수를 제치더니 '금번대회에서는 4년 선배인 국가대표 이준명(한국체대) 선수를 누르고 우승을 하여 이목이 집중되었으며 '86 '88 양대 대회에 크게 기대되는 재목이라 코치들은 말하고 있다.

금번대회 최우수 선수는 경희대 최상진선수가 차지하였으며, 금번대회의 수확으로는 미들급 윤을균(계명대) 선수의 발굴이라 하겠다.



전광판에는 1회전 진행중인 표시가 보인다

중량급선수의 체격조건이 문제시 되고 있는 현 우리의 실정에서 장신의 선수의 입상은 기대 할

만한 선수였으며 무명선수로 우수대회 우승은 계명대의 대들보 역할을 하였다.

입상선수 명단

핀 급

- 1위/김철호/동성고등학교/3학년/67.10.5
- 2위/이관우/성동상업고등학교/3학년/67.3.31
- 3위/최 천/경희대학교/2학년/65.7.5
- 3위/이종선/동대문상고/3학년/67.9.20

플라이급

- 1위/이인재/경희대학교/3학년/64.7.8
- 2위/양춘열/서울체육고등학교/2학년/68.11.2
- 3위/인해진/한국체육대학/2학년/66.2.18
- 3위/오영주/한국체육대학/1학년/65.9.3

밴 텀 급

- 1위/윤정옥/동성고등학교/1학년/69.4.15
- 2위/정희석/동성고등학교/3학년/67.6.27
- 3위/오상훈/동아대학교/1학년/66.6.24
- 3위/김종철/성동상업고등학교/3학년/68.1.22

페 더 급

- 1위/하계수/한국체육대학/1학년/66.4.3
- 2위/최 운/유도대학/1학년/66.7.13
- 3위/양형수/동아대학교/2학년/64.11.21
- 3위/장명삼/경희대학교/3학년/63.5.16

라이트급

- 1위/양대승/서울체육고등학교/2학년/69.2.15
- 2위/이준명/한국체육대학/3학년/63.3.19
- 3위/김세영/풍생고등학교/3학년/69.2.15
- 3위/이창진/한국체육대학/2학년/65.9.25

웰 터 급

- 1위/최상진/경희대학교/1학년/66.1.20
- 2위/오정수/동아대학교/1학년/66.5.27
- 3위/조창현/동성고등학교/2학년/68.2.24
- 3위/이주열/한국체육대학/1학년/65.9.21

미 들 급

- 1위/윤운균/계명대학교/3학년/64.3.6
- 2위/김진기/경희대학교/4학년/63.9.9
- 3위/박상식/한국체육대학/3학년/64.4.28
- 3위/성필용/성동상업고등학교/1학년/68.2.4

헤 비 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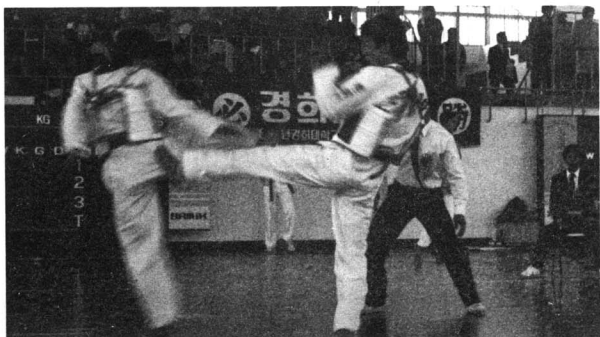
- 1위/정택주/한국체육대학/2학년/65.11.27
- 2위/박종일/동대문상업고등학교/3학년/67.6.12
- 3위/박지성/인덕공업고등학교/3학년/67.10.4
- 3위/김동욱/서울체육고등학교/2학년/69.2.10

※ 1985년도 최우수선수상 경희대학교 최 상진

제 8 회 회장기쟁탈전국대학대항 태권도 대회



대학연맹전무이사/최인범



한 국 대학 태권도 연맹에서는 1985년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제 8 회 회장기 쟁탈 전국 대학 대항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국기원에서 개최하였다. 선수는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족으며, 8 체급으로 구분하여, 토너먼트식 개인전으로 진행하였으며, 메달수에 의하여 우승팀이 결정되었다.

본 대회는 24개교에서 265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남자부를 A 조, B 조로 나누어서 A 조는 각종 전국 규모의 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선수로, B 조는 입상 경력이 없는 선수로 하였으며, 이 대회는 대학 선수로서의 등용문이고, 학교의 명예를 높여진 격전지이기도 하였다.

첫날 경기에서 A 조 경기번호 125번의 핀급에서 동헌(경상대) 선수는 돌려차기로 1 회전 20 초 만에 K.O 시키고 준준결승에 진출하였고, B 조

에서는 B 조대로의 승패를 가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의 실력을 발휘하는 훌륭한 대회였다.

이틀째 경기에서는 A 조의 헤비급 결승전인 경희대의 김광섭 선수와 한국체대의 김재영 선수의 경기가 관중들의 주목을 끌었다. 두 선수 중 어느 선수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종합 우승과 준우승의 판가름이 나는 경기였기 때문이다. 막상막하의 경기에서 경희대의 김광섭 선수가 승리함에 따라서 경희대학교가 (금 2, 은 3, 동 6) 종합우승을 하게 되었고, 종합 2 위에는 한국체육대학(금 2 은 2), 3 위에는 유도대학(금 1, 은 1, 동 1) 이 결정되었다. B 조에서는 신예 세종대학이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으며, 2 위에는 충남대학교, 3 위에는 한양대학교가 차지하였다. 여자부에서는 경희대학교가(금 5, 동 5) 종합우승, 2 위에는

성신여자대학교(금1, 은4, 동2), 3위에는 충남대학교(금1)가 차지하게 되었다.

이번 대회의 최우수 선수상은 경희대학교가 종합우승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A조의 예비급 우승자인 김광섭 선수가 차지하였다.

B조에서는 작년에 참가하지 않았던 팀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였으며, 기량면이나 체력적인 면에서도 많은 향상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도 기쁜 사실이다.

본 연맹에서는 이번 대회를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도와주신 대한태권도 협회의 모든 분들과 대학연맹의 김한주 회장님을 비롯한 실행이사, 이 사님들 그리고 본 대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심판위원 여러 분과 선수, 코치, 감독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차기 대회에서는 더욱 더 노력하여 질적, 양적인 면에서 우수한 대회가 될 것을 다짐한다.

단체성적

남대부A조 1 위:경 희 대/금2, 은3, 동6

2 위:한 체 대/금2, 은2

3 위:유 도 대/금1, 은1, 동1

감독상:인 천 전대/금1, 은1

남대부B조 1 위:세 종 대/금2, 은1

2 위:충 남 대/금2, 은1

3 위:한 양 대/금2

감독상:경 희 대/금1, 은3, 동5

여 대 부 1 위:경 희 대/금5, 동2

2 위:성 신 여 대/금1, 은4, 동2

3 위:충 남 대/금1

감독상:명 지 대/금1

남자 A조 우승자 명단

체급	등위	성	명	소	속
핀	1위	서 동	현	경 상 대 학 교	
	2위	윤 보	현	명 지 대 학 교	
	3위	김 철	기	경 희 대 학 교	
	3위	최	천	경 희 대 학 교	
플라이	1위	오 승	재	인천전문대학교	
	2위	이 인	재	경 희 대 학 교	
	3위	임	섭	청 주 대 학 교	
	3위	김 지	태	연 세 대 학 교	
밴텀	1위	홍 용	섭	경 희 대 학 교	
	2위	한 홍	식	경 희 대 학 교	
	3위	김 기	홍	경 기 대 학 교	
	3위	전 웅	환	성 군 관 대 학	
페더	1위	김 도	경	경 기 대 학 교	
	2위	박 호	상	경 희 대 학 교	
	3위	임 봉	덕	세 종 대 학	
	3위	김 영	철	한국체육대학교	

체급	등위	성	명	소	속
라이트	1위	조 성	철	대한유도대학교	
	2위	김 찬	구	대한유도대학교	
	3위	조 철	식	세 종 대 학	
	3위	김 용	수	동 아 대 학 교	
웰터	1위	정 용	석	한국체육대학교	
	2위	김 윤	태	한국체육대학교	
	3위	이 기	훈	대한유도대학교	
	3위	최 상	진	경 희 대 학 교	
미들	1위	김 성	겸	한국체육대학교	
	2위	연 기	호	인천전문대학교	
	3위	김 용	범	경 희 대 학 교	
	3위	노	신	경 희 대 학 교	
헤비	1위	김 광	섭	경 희 대 학 교	
	2위	김 재	영	한국체육대학교	
	3위	이 정	진	경 희 대 학 교	
	3위	김	현	명 지 대 학 교	

남자 B조 우승자 명단

체급	등위	성	명	소	속
핀	1위	황	경만	경희대학교	
	2위	김	종연	인천전문대학교	
	3위	유	정호	인천전문대학교	
급	3위	정	중철	동국대학교	
	1위	유	창호	단국대학교	
	2위	박	우영	경희대학교	
플라	3위	박	인호	동국대학교	
	3위	최	성일	경희대학교	
밴	1위	유	영근	세종대학교	
	2위	김	형만	경희대학교	
	3위	최	철수	수원대학교	
텀	3위	김	미봉	목포대학교	
	1위	강	수창	한양대학교	
	2위	이	규정	대한유도대학교	
페	3위	송	석홍	경희대학교	
	3위	안	병오	경희대학교	

체급	등위	성	명	소	속
라	1위	김	교학	충남대학교	
	2위	최	점현	경희대학교	
	3위	노	봉래	경희대학교	
트	3위	김	영남	동양공업전문대	
	1위	최	현수	한양대학교	
	2위	이	병철	충남대학교	
웰	3위	김	남택	인천전문대학교	
	3위	황	선웅	경희대학교	
미	1위	강	태형	세종대학교	
	2위	오	재혁	인천전문대학교	
	3위				
들	3위				
	1위	정	정기	충남대학교	
	2위	유	성근	세종대학교	
해	3위				
	3위				
	3위				

여대부 우승자 명단

체급	등위	성	명	소	속
핀	1위	김	경숙	충남대학교	
	2위	도	재선	성신여자대학교	
	3위	김	은희	경희대학교	
급	3위	정	인화	세종대학교	
	1위	오	명화	경희대학교	
	2위	김	명순	인천전문대학교	
플라	3위	문	숙현	대한유도대학교	
	3위	김	일희	성신여자대학교	
밴	1위	임	신자	경희대학교	
	2위	안	희경	대한유도대학교	
	3위				
텀	3위				
	1위	최	선자	경희대학교	
	2위	김	소영	성신여자대학교	
페	3위	이	영희	대한유도대학교	
	3위	윤	숙희	상명여자대학교	
	3위				

체급	등위	성	명	소	속
라	1위	김	지숙	경희대학교	
	2위	정	유정	대한유도대학교	
	3위	오	현진	상명여자대학교	
트	3위	조	윤경	경희대학교	
	1위	전	오순	경희대학교	
	2위	허	혜숙	성신여자대학교	
웰	3위	강	영화	이화여자대학교	
	3위				
	3위				
미	1위	정	영숙	성신여자대학교	
	2위	조	순미	상명여자대학교	
	3위				
들	3위				
	1위	장	윤정	명지대학교	
	2위	손	지희	성신여자대학교	
해	3위	임	선애	성신여자대학교	
	3위	김	경신	경희대학교	
	3위				

제16회

주한 외국인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The 16th Foreigners'—

TAE KWON DO Championships

때 : 1985. 10. 6

곳 : 국 기 원



서경무

/ 경기분과 부위원장



대회를 하는 한봉수 부회장



대표선수 선서를 하
BOBBY CLAYTON

국가대표어린이
시범단의 장애물 넘어
몸돌려 뒤틀기의 묘기



금 번 실시한 외국인 개인 선수권 대회는 138명이 신청을 하였으나, 유급자들의 체급배정 불확실로 조편성이 잘못되어 실격된 2명과 군부대 훈련으로 인한 불참선수들이 많아서 36명이 불참한 가운데 경기를 실시하였다.

이날 개최식에는 김운용 회장을 대신하여 한 봉수(무역진흥공사 사장) 부회장은 대회사에서 태권도는 이제 세계인이 즐겨하는 스포츠로 성

장하였음을 주지하고 태권도는 세계평화를 위한 공유문화로 공헌하고 있음은 태권도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기는 6급~4급까지의 유급자를 65kg 이하를 A 조, 65kg~72kg까지를 B 조, 72kg~80kg까지를 C 조, 80kg이상을 D 조, 3급~1급까지의 유급자를 65kg이하를 E 조, 65kg~72kg까지를 F 조, 72kg~80kg까지를 G 조, 80kg이상을 H 조, 유급자 65kg이하를 I 조, 65kg~72kg까지를 J 조,

72kg~80kg까지를 K 조, 80kg이상을 L 조로 편성하여 금메달 12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24개를 수여하게 되었다.

예선전부터 입상을 노리는 유급자들의 투지는 격렬한 경기로, 마음은 앞서고 행동은 1~2템포 느려서 머리만 앞으로 나가다가 하면, 발이 올라가기전에 몸만 회전하는등, 유급자들의 경기는 보는 이로 하여금 폭소를 자아내면서 열기를 더해 갔다. 대진번호 32번 미8군 소속 JIM. W. PLEASANT 선수는 3회 1분경에 미2사단 선수를 앞돌려차기로 얼굴을 강타 K.

O 승을 거두었고, 대진번호 50번 미2사단 702소속의 MICHAEL THOMAS 선수도 2회1분경에 미2사단 CRC소속 CHARLEY. A. BAHWM 선수를 앞돌려차기로 얼굴을 강타 K. O 승을 거두어 유급자들 경기에서도 K.O 승다운등 무서운 파괴력을 과시하였다.

유단자경기에서는 선수 대표선서를 한 BOBBY CLAYTON 선수가 1회50초에 상대선수를 뒷차기로 옆구리를 강타 통쾌한 K.O 승을 거두는 등 탁월한 기능을 발휘 관록을 자랑하였다.

각조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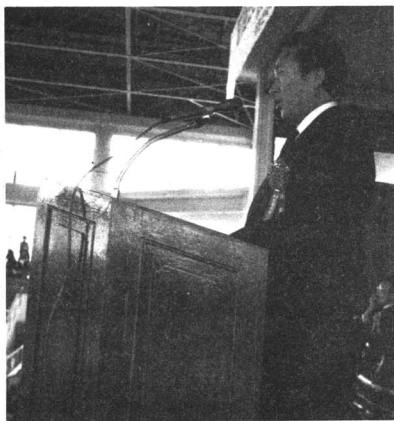
조별	등위	성 명(NAME)	소 속
A 조	1 위	LEROY ASTWOOD	K ~16
"	2 위	CHO YOON SOO	미 2 사단 15F
"	3 위	CARIAS RODNEY	미 2 사단 1/31
"	3 위	INAURH LEWARD. X	미 2 사단 122S
B 조	1 위	TIM W. PLEASANT	미 8 군
"	2 위	HASTINGS MICHAEL	미 2 사단 1/31
"	3 위	HARDAWAY RODNEY. T	미 2 사단 122S
"	3 위	VERDELL ROBERT	미 2 사단 1/31
C 조	1 위	BRAXTON ANTHONY	미 2 사단 15F
"	2 위	CIARKE CIAUDIO	미 2 사단 122S
"	3 위	MICHAEL J. SIENDA	미 8 군체육관
"	3 위	DOWNING CLINT. T	미 2 사단 122S
D 조	1 위	BEAL WILLIAM	미 2 사단 1/31
"	2 위	MICHAEL THOMAS	미 2 사단 702
"	3 위	WILLIAMS WELDER	미 2 사단 15F
"	3 위	MOLLOHAN MICHEL	미 2 사단 15F
E 조	1 위	ELINGTON MARK	미 2 사단 1/31
"	2 위	JEONG SANG BAE	주한외국인체육관
"	3 위	JANMSZEWKI JOHN	미 2 사단 1/31
"	3 위	JAMES LEE RAYNE JR	송탄도장
F 조	1 위	DEVOM P. EMANUEL	CP함드리아 S AGYM
"	2 위	TREVORE. PERIARD	미 8 군
"	3 위	NACINCIK MICHAEL	미 2 사단 1/31

조별	등위	성 명(NAME)	소 속
"	3 위	DESKIS TONY	미 2 사단 1/31
G 조	1 위	HENRY SCOTT BLOCK	CP 협트리
"	2 위	SMITH DONOVAN	미 2 사단 15F
"	3 위	FONTENELLE. A.	미 2 사단 2S. T.
"	3 위	GENZ SCOTT	미 8 군캠프콜빈체육관
H 조	1 위	MARIO DALLA COSTA	한남체육관
"	2 위	BLOW MELVIN	미 8 군체육관
"	3 위	BLANCE TT. R	미 2 사단 2S. T
"	3 위	WILSON TIN	미 2 사단 1/31
I 조	1 위	GARY HALL	청도체육관
"	2 위	THOMAS FARRELL	미 8 군체육관
"	3 위	BEDFORD EDWIN	2 DIV 1/31
"	3 위	NOEL RANGALAN	CP 협트리
J 조	1 위	BOBBY CLAYTON	한국체육관
"	2 위	Mc DONALD JAMES	2 DIV 1/31
"	3 위	ALLEN PORTER	미 2 사단 1/17
K 조	1 위	MICHAEL SMAUS	미 2 사단
"	2 위	MALDONADO MANUEL	미 8 군
"	3 위	GAINEY STEBIE	K - 16
L 조	1 위	SAMUEL HARRIS	K - 16
"	2 위	M'CLATCHEY JAMES	미 8 군
"	3 위	MURPHY	미 2 사단 1/17
"	3 위	DERRYL L. FINNEY	미 8 군체육관

제11회 연맹회장기타기



전국국민학교 단체대항 태권도 대회



이상빈 대회장의 대회사



국민학교연맹감사 / 조휴익

자랑스러운 어린이로 성장하여 모든 어린이들의 모범이 되어달라고 당부하였다.

미동 국민학교 대표 선수와 시범단의 시범에 이어 진행된 경기는 전국 40여 개 교에서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전 2일에 돌입하였다.

연맹 회장기 대회는 종합 태권도 대회로서 태권도 겨루기 경기에 5~6학년만 출전하는 대회 외에도 1학년~6학년까지 고루 참가하는 대회로 품새대회, 기본 발차기, 이론 시험등을 나누어 실시하였다.

이론 시험은 1~2학년, 3~4학년, 5~6학년으로 구분 문제를 출제하였고, 품새, 이론시험 겨루기의 3가지를 종합하여 종합 등위를 결정하였다.

5년째 실시하는 종합 대회는 겨루기에만 치

한 국 국민학교 태권도 연맹에서는 1985년 10월 19일~20일까지 국기원에서 연맹 회장기 대회를 실시하였다.

대회사에서 이상빈 회장은 이 자리에 참가한 선수 여러분들은 수 십만 명의 태권도 수련 어린이 중에서 우수한 자질을 인정받은 훌륭한 선수들이라고 칭찬한 후, 이번 대회를 통하여 더욱



겨루기 모습

어린이 시범단의
10사람 넘어 열차기

중되었던 어린이의 기능이 태권도 기본 품세와 발차기의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발전하였고, 이론(정신), 부문도 수준이 높아졌음을 여러 사범들은 말하고 있다.

본 대회의 단체 우승은 서울 한강국민학교, 준우승은 서울 개포·미동 국민학교가 차지하여 공

동 2위가 되었으며, 장려상에는 서울 남산, 먼목 광희국교가, 감투상에는 성남 제 2 국교, 경북강사 국교가, 응원상에는 서울 남산 국교가 수상하였다. 겨루기 개인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어린이를 위하여 이론 시험 문제를 게재하니 참조 바람.

입상자 명단

체	급	등위	성	명	소	속
핀	급	1위	원	종 석	서울면목국교	
		2위	김	학 렬	경기문산국교	
		3위	황	교 찬	서울신석국교	
		3위	황	인 서	서울개포국교	
플라이	급	1위	장	형 일	서울신석국교	
		2위	정	진 백	청주서원국교	
		3위	김	경 환	서울장곡국교	
		3위	채	규 연	서울광희국교	
밴 텀	급	1위	최	용 훈	서울광희국교	
		2위	김	진 홍	서울광희국교	
		3위	곽	태 영	청주서원국교	
		3위	양	승 식	서울길동국교	
페 더	급	1위	김	홍 진	성남제 2 국교	
		2위	장	대 순	서울장곡국교	
		3위	차	신 복	경북강사국교	
		3위	박	관 민	서울수색국교	

체	급	등위	성	명	소	속
라이트	급	1위	김	경 희	성남제 2 국교	
		2위	김	병 옥	성남제 2 국교	
		3위	정	익 삼	경북강사국교	
		3위	장	덕 진	서울마천국교	
웰 터	급	1위	김	희 성	서울면목국교	
		2위	김	민 수	서울광희국교	
		3위	김	현 준	성남제 2 국교	
		3위	유	상 준	서울잠원국교	
미 들	급	1위	김	용 환	서울월계국교	
		2위	안	성 용	경북강사국교	
		3위	김	정 호	서울한강국교	
		3위	김	동 원	서울개포국교	
헤 비	급	1위	이	경 환	서울면목국교	
		2위	구	기 용	서울한강국교	
		3위	한	승 규	경기용인국교	
		3위	김	성 옥	서울개포국교	

제11회 연맹회장기대회 이론문제(1, 2학년)

() 번 이름()

※ 다음 물음에 알맞는 답이나 답의 번호를 () 안에 쓰시오.

- 다음 중 태권도 기본 동작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① 서 기 ② 막 기 ③ 지르기 ④ 겨루기
- 다음 중 품세에서 서기 자세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앞서기 ② 뒤서기 ③ 편히서기 ④ 범서기
- 태극 1장은 몇 동작입니까? ()
① 16동작 ② 17동작 ③ 18동작 ④ 20동작
- 손 끝으로 공격하는 것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 ()
① 찌르기 ② 지르기 ③ 치 기 ④ 차 기
- 태극 4장의 두 번째 동작은 무엇입니까? ()
① 찌르기 ② 지르기 ③ 아래막기 ④ 몸통막기
- 태권도를 할 때 우리 몸을 셋으로 나누면 얼굴, 몸통, □□, 로 나눌 수 있다. ()
- 우리 나라 국기의 이름을 쓰시오. □□□
- 우리 나라 꽃의 이름을 쓰시오. □□□
- 다음 중 심판원이 아닌 사람은? ()
① 배 심 ② 주 심 ③ 부 심 ④ 계 시 원
- 겨루기 할 때 경기장 안에 있는 심판을 무엇이라 합니까? ()
① 배 심 ② 주 심 ③ 부 심 ④ 계 시 원
- 겨루기를 할 때 체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 ()
① 키 ② 몸 무 게 ③ 앉 은 키 ④ 가슴둘레
- '88 올림픽은 어느 도에서 열립니까? ()
① 서 울 ② 나 고 야 ③ 뉴 욕 ④ 파 리
- 승품 심사는 어디에서 봅니까? ()
① 대한태권도협회 ② 국기원 ③ 체 육 회 ④ 국민학교태권도연맹
- 태극 5장의 맨 마지막 서기는 무엇입니까? ()
① 앞 서 기 ② 꼬아서기 ③ 뒷 굽 이 ④ 앞 굽 이
- 태극 5장의 두 번째 동작에 쓰이는 공격 부위의 이름은? ()
① 주 먹 ② 등 주 먹 ③ 배 주 먹 ④ 밤 주 먹
- 다음에서 태극기를 계양하지 않는 날은? ()
① 삼 일 절 ② 제 현 절 ③ 추 석 ④ 국군의 날
- 다음에서 연결이 잘못된 것은? ()
① 우리나라 꽃-국화 ② 우리나라 국기-태극기
③ 우리나라 글-한글 ④ 우리나라 국가-애국가
- 승급 심사에서 2급을 받은 사람이 매어야 할 띠의 색깔은? ()
① 빨 간 색 ② 흰 색 ③ 노 란 색 ④ 파 란 색
- 다음 중 돌려차기에 많이 쓰이는 곳은? ()
① 앞 축 ② 뒷 축 ③ 발 날 ④ 발 바 닥
- 태권도는 어느 나라에서 시작된 운동인가? ()
① 일 본 ② 미 국 ③ 한 국 ④ 중 국

1. 2학년 정답안

1-④ 2-② 3-③ 4-① 5-① 6-아래 7-태극기 8-무궁화 9-④ 10-② 11-②
12-① 13-② 14-② 15-③ 16-③ 17-① 18-① 19-① 20-③

제11회 연맹회장기대회 이론문제(3, 4학년)

※ 다음 물음에 알맞는 답이나 답의 번호를() 안에 쓰시오.

1. 앞차기는 주로 발의 어느 부위로 차는 것입니까? ()
 ① 앞 발 ② 발 등 ③ 발뒷꿈치 ④ 발 앞 축
2. 다음 서기 중 발과 발의 거리가 가장 긴 서기는 어느 것입니까? ()
 ① 뒷 굽 이 ② 앞 굽 이 ③ 범 서 기 ④ 편히서기
3. 몸의 중심을 뒷다리에 가장 많이 두어야 하는 서기 자세는? ()
 ① 범 서 기 ② 앞 서 기 ③ 앞 굽 이 ④ 뒷 굽 이
4. 태극 6장에 나오는 차기는 무엇인가? ()
 ① 당상차기 ② 돌려차기 ③ 옆 차 기 ④ 앞 차 기
5. 등주먹 치기는 태극 품세 몇장에서 처음 나오는가? ()
 ① 5 장 ② 6 장 ③ 7 장 ④ 8 장
6. 몸통 안 막기는 주로 어느 부위로 막는 것입니까? ()
 ① 팔 ② 안 팔 목 ③ 팔꿈 치 ④ 바깥팔목
7. 태극 3장의 진행선은 어느 것입니까? ()
 ① 工 ② 土 ③ 王 ④ T
8. 국민학교 어린이의 태권도 겨루기 경기는 몇 학년부터 합니까? ()
 ① 3 학 년 ② 4 학 년 ③ 5 학 년 ④ 6 학 년
9. '88 올림픽 대회는 어디에서 개최되나? ()
10. 다음은 애국가의 일부이다. □안에 알맞는 말을 넣어라.
 “가을 하늘 □□한데 높고 구름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 일세” ()
11. 국기봉은 무슨꽃 모양입니까? ()
 ① 국 화 ② 무궁 화 ③ 장 미 ④ 목 단
12. 품 떠는 몇살까지 입니까? ()
 ① 만 13 세 ② 만 14 세 ③ 만 15 세 미만 ④ 만 16 세
13. 경기 결과의 승자관정 중 아닌 것은? ()
 ① 경 고 승 ② 기 권 승 ③ 케 오 승 ④ 우 세 승
14. 다음 중 공격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는? ()
 ① 발등으로 몸통공격 ② 주먹으로 가슴공격 ③ 발로 얼굴공격 ④ 주먹으로 인종공격
15. 애국가의 후렴 부분만 쓰라. ()
16. 옆차기에 쓰이는 발의 부위는? ()
 ① 앞축과 발바닥 ② 발날과 뒷축 ③ 발등과 발날 ④ 앞축과 발등
17.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된 운동인가? ()
 ① 고려시대 ② 조선시대 ③ 삼국시대 ④ 통일신라시대
18. 태권도장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할 예절을 쓰라. ()
19. 1품, 2품, 3품 어린이들을 모두 합쳐서 부를 때 무엇이라 하는가? ()
20. 1품에서 2품에 응심하려면 몇 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나? ()
 ① 6 개 월 ② 10 개 월 ③ 12 개 월 ④ 18 개 월

3. 4학년 정답안

- 1-④ 2-② 3-① 4-② 5-① 6-④ 7-③ 8-③ 9-서울 10-공활, 일편단심
 11-② 12-③ 13-① 14-④ 15-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16-② 17-③ 18-태극기에 대한 경례 19-유물지 20-③

제11회 연맹회장기대회 이론문제(5, 6학년)

※ 다음 물음에 알맞는 답이나 답의 번호를 () 안에 쓰시오.

- 태극 6장에 나오는 서기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앞 굽 이 ② 편히서기 ③ 뒷 굽 이 ④ 꼬아서기
- 기본 동작에는 서기, □□ 지르기, 차기, 등이 있다.
- 태극 품세 중 서기의 종류가 가장 많이 들어 있는 품세는 몇장인가? ()
 ① 5 장 ② 6 장 ③ 7 장 ④ 8 장
- 몸무게가 37kg인 어린이는 무슨 체급에 속하나요? ()
 ① 밴 텀 ② 페 터 ③ 라 이 트 ④ 웰 터
- 올해 서울에서 열렸던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몇회입니까? ()
 ① 6 회 ② 7 회 ③ 8 회 ④ 9 회
-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 태극 8장의 진행선은 어느 것입니까? ()
 ① 王 ② 工 ③ 土 ④ 主
- 우리 몸을 셋으로 나누고 주요 급소를 쓰시오.
 ① 얼굴-인중 ② □□-□□ ③ □□-□□
- 서기자세에서 뒷발을 기준으로하여 이름을 붙이는 것은? ()
 ① 앞 서 기 ② 뒷 굽 이 ③ 앞 굽 이 ④ 범 서 기
- 태극 6장에서 몇번째 동작을 할 때 기합을 넣는가? ()
 ① 10 번 째 ② 11 번 째 ③ 12 번 째 ④ 13 번 째
- 고려품세의 준비자세와 동작수를 나타낸 것 중 옳은 것은? ()
 ① 기본준비서기 : 30동작 ② 통밀기 : 30동작
 ③ 기본준비서기 : 28동작 ④ 통밀기 : 28동작
- 태극품세 중에서 동작수가 가장 많은 장과 동작수는?
 태극() 장 () 동작
- 경기 중 감점선언을 몇번 받으면 감점패가 되는가? ()
 ① 1 번 ② 2 번 ③ 3 번 ④ 4 번
- 다음 중 감점을 받을 행위는 어떤것인가? ()
 ① 잡는행위 ② 엄 살 ③ 무릎으로 공격 ④ 경기장 밖으로 나갈때
- 옆차기는 상대의 어느 부위를 공격하나? ()
 ① 앞 굴 ② 옆 구 리 ③ 아랫 배 ④ 무 료
- 다음에 열거한 체급을 가버은 것부터 차례로 번호를 써넣어라. ()
 ① 웰 터 급 ② 플라이급 ③ 밴 텀 급 ④ 미 들 급
- 태극 8장에서 두발당상차기를 할 때 공격하는 발은? ()
 ① 왼 발 ② 오 른 발 ③ 오른발과 왼발 ④ 어느발도 공격하지 않는다.
- 겨루기 할 때 있어야 할 심판 이름을 모두 쓰시오.
 () () () ()
- ㅂ자를 쓰는 순서가 맞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 1, ㅈ, ㅊ, ㅅ ② 1, ㅅ, ㅊ, ㅈ ③ 1, ㅈ, ㅊ, ㅅ ④ 1, ㅅ, ㅈ, ㅊ
- 다음에 열거한 우리 몸의 부위 중 몸통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명 치 ② 가 슷 ③ 늑 골 ④ 관 자

5, 6 학년 정답안

- 1-④ 2-막기 3-③ 4-④ 5-② 6-안의태 7-① 8-몸통/명치, 아래/넙심 9-② 10-④
 11-② 12-7, 25 13-③ 14-④ 15-② 16-②③④ 17-③ 18-배심, 주심, 부심 19-④ 20-④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홍보실

국민의 체위향상과 우수선수발굴을 위하여, 향토애를 고취시키며, 상호 우의를 띠를 돈독히하는 체전의 의의가 태권도는 어떠하였는가? 비단 태권도 경기뿐이라면... 모든 경기가 「스포츠 맨 쉽」보다는 지나친 승부욕에서 생기는 부조리들이 심심치 않게 화제에 오름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특히나, 투기종목에서는 더욱 더 불미스러운 화제가 난무하다.

강릉에서 치루어진 경기장의 후문은 某협회와 某협회를 위한 경기인가? 라는 각시도협회의 쑥덕공론은 그도가 좁은 높아져서 선수육성 포기설까지 난무하였다. 이것은 각 협회 임원들의 지나친 승부욕에서 기인된 불만의 소리인지-.

정말로 문제가 있어서인지- 를 좁은 깊이 있게 생각 해 봐야 되겠다.

또, 심판원들의 잔치(?)가 전국체전인가? 는 소리도 높았다.

심판원의 임무는 법원에서 원고나 피고(선수 와 팀)의 운명(승부의 결정)을 좌우하는 판사의 위치와 같은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와 지도자가 있고 시설이 훌륭하게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심판의 경기 운영면에서 「공명정대」의 원칙을 외면한다면 결과야 뻔하지 않은가? 대회를 마친후 후문이 좋지 않게 나도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나, 그 뒷말들의 경중을 깊이 경청하여야 할 필요는 분명 있어야 하겠다.

우리가 흔히 즐겨보는 복싱경기는 두손에 글러브를 낀 4개의 주먹이 사용되나, 우리 태권도는 손발의 사용으로 4개의 주먹과, 4개의 발이 교차되는 경기로 경기의 흐름이 빠르며 판정을 내리기에 어려움이 따르며, 또한 격렬함으로 관중이 흥분하기 쉽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수긍이 간다.

그러나, 선수를 육성하는 코치(지도자)들은 거의가 심판자격증 및 코우치 아카데미를 마친 태권도에서는 우수한 지도자들임은 경기를 주도하는 심판원들은 더욱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경기에서는 이기고 판정에서 졌다」

「경기장 밖에서 경기(?)를 잘 지도하는 코치가 유능한 지도자이며 팀을 우승시킨다」라는 이야기들은 입방아로써만 그쳐져야만 되는 일이 아닐는지?

지능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가 아니라면, 그 원인을 분석하여 제거함에도 지능을 높혀야 하지 않을까?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경기장은 태권도인들에게 최대의 멋진 장소이며 태권도 발전을 약속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선배들의 입장에서는 지도한 후배들이 갖고 닦은 기량발휘로 면면히 이어지는 우리의 전통을 기리는 장소가 되어야 하겠으며,

○후배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선배들이 공명정대하며, 후배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과 위엄을

본 받는 산 교육장이어야 하겠으며,
○관중과 경기인(진행, 심판, 코치, 선수) 상호간에 「스포츠 맨 쉼」의 가교가 되어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우의를 돈독히 하는 창소가 되어야, 바람직한 경기장이 아니겠는지—

이러한 세가지 입장은 각자가 양심이라는 정의의 거울에 비추어 꺼릴것이 없다는 대전제에서 뿌리를 같이하여야만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시다.

이번 전국체전, 아니 올해의 경기장에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선배, 후배, 경기인, 관중이었던지를……?

경기장의 질서는 만민이 평등하게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율성이 부족하고 준법정신이 모자라는 반무도인들로 하여금 유린되어 지지는 않았는지—.

이번에도 우리는 잘 보았다.

우리 태권도인 대다수는 밝고 맑은 심성을 갖고 스스로 삼가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실천하였다.

불과 몇몇의 후안무치하고 양심을 저버린 물지각의 소치가 우리들 양심에 그늘을 드리게 하는 원인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 암영은 해마다 그 농도를 열게 할 수 밖에 없음을 우린 바라며 보았다.

그림자는 공명정대히 떠오르는 태양을 가리하지 못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음에, 후안무치한 부류는 기억하여야 되리라.

스포츠와 經濟

金 凡 植

(成均館大學校 體育教育科 講師)

I. 緒 論

第2次 世界大戰 이후 스포츠는 스포츠활동 그 자체뿐만 아니라 人類社會의 모든 영역, 政治, 經濟, 社會, 文化, 教育, 藝術 등 스포츠와 전혀 이질적인 요소에까지 침투하고 있다.

특히 資本主義의 發達과 맥락을 같이 하는 現代 스포츠는 經濟分野와의 關係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게임이 있는 곳에 事業이 있고, 事業이 있는 곳에 게임이 있다」(S. K.Figler, 1981 ; 154) 또는 「게임의 승리와 패배, 모든 경기가 돈과 關係를 갖는다」(J.W.Loy B.D.McPherson · G.Kenyon, 1978 ; 256) 라는 말도 스포츠 世界에 상업성이 대두됨에 따라 스포츠 活動과 關係한 經濟現象이 갑자기 부각되어지는 現實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스포츠의 經濟現象은 1) 거대한 스포츠 企業體, 2) 스포츠용품 공장, 3) 종합경기장, 체육관 건설을 위한 건축가, 시공자, 토목기술자, 4) 스포츠 행사와 關係된 임대, 5) 흥행 사업, 6) 도박, 7) 법률 대리인, 8) 매스컴의 상업광고 등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J.W.Loy · B.D.McPherson · G.Kenyon, 1978 ; 256)

그러나 스포츠와 經濟의 만남은 불행하게도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많이 나타내는데 특히 現代에 이르러 다음의 몇가지 점에서 근본적인 갈등의 요인이 있다 하겠다.

첫째로, 스포츠의 내재적 기능이 산업조직에게

商業性내지 收益性에 대한 확신을 제공한다는 점

스포츠의 特性중 경쟁성(Competition, 스포츠엔 항상 상대가 있다)과 비결과성(Uncertainty, 스포츠는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승패를 사전에 알수 없다)은 온 人類에게 世界에 대한 환희와 꿈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팬들에게 신선한 쾌감과 자극을 준다. 이러한 動機가 기업가에게 商業主義의 要素로 이용된다.

둘째로, 스포츠에 대한 근본적인 價値와 期待는 인정하나 프로 스포츠를 통한 社會的, 經濟的不平等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

서구 자본주의나 동구 공산주의를 막론하고 세계적인 기록달성이나 올림픽 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은 범국가적으로 英雄視되어지며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막대한 富와 特權이 주어진다.

세째로, 기존질서의 維持를 위한 조작적 이데올로기에 이용된다는 점.

스포츠 경기를 지극히 자극적이고 말초적이며 테크노크라트한 이질문화현상으로 전락시킴으로써 구조기능주의가 이미 형성해 놓은 權力構造(경제질서 포함)를 유지하는데 활용한다.

이에 대해 P. Hoch는 「스포츠를 商品社會의 허구적이고 소외된 대용물로 보고 본질적으로 소외된 勞動의 단순한 모방」이라고 주장하였고(정성태, 김창규訳, 1984 ; 396), Gruneau도 「스포츠는 富와 權力의 차별과 밀접한 關聯을 가지고 있으며... 경쟁 스포츠는 브르조아지 이데올로기를 반영하여 거짓 희망과 거짓 의식으로 하류 계

층을 속이고 있다。」고 말한다(R.S.Gruneau, 1975; 142~143).

이처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삼法則이 스포츠와 經濟의 결합 과정에서 많은 사례로 나타난다.

이에 本研究는 各種 스포츠 行事 및 관련 分野에서 資本의 유입이 야기시키고 있는 現代 스포츠의 經濟的 逸脫 사례를 분석한 다음 순수한 스포츠 理想과 經濟倫理를 道德적으로 統合시켜 봄으로써 健全한 스포츠의 育成, 發展에 도움이 되 고자 한다.

II. 現代 스포츠의 形成과 資本主義의 영향

經濟와 스포츠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가장 原初的인 動機는 事業이 스포츠의 大衆性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D.Seizen and G.H.Sage, 1978; 173).

20세기에 들어 經濟成長은 스포츠 企業, 선수, 코우치 뿐만 아니라 觀衆, 매스컴, 소셜, 예술등 각종 분야에 스포츠 붐을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 붐을 가져오게 한 要因은 産業革命 이후 資本主義의 形成過程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Leonard는 現代 스포츠의 形成과 發展에 影響을 준 要因으로 1) 技術의 發展 2) 産業化 3) 通信 및 交通의 발달 4) 都市化등을 들고 있다.

(W.M. Leonard II, 1980; 29~32)

첫째, 商品, 建築, 電氣, 寫眞등에 있어 획기적인 技術의 發展이다.

재봉틀과 공장 조직의 발달은 운동 용구와 유니폼 제작에, 電線과 新聞의 발달은 스포츠 붐을, 코닥 카메라는 스포츠 선호에 충동의 효과를, 백열등의 發明은 夜間競技를 건축 기술의 발달은 실내경기의 유치로 발전케 하였다.

둘째, 産業化이다.

産業化는 기계의 힘과 노동의 分業을 이용하여 거대한 場에서 大量生産이 이루어지는 過程을

말한다. 이러한 産業化의 부산물로서 스포츠와 相關된 의류, 구두, 가죽 제품의 스포츠 用具生産을 촉발시켰다.

셋째, 交通 및 通信의 發展이다.

스포츠가 地域的 한계를 갖고 단순히 娛樂과 趣味로 실시되던 것이 철도, 자동차, 비행기의 發明으로 스포츠 행사의 領域을 확대시켜 놓았다.

수송 수단의 發展은 관공이나 팀이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경기를 갖도록 하였기 때문에 조직적인 스포츠나 프로 스포츠의 탄생을 가능케 한 것이다.

또한 1950년대 電線과 新聞의 發明은 경기의 결과를 전국 곳곳에서 알수 있도록 하였고 라디오, 텔레비전의 출현은 경기가 없는 곳에서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포츠 붐에 크게 기여하였다.

네째, 都市化이다.

産業革命 이후 職業의 形態가 농목축업에서 공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工場地帶가 밀집되어 있는 都市로 人口가 集中되는 現象이 일어났다.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차원에서도 都市人들의 生活水準이 향상되고 餘暇時間이 증대됨에 따라 레저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大衆스포츠가 必要하게 되었고 레저나 商業스포츠의 잠재력을 가진 人口集中地域인 都市에서 발달된 것이다.

그의 人間의 '짧게 그리고 오래 살고 싶다.'는 生命에 대한 경외와 장수에 대한 희구는 단전호흡법, 정좌법, 목욕법, 보약·장수식품 복용,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한 관심과 함께 레저, 오락, 건강운동, 취미활동의 영역으로서 스포츠 活動을 점차 選好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日常生活에서 大衆스포츠를 生活스포츠로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는데 이와 相關된 업종으로서 종합레크리에이션센터, 헬스클럽, 낚시회, 무도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장등이 성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資本主義의 직·간접적인 影響으로 형성된 現代스포츠는 産業社會와 명백한 기능적인

연계를 갖게 되었고 이것이 歴史的으로 프로스포츠와 企業과의 관계를 매우 강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스포츠의 잠재적 가치들이 産業組織에 대한 정당한 이데올로기를 제공하기 때문”(D. S. Eitzen and G.H.Sage, 1978 ; 170) 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스포츠 活動과 관련하여 돈의 交換이 이루어지고 스포츠의 商業主義가 대두된다.

商業스포츠의 성향을 기술하면

1) 스포츠는 게임, 오락 그 자체보다는 入場券 수입, 텔레비전 방영권, 기업체의 홍보·선전등 사업에 관심을 갖는다.

2) 프로팀 구단주는 끊임없이 더 나은 利益을 위하여 市場개척에 분주하다.

3) 운동선수는 팀이나 팬들에 대한 존경보다는 자신의 經濟的 利得을 더 먼저 생각한다.

4) 스포츠 行事의 財政的 후원자인 텔레비전이 경기 시간과 장소, 스케줄, 심지어 規則까지도 변경을 요구한다.

5) 구단주와 운동선수, 매니저와 운동선수, 커미셔너와 매니저, 팀과 팀, 선수와 선수들 사이에 급진 문제를 원인으로 하는 싸움이 빈번해진다.

Ⅲ. 스포츠와 經濟的 逸脫

스포츠란 개인적인 쾌락, 오락, 건강 또는 社會的 適應 能力에 공헌하는 身體活動이라 할수 있다.(E. F. Zelgler, 1977 ; 40-43)

그러나 現代 스포츠는 단순한 理想과 本質과는 달리 政治, 經濟, 社會, 文化的인 측면과의 統合過程에서 변태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이를 스포츠 逸脫이라고 한다.

특히 經濟的 측면에서 금전 때문에 일어나는 스포츠의 經濟的 逸脫은 金錢萬能地帶라고 일컫는 資本主義 體制下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歸結이요 接脈現象이라고 할수 있다.

스포츠를 계급착취의 產物이라고 極言하며 보수주의적 놀이성을 강조하는 社會主義體制下에

서도 選手, 코우치 등에 대한 생계 수당, 보상금, 상금지급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일이다.

아마추어리즘을 강력히 고수했던 초창기의 IO C 規定도 1938년 「공백기의 봉급 손실분에 대한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극히 개인적이고 예외적인 규정이지만 “올림픽 참가 選手가 家族의 유일한 부양 책임자일 경우 그의 부재중 아내나 부모에게 선수가 속한 職場 고용주가 소정의 봉급을 지급할 수 있다.”(정성태·김창규訳, 1984 ; 74)고 후퇴한 뒤 직·간접적으로 스포츠와 經濟와의 관련 여부를 실제적으로 관망하고 있는게 現實이다.

人間의 〈풍족한 삶, 더 나은 生活〉이라는 經濟的 期待에 의하여 스포츠의 理想이 점점 변질되어 가는 스포츠의 經濟的 逸脫 事例을 심층적으로 分析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샤마츄어 운동 (Shamatear Movement)

샤마츄어 운동이란 가짜 아마츄어 운동을 말한 다.

Lyman은 「The Future of the Olympics」에서 샤마츄어 운동의 목적을 5가지로 들고 있는데 (Lyman, 1972 ; 8, W.M. Leonard II, 1980; 300에서 재인용) 그중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소개하면,

1)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스포츠연맹은 訓練과 競技에 관련된 經費지원은 그 원천이 개인이든 企業체이든 政府이든지 간에 존중해 주어야 한다.

2) 학생 운동선수는 教育을 마칠 때까지 獎學金을 비롯한 財政支援을 받아야 하며, 직업선수 또한 사실상의 고용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3) 운동선수는 스포츠 행사 참가에 있어 시합 부문을 위시하여 텔레비전, 광고, 교육등 상업성을 띤 각종 출현에 있어서도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샤마츄어 운동은 모든 스포츠활동이나 관련 분야에 있어 그에 대한 보상을 공식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社會運動으로서 올림픽을 비롯

한 각종 스포츠 場에서의 經濟的 革命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 경제와 관련된 사회운동으로서 스포츠 소비자 보호운동도 있다.

1977년 R.Nader를 중심으로한 FANS (The Fight to Advance the National's Sports, 시민의 스포츠증진을 위한 투쟁)라는 사회운동 단체는 주로 스포츠경기를 즐기는 각종 팬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보겠다는 소비자 보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FANS가 주장하는 10개항의 권리장전중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을 갖는 내용을 들어보면

1) 스포츠 경기의 입장료를 적정 가격으로 매기고 입장료만큼 충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2) 경기장에서는 음식을 충분히 마련하고 바가지를 싸우지 않는다.

3) 팬은 각종 정부기관보다 이익을 우선한다.

4) 팬은 시설의 최소임대, 세금이익, 보조금, 특권등 특별한 혜택을 받고있는 스포츠 企業에 관한 정보를 최우선적으로 알 권리가 있다.

5) 팬은 납세자요 소비자로서 스포츠의 역할, 즉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이익을 갖는다. 등이다.

이 단체는 스포츠경기 입장료, 경기장 내의 식당, 극장, 영화관, 주차장 및 시설 임대료의 적정가격을 책정하여 경기단체 또는 소유주와 적극적으로 협상하기도 하고 스포츠용품에 대한 품질과 가격에 대해서도 소비자를 위한 개선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도 전개한다.

또 ISL(국제 여가 스포츠 협회)이란 단체는 아디다스, 멘츠, (일본의 대형광고 회사) 코카콜라, 푸마, 맥도날드(세계 최대 체인 레스토랑) 등이 만들어 올림픽 대회를 지원한다는 미명하에 올림픽을 시장화, 상업화를 조장시키고 있다.

2. 法人 스포츠(Corporate Sport)

現代 스포츠는 조직의 발전 단계를 초보적 단계, 전문적 단계, 관리적 단계, 법인적 단계로 구

분할 수 있다. 그중 법인적 단계는 고도로 관료화되고 체계화된 법인체 성격을 띤 기업 스포츠 조직을 말한다.

企業은 스포츠 자체가 事業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用具, 器資材, 施設등의 商品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그들의 고유 상품을 팔기 위한 홍보 선전 전략으로 人氣選手를 이용하기도 하고, 企業을 상징하는 팀을 운영하기도 하며, 매스컴 광고에 투자하기도 한다.

또한 이를 效率的으로 운영하기 위해 스포츠 組織을 더욱 관료화하고 제도화하여 法人 스포츠 형태를 취하게 된다.

企業이 프로 스포츠 구단을 직접 경영하고 있는 경우 여러 면에서 經濟的 利得을 남길 수 있다.

첫째, 구단 자체가 商品化됨으로써 價値가 매년 대폭적으로 상승된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몬트리얼 캐나다인하키 클럽(Montreal Candian Hockey Club)은 1910년에 불과 7,500불이었던 것이 1921년에 11,000불, 1935년에 165,000불, 1957년에 270만불이더니 1971년에 1,500만불로서 최근 14년 사이에 무려 1,230만불을 벌어들였고(B.D.McPherson, 1975 ; 262), 美國의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보스턴 셀틱스팀(Boston Celtics franchise)도 1965년 280만불에서 1969년 620만불로 4년만에 2배 이상이 뛰어 올랐다. (D. S. Eitzen and G. H. Sage, 1978 ; 180)

둘째, 스포츠 경기를 통하여 入場券판매, 매스컴 광고 수입, 자동차 주차료, 가게 임대등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특히 텔레비전 방영권을 파는 것은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되기도 한다.

세째, 운동선수들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여 이익을 남긴다.

스포츠계에서 프로 구단주는 반독점금지법이나 유보 조항(Reserve Clause)등 法的 保護를 받는다. 1890년 Sherman의 독점금지법(Antitrust

Act) 이래 일반 經濟活動이나 상품시장에서 의 독점 금지와는 달리 특정 구단이 승리를 독점하지 않고 팀간의 전력에 균형을 이룬다는 미명하에 選手들의 계약 지구를 한정하는 지역 연고제나, 한번 계약을 맺은 選手는 자기가 원하는 팀에 자유롭게 이적할 수 없는 유보조항등은 소유주가 일방적으로 얻는 혜택이다.

우리나라 프로 야구의 경우에도 “구단과 선수의 연봉 조정에 있어 상한선을 25%로 묶어둔 것이나, 신인 선수의 초임 보수를 월 1백만원 이하로 책정한 것이나, 시즌중 게임 승리 수당의 일방적인 폐지 또는 보류 선수 규정등은 구단에게만 유리하고 선수에게는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 (일간스포츠, 1983년 11월 23일자(제4364호)2면)

내재, 각종 세금의 감면등 지원 혜택을 받는다. 美國의 경우 “60년대 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새로 건설된 競技場, 體育館, 부대 시설등은 감면되었으며 건축후 利用에도 세금 혜택을 받았고 선수, 구단원, 상비 시설 판매 등에서 얻은 이익에서도 감면을 받았다.” B.D.McPherson, , 1975; 265)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운동 용구의 생산 장려를 위하여 國家는 생산업자에 대한 융자 주선을 해주도록 되어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 각종 施設投資나 프로 스포츠의 손실 부문에 대해서도 主企業체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그외 스포츠를 통한 직접적인 관련 분야외에도 스포츠 衣類, 신발, 빙과류, 음료수, 음식점등 부대 사업에 있어서도 많은 이익을 남기기도 한다.

3. 운동 선수

운동 선수가 경기를 한 댓가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은 것은 옛날 古代 올림픽 경기에도 있었다.

“올림픽 경기의 우승자는 영웅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그들의 노력과 희생에 대하여 풍부한 보상이 주어졌고 세금 면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선물과 명예가 주어졌다. 이것은 올림픽이 경기뿐만 아니라 그밖의 여러가지 제례 경기에서도 物理

的 포상을 요구하였고 選手를 매수하는 등 프로 현상이 있었다.” (許垠, 1982; 12-15)

더욱이 資本主義下에서의 운동 선수가 아마추어와 프로를 막론하고 그들의 봉급, 보너스, 퇴직금 또는 경기와 관련된 돈벌이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아마추어리즘의 상징인 올림픽 현장에도 스키 선수인 칼 슈란츠 스캔달 이후 아마추어들의 금전 수수 문제가 심심찮게 야기되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 한계를 第26條에 설정하게 되었다.

아마추어 선수는 자신이 경기에 참가함으로써 여하한 金錢의 보수나 物質의 이득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으나 ‘다만 올림픽 참가 선수는 식비, 숙박비, 여비, 잡비, 보험금, 용구, 피복비, 물리요법 및 코우치에 지불하는 비용등에 충당하는 것에는 돈을 받아도 된다.’ (올림픽헌장 第26條)고 개정하였다.

프로의 경우 “選手는 각종 불리한 法的 조치에 대한 도전(의회 또는 법원)을 통하여 個人의 人權과 經濟的 保護를 적극적으로 실현시키고 있는데”(S. K. Figler, 1981; 165-167) 이제 수입면에서 美國의 미식축구, 야구, 농구등 운동 선수가 연봉 수백만 달러를 받는다는가 테니스, 권투, 골프 선수가 게임에 출전하여 불과 한달 동안에 수십만달러를 벌어들이는 사례는 이제 허다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프로 출범 이후 운동 선수중 일반 기업체 사장의 봉급 수준을 받고 있는 者들이 많아졌다. 일반 기업체 사장들의 봉급은 월 100~500만원 선으로 그중 70%가 200만원 정도인데 최근 프로야구 선수들도 보너스를 제외하고 연봉 2,400만원 이상을 받는 者가 150여명중 42명이나 된다. (중앙일보, 1985년 2월 9일자 <제5982호> 9면)

또한 프로 선수는 옛날보다 수입을 올리는 기회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상품 선전을 위한 모델 뿐만 아니라 경기 해설자, 스포츠 캠프, 레크리에이션 센터, 호텔, 레스토랑, 사업체 경영등 다른 分野에 까지 關心을 갖게 되었다.

4. 스카웃 (Scout)

企業이 스포츠팀을 갖게 되는 動機는 商業的인 關心으로 그들의 商品과 会社를 宣傳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운영하고 있는 소속팀이 승리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강력한 印象을 심어주고 상품의 판매 效果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企業이 우수한 選手를 차지하기 위해서 금전을 뿌리는 것은 프로이건 아마이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구단의 수입을 위해, 기업의 權威를 위해 각 구단이나 재벌 그룹의 금전 뒷거래라는 추문이 뒤따른다. 이에는 상당액의 돈과 함께 가족 친지등의 직장취업, 사업 알선, 해외 유학 보장, 아파트 입주권, 자동차 제공등 갖가지 經濟的 혜택으로 유혹한다.

특히 아마추어 신분의 選手는 돈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되지만 國內 아마 스포츠의 경우에도 금전 오염 현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83년초 농구 선수 성장아의 선발 파동은 태평양화화, 동방생명, 현대의 삼파전이었으나 결국 동방생명이 2억원 금전 공세로 스카웃하였고(동아일보, 1985년 2월 7일자<제19508호> 5면), 79년三星과 現代간의 농구 선수 이동권에 대한 3천만원 과열 스카웃(일간스포츠 1979년 2월 9일자<제2888호> 1면)의 스캔달도 스카웃과 기업과 돈이라는 3차방정식에서 그 脈絡을 찾아 볼수 있다.

大學에 있어서도 選手 스카웃에 등록금 면제, 衣服, 宿食, 補償金등 非合法的인 금전개입이 난무하고 있다.

5. 매스콤 (특히 TV)

스포츠 大衆化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형태중에는 電線, 新聞, 雜誌, 映畫, 라디오, 텔레비전등의 매스콤이 있다.

매스콤을 통한 스포츠 消費는 消費者에게 가장 낮은 價格으로 娛樂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 組織에게는 막대한 수입을 올리게 한다.

매스콤은 게임 방영 및 스포츠 組織이나 企業에 사서 廣告時間을 할애 받아 宣傳을 원하는 企業이나 個人에게 다시 파는 形態를 취한다.

그중 텔레비전은 組織의인 게임을 시작한 이래 그 어떤 분야보다도 스포츠에 革新的인 變化를 주었다. 텔레비전이 스포츠에 影響을 미치는 分野에는 스포츠 消費분야, 구단 소유권, 구단 위치, 경기 일정과 장소, 규칙, 관리등이 있으나(W. M. Leonard II, 1980; 268-271) 특히 재정을 제공하는 生命水의 역할을 한다.

텔레비전과 프로 스포츠는 서로 의존하는 共生 共存의 관계로서 프로 스포츠의 경우 텔레비전 없이는 存在할 수 없다.

美國의 경우 매년 텔레비전에 의한 구단의 수입이 풋볼 클럽은 전체 수입중 35~40%를 차지하고 프로야구 클럽은 25% 이상을 차지하는데(W. M. Leonard II, 1980; 251) 1980년에 텔레비전이 스포츠에 투자한 액수는 100억불이 넘는다는 것이다.(W. M. Leonard II, 1982; 272)

또한 美國의 텔레비전방송국이 하계올림픽 대회 단독 중계권 획득에 투자한 액수는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때 8,500불,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때 2억 8천만불, 1988년 서울 올림픽엔 3억불(최고 5억불)이 예상되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텔레비전 방송시간이 1982년 프로야구팀 창단과 더불어 획기적으로 증가되었고 이에따른 광고료가 대폭적으로 증가 되었으며 주요 게임의 경우 30초 단위당 1회 광고료도 일반 광고료의 2배인 500만원 이상을 쫓아가고 있다.

6. 기 타

그외 스포츠의 경제 현상으로는 스포츠 용품의 직접 생산과 경기장의 부대산업으로서 식당, 주차장, 매점과 양모 상인의 경제 활동, 치어질 회사,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센터, 헬스 클럽, 골프장, 테니스 코트, 수영장등의 임대산업, 각종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도박(축구, 농구, 야구, 경마등)이 성행하고 學校體育에 있어서도 재정 보

조, 스카웃, 훈련비 지원등을 통한 經濟와의 관련 領域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Ⅳ. 스포츠와 經濟의 倫理的 統合

Lenk는 스포츠의 잠재적 가치를 서술하면서 “스포츠에서의 성취 원칙은 하나의 抽象性, 즉 勞働世界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행동 규범에 대한 순수한 공상적 구조에 있다.”(H. Lenk, 1979 ; 66) 고 언급하였다.

이는 스포츠가 社會的, 教育的, 美的, 道德的 可能性을 人間에게 부여함으로써 각 個人에 있어 調化로운 人性 發達에 공헌한다는 意味이다.

따라서 각종 運動競技 프로그램은 근본적으로 道德的이고 倫理的인 측면에서 教育의 理想과 관련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S.K.Figler, 1981 ; 141)

그러나 現實的으로 스포츠는 現代 資本主義社會에서 經濟的 利得에 대한 출세 코스로 간주되어 수준 높은 身體技術을 습득하기만 하면 상류 계층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혼돈에 빠지는 것이다.

한편 經濟의 입장에서 “神聖함은 富와 함께

존재한다.”(趙沈相역, 1981 ; 12)는 명제처럼 經濟가 단순히 道德的 諸價值들 속에서 설정될 수 없는 現實性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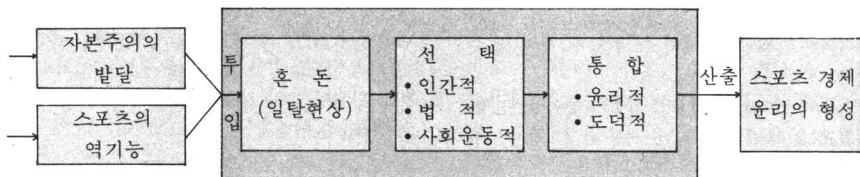
그러나 經濟도 결국 社會價值的 수용을 등한시 할 수 없는 人間活動으로서 個人的인 利得만을 추구할 수 없으며 엄격한 社會的 責任과 義務가 있는 것이다. 특히 資本主義 精神을 “정당한 經濟的 活動을 통하여 얻어진 利得은 個人的 향락 뿐만 아니라 道德的 倫理的 차원에서 社會와 的 調化에 두는”(林榮一·朴魯英역, 1982 ; 196) 理由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를 A. Smith는 「도덕적 감성론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에서 “理性的 利己心”(金學俊·李啓熙역, 1983 ; 204) 이라고 표현하였다.

스포츠도 勞働과 달리 生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內在的인 價値에 의해서 일어나는 活動으로서 物質的 欲求의 生活過程 바깥에서 存한다.

그러므로 스포츠의 內在的인 價値와 經濟的 理性的인 倫理가 調化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結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論議를 바탕으로 스포츠와 經濟의 道德的 統合過程을 모델화하면(그림 1)과 같다.



〈그림 1〉 스포츠 經濟의 윤리적 통합을 위한 모델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産業革命 以後, 資本主義의 發達過程에서 나타난 科學, 技術의 進歩, 餘暇時間의 증대, 풍부한 生活에 따라 大衆의 레저·스포츠에 대한

參與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면서 스포츠와 經濟의 接觸은 스포츠의 逆機能的인 속성과 經濟의 反社會的 利益 추구가 부정적으로 혼재됨으로써 스포츠의 經濟的 逸脫 現象이 나타난다.

2) 이에따른 危機를 극복하기 위하여 스포츠

의 人間主義(Humanism)의 性格을 강화하고, 硬化된 아마추어리즘의 完善, 各種 스포츠 關係 規程 및 法規의 修正·補完, 아마추어리즘의 社會運動전개등 人間的, 法的, 社會運動의 次元에서 選擇過程이 일어난다.

3) 이러한 選擇에 의하여 스포츠의 내재적 가치와 經濟的 顯示의 機能이 倫理的, 道德的 統合을 이룩함으로써 人類全體의 政治, 經濟, 教育, 文化 發展에 커다란 希望과 變化를 가져다 줄 수 있으리라 料想된다.

參 考 文 獻

1. 金學俊·李啓熙역, 마이클 노바크著, 「民主資本主義의 精神」 乙酉文化社, 1983.
2. 林榮一·朴魯英역, A 기던스著, 「자본주의와 現代社會理論」 한길사, 1982.
3. 鄭성태·김창규 공역, 제프리 시그레이브·도널드추 편저, 「올림픽 사회학」 중앙일보사, 1984.
4. 趙沈根역, J. 필립 위가만著, 「經濟 이데올로기 大論爭」 靑史, 1981.
5. 許垺, 「올림픽 競技史」 東洋文化社, 1982.
6. 東亞日報. 1985년 2월 7일자<제19508호> 5면.
7. 일간 스포츠, 1979년 2월 9일자<제2888호> 1면.
8. 일간 스포츠, 1983년 11월 21일자<제4364호> 2면.
9. 中央日報. 1985년 2월 9일자<제5982호> 9면.
10. A. Gutman. "Capitalism, Protestantism and Modern Sport" 「Sport in the Sociocultural Process, M. Hart and S. Birrell (ed.)」 Wm. C. Brown Company Publishers, 1981.
11. B. D. McPherson. "Sport Consumption and the Economics of Consumerism" 「Sport and Social Orders, Ball and Loy (ed.)」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5.
12. D. S. Eitzen and G. H. Sage. 「Sociology of America Sport」 Wm. C. Brown Company Publishers, 1978.
13. E. F. Zeigler. 「Physical Education Sport Philosophy」 Prentice-Hall International Inc., 1977.
14. H. Edwards. 「Sociology of Sport」 The Dorsey Press, 1973.
15. H. Lenk 「Social Philosophy of Athletics Champaign」 Stipes, 1979.
16. J. W. Loy, B. D. McPherson and G. Kenyon. 「Sport and Social System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Inc., 1978.
17. P. Hoch 「Rip off the big Game」 Doubleday, 1972.
18. R. Synder. "The Sporting Goods Market at the threshold of the Seventies" 「Sport in the Sociocultural Process, M. Hart (ed.)」 Dubuque. Iowa: Wm. C. Brown Company, Publishers, 1981.
19. R. S. Gruneau. "Sport, Social Differentiation and Social Inequality" 「Sport and Social Orders, Ball and Loy (ed.)」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5.
20. S. K. Figler 「Sport and Play in American life」 Saunders College Publishing, 1981.
21. W. M. Leonard II. 「A Sociological Perspective of Sport」 Burgess Publishing Company, 1980.



아르헨티나

장종희 / 사범

제 2 회 대통령배쟁탈 태권도대회 종합우승한 자코주 어린이들

면 적 : 약 276만7천km²

인 구 : 약 2,800만

인구밀도 : 10인 / km²

수 도 : 부에노스 아이레스

공용어 : 스페인어

통 화 : 페 소

※ 국민 1 인당 식육소비량 : 연간 190kg
(세계 1 위)

아르헨티나는 이렇게 은을 뜻하는 라 플라타 강을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은을 뜻하는 라틴어로 지은 것이다.

굳이 라틴어로 이름을 지은 것은 16세기부터인 스페인의 오랜 식민통치에서 독립하면서 나라 이름에 스페인어를 쓰기 싫었기 때문이었다.

이 나라는 남북의 거리가 최장 3,700km, 동서 1,700km나 되는 광활한 국토의 40% 이상이 목장과 방목지이며 10% 정도는 농지이다. 그래서 육류가 풍부하여 국민 1인당 식육 소비량은 연간 190kg에 달하여 세계 1위이다.

잔디가 발달해서인지 축구 열기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월드컵 축구대회에서는 '디에고·마라도나'와 같은 '수퍼·스타'가 탄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와는 1962년 2월15일에 국교를 수

아 르헨티나는 라틴어로 (銀)이란 뜻이다. 이 나라 땅의 한복판을 흐르는 큰 강을 거슬러 오르면 은의 산지가 있다고 믿은 탓으로 이 강을 라 플라타(La Plata:스페인어로 은을 뜻함)라고 불렀다.



파라과이 지도자교육에 참가한 장사범 (왼쪽 앞줄 첫번째)

림하여 현재 두나라는 대사관을 개설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는 교역도 활발하여 우리나라는 철강, 전자, 섬유, 신발, 직물류를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로부터는 곡물, 소고기, 면, 알미늄 등을 수입하고 있다.

8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교민 약 1,200세대 4,600여명이 살고 있으며 상사직원등이 100여명이 체류하고 있다.

이렇게 대략 알아본 아르헨티나에도 예외없이 한 민족의 전승무예인 태권도 사절이 파견되어 흰 도복을 입은 벽안의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태권도의 혼을 불어 넣고 있다.

지난 9월의 제7회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에 아르헨티나 태권도 연맹의 회의 대표로 일시 귀국한 장 중희 사범(30세)은 최근의 아르헨티나 태권도계 소식을 전해왔다.

“지난 1983년에 숙원이었던 아르헨티나 올림픽위원회에 태권도 연맹이 정식으로 가입되었습니다. 이것은 1977년에 불모지였던 이곳에서 처음으로 우리의 태권도를 보급하신 구영채 사범님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장 사범의 첫 마디는 선배사범의 공로를 기리

는 겸손한 자세를 조심스럽게 피력하는 소박한 그것이었다.

그는 또, “전에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를 역임한 페레스·콜만(Perez Colman) 씨의 변치않는 후원에 힘입어 금년에 “대통령배 태권 제2회 전국 태권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아르헨티나에서 태권도의 위치가 굳건한 것을 과시하기도 했다”면서 한국 사범들이 그나라 사회에서 깊은 신뢰를 받고 있음을 느끼게 했다.

장사범은 작년(84년)에 한국에서 파견한 남미 순회 시범단의 활약에 힘입어 취약지구인 자코주에서 1년간이나 고군분투하던 역경에서 벗어났으면서 지금은 주의 장교클럽에서 각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전국의 심사권을 구영채, 장중희 두 사범이 장악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자코 주에서는 서울 올림픽 관광 ‘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최 홍천 자코주 교민회장이 중심이 되어 현지인들에게도 한국 태권도의 정신적 지주인 존경심, 예절, 규율, 질서를 일깨우고 있습니다”고 친 북괴 계열이었던 자코주의 현지인 사범의 아성인 자코주에서의 성공담을 들려 주었다.



“이 북형대사(주 아르헨티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아르헨티나 이민 20주년 기념 대사가기 쟁탈 태권도 대회를 연례행사로 발전될 것입니다. 또 내년(86년) 3월에는 남미 6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볼리비아, 우루과이) 친선 태권도 경기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었다.

현지인 아가씨들이 미인들이라는데 혹시 아르헨티나 처녀와 결혼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장사범은, 정색하면서 고국의 소박한 아가씨들 중 매태 달라면서 87년에 있을 「팬·암」 대회 전에는 결혼할 예정이라든다.

현재 5만명 정도의 전국의 수련생들을 심사하고 지도자들의 실기지도와 심판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눈코 뜰 사이없이 바쁘다면서 구영채 사범님 댁에서 담근 김치 맛이 유일 먹는 낙이라면서 매일 1인당 500g이나 육류섭취가 습관인 이나

라에서는 채소가 귀빈접대용이라며 빙긋 웃었다.

최근에 아르헨티나에 이빈에 간 김안자(여성·5단) 사범의 근황을 묻자 시범과 여성수련생들의 지도에 여념이 없다고 덧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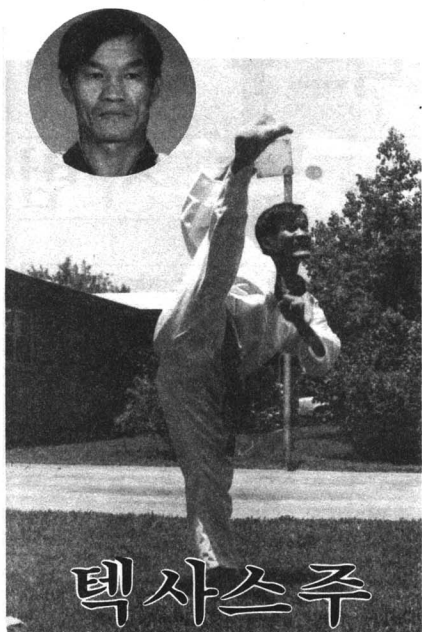
기자는 한마디 과장된 말도 없이 솔직 담백하게 고생한 이야기부터 자랑스러웠던 순간들까지 담담히 이야기 하는 그에게서 아르헨티나에서 성공한 인물의 미래상을 엿볼 수 있다.

또 것처럼 선배를 칭송하고 신뢰토록 만든 것이 바로 “윗 물이 맑으면 아랫 물이 더욱 푸르다는 평범한 곳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Chang, Jong Hee

장종희 사범 주소= CALLE 55-No571

전화 (021) 52-9910 1900 LA PLATA PROV
DE BUENOS AIRES



텍사스주 메칼란시 (Texas Mcallen)

사범/안대섭

미국의 남서부에 있는 주로서 면적은 우리나라의 3배가 넘는 넓은 땅에 풍부한 자원과 대규모의 농·목축업을 하고 있으므로 사람들은 기백이 있고, 과장된 표현이나 규모가 큰 일을 즐겨 한다.

“Texas”하면 소를 모는 「카우보이」가 연상되나 이제는 석유화학공업(미국 석유 생산량의 35%가 텍사스주에서 생산됨)에 연유된 우주 개발의 정밀공업 등에 주민들의 꿈이 담겨있어 옛날

의 「프론티어」적 기풍은 사라져 가고 있다.

인디언들의 땅이었던 텍사스, 스페인령이었다가 1845년 미국에 병합된 주로서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멕시코인이라고 불리우는 「메스티조」가 많다.

1969년 멕시코 정부 초청으로 출국하여, 태권도를 지도하였고, 1972년 「에쿠아돌」 경호실 요원 지도사범으로 2년간을 보낸후, 미국 「시카고」 등에서 태권도 보급에 심혈을 쏟은 안사범은 텍사스 맥칼란시에 자리를 잡은지 4년여—, 지금은 수련생 800여 명을 수련시키고 있으며,

또한 An, TRADING 이란 무역 도매상을 하여 기업인의 기틀을 잡고 있다.

처음 안사범이 텍사스에 왔을 때는 20 여개의 가라데 도장이 30년 전부터 뿌리를 내려 태권도장을 할 엄두도 못내던 태권도의 불모지였으나, 안사범의 집요하고도 적극적인 태권도시범, 무료강좌 등으로 분골쇄신한 덕택에 이제는 10 여개 이상의 가라데 도장이 태권도로 이름을 바꾸게되었고, 매월 2회의 공개시범으로 「맥칼란」시에서는 「Master An」이라면 누구나 알 정도(?) 가 되었다.

태권도 수련생 중 판사, 검사, 의사 등이 많이 있어 도장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며, 이젠 20개의 체육관에 현지인 사범을 고용 구름형태(?)를 이루었다고…….

한국인 사범이 많이 파견되어 자원 풍부한 이곳에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늘 있다.

그러나 4단 이상의 실력 보유자로 특기(시범)를 최소한 5가지 이상을 멋지게 해 낼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하며, 무술로서의 파괴력은 필수라고 말한다.

1960년대 한국에서 태권도 경기에서의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안사범이기에 지금의 텍사스의 「마스타 안」이 되었음을 상기하며, 품세, 격파, 시범, 겨루기 등에 손색이 없는 태권도사범만이 외국에서 살아 남는다고…….

콜로라도주 덴버市

박정호 사범



● 주소 : 9530 E. COLFAX AVE.
AURORA 80010 COLO
U. S. A.
CHUNG HO PARK



제 4 회 세계 대회에 선수단 주장으로 참가한 박사범

4년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건너가서 해외 태권도 보급에 참여하여 콜로라도주 태권도 협회 창설 멤버 한인청년회 회장직을 맡아 교민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기도 한 전 국가 대표 출신인 박정호 사범이 일시 귀국하였다.

그의 태권도 경력은 20여 년, 해외의 선배 사범에 비하면 아직도 낫지 않지만 그의 국내태권도 경기 경력은 화려하다.

고향 대구에서 형의 손을 잡고 동네에 있는 도장문을 두드렸던 때가 약관 10세 (그간 몇차례 한국에 올 때마다 자신에게 태권도를 일 깨워준



유치부심사 (태극품세장면)

스승 ‘장한걸 님!’께 방문,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후 73년 전국 대회에서 첫 금메달을 목에 걸고는 승승장구, 인천 체육대학 (1회), 육군 대표 선수단, 3·4회 세계 대회대표 선수 생활을 거치면서 체육훈장을 수상(受賞)하는 등 태권도 선수로서 최정상의 영예를 맛보기도 하였다. 선수생활을 그만둔 후 미국에 건너가기 전 3년 동안 시경 무도 사범과 수사관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외 태권도 지도자의 길을 걷는 현재의 그는 그 간 미국 생활을 직접 체험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솔직히 이야기한다.

“미국에서 태권도 도장을 개설하고는 여러가지 느낀 것이 많습니다. 국내에서 선수생활에만 치중하다가 막상 국제 사범이 되어 외국 수련생을 직접 지도하자니 특히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제 자신의 경기기량만 믿은 나머지 태권도 정신, 지도법, 품세, 과학적 트레이닝 이론 등의 이론 체계와 도장 운영면의 미숙에다가 언어소통마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점은 아마 각 나라로 나간 선수 출신 사범들이 느끼는 공통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등 경기인이 되는 것 보다는 1등 지도자가 되기가 더욱 힘들다는 것을 실감했지요.” 이어서 그는 시행 착오를 겪은 한 해

의 사범으로서 후배들에 대한 조언과 태권도에 대한 소망을 덧붙였다.

“태권도는 복싱, 레슬링과 같은 서양 격투기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 생활 중에는 그러한 점을 전혀 느끼지 못했지요. 이제야 그것을 어렵듯이 알 것 같은데 태권도는 인간 생활의 모든 것과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철학, 체육학, 교육학, 심리학 등의 학문적, 인격적 소양과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육체적 파괴력이 합쳐되어야 참다운 태권도라 할 수 있을 거예요. 태권도를 배우는 외국 수련생들은 동양의 정신, 예의범절, 건강, 호신 등을 추구하려는 데도, 득점 위주의 경기기술 전수에만 치중하거나 지도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셈이었지만 이 점을 후배들이 깨우쳐 노력, 실천하는 것이 자신과 종주국 태권도를 위함입니다.

앞으로는 제 자신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태권도의 정신 철학면과 과학적 이론 등에 관심을 두어 보다 깊이 있는 태권도를 추구하려 합니다.”

자리를 털면서 밝히는 그의 결의는 우리 모두의 마음 한 구석에 있는 값진 소망과 일치하리라. 아직도 젊고 유능한 박정호 사범의 분투를 기대 해 본다. ⑧

네바다주 라스 베가스 (Las Vegas)



관장/김 동 섭



대회경기장면

미국의 서부, 네바다주(州)의 남단, 사막 북단에 있는 도박의 도시, 도박을 주영화(州營化) 함으로 관광과 환락지로서 세계인의 각광을 받고 있으며, 하이웨이 연도에는 호화스러운 호텔, 음식점, 공인 도박장 등이 즐비하여 도박과 환락을 즐기는 관광객으로 성황을 이루어 「불야성」이란 별명까지 가지게 된 환락가이다.

태권도의 불모지인 이 곳에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태권도의 뿌리를 내리게 한 김희장은 제 1회 서부지역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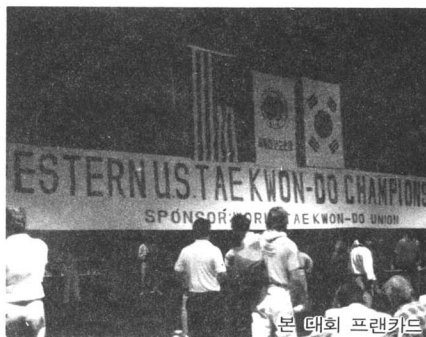
11월 23일 임페리얼 호텔 로얄 홀에서 개최한 본 대회는 토나먼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쿠웨이트 국가 경비 팀, 미국군 팀, 하와이, 샌디아고, 버지니아, 플로리다, 아리조나, 콜로라도, 네바다주 등에서 선수가 출전하여 기량을 겨루는 국제 대회이다.

대회 개막식전에 라스베가스 순복음 교회의 한국 민속무용 공연으로 한국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살리는 한편 고단자들의 태권도 시범으로 무예 스포츠의 위용을 과시하였다.

현재 네바다주 협회에는 이 경수 사범이 김동섭 관장을 보좌하며, 열심히 태권도 보급에 심혈을 쏟고 있다.



사 범
이 경수



본 대회 프랭크드

재독 대한태권도 협회

회 장/이 유 환



정순근 대사와 재독협회 임원들

서 독 태권도 협회는 11월 5일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회원 상호간의 파벌 및 계열화의 경향을 지양하고 체계를 일원화 하여 회원영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 ① 본회규약에 의한 지도위원 추대(회장단에 위임)
- ② 1986년도 본회 행사유치 계획 및 행사운영 실시계획 결의 행사운영을 시행코저하는 회원신청을 우선권으로 1985년 말까지 접수하여 86년초 제2차 이사회에서 최종결의 발표
- ③ 경기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심판 보수 교육 실시(본국 협회의뢰)
- ④ 본회 회비증수 안내를 위한 본회 은행 구좌 개설 운영(재무이사)
- ⑤ 회원 친목 친선을 위한 신년회 잔치주관(총무이사)
- ⑥ 제3회 재독한인 2세 태권도 대회 개최(경기이사)

⑦ 본국 협회 본회대표자 파견 (회 장)

또한 이사회에 이어 주독 대사관 관계부처 및 관계관 연석 회의를 개최하고, 유종현 참사님의 배려로 석찬회를 갖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협의하여 운영함을 적극적으론 후원키로 약속하였다.

- ① 제1회 주독 대한민국 특명 전권대사배 개최 (적극지원 협의)
- ② 86년 제3회 2세 태권도 대회 (단체 및 개인우승 교육관배)
- ③ 본회 유공자 및 태권도 공헌자 정부표창 및 포상협의
- ④ 도장 환경의 균형공일을 위한 대형 태극기 및 태권도지 보급 협조의뢰 협의

회의에는 본회 5대 임원으로 차용길, 박길도, 이강현, 조명구, 백진건, 김광우, 이유환 이사와 김우선 감사, 김만금 고문 등이 참석 하였으며, 석찬회에는 이사회 참석자 전원과 대한체육회 서독지부 이석인 회장, 김만금 부회장, 유종현 참사, 황금주 서기관 노무국장, 교육관 등이 참석하였다.

日本 대한태권도협회

— 1986年ソウル・アジア大会正式種目 —

TAEKWONDO

1980年7月、オリンピック憲章に基づいて公認された国際スポーツ

1985年度

第6回会長杯

在日 대한 태권도 협회에서는 12월 1일 白頭学院 建国 高等学校 講堂에서 제 6 회 회장대회를 개최하였다.

小学生은 輕量級, 中量級으로 나누었고, 中学生은 輕量級, 中量級으로 나누었고, 高等学生은

체급을 나누지 않고, 大学・一般은 輕, 中量級으로 나누어 경기를 실시하였다.

'86아시안 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점을 강조한 본 대회는 洪 性仁 大会長을 중심으로 순조롭게 치루었다고 전언,

축하합니다



한국대학태권도연맹

김한주 회장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한

국대학태권도연맹 회장 김한주 박사(정치학)는 미국 일리노이주 오로라대학교로부터 1985년 6월28일 법학박사 학

위를 받았다. 김한주회장은 경기대학 5대학장으로 취임 85년 경기종합대학교로 승격됨에 경기대학교 초대총장으로 현 재직중이다.

천하(天下)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고,
천하의 천하다.

(天下非一人之天下, 天下之天下)

眞理의 샘

六

輶(육도)는 고대 중국의 兵法書(병법서)의 하나이다.

고서지만 현대에 통용되는 진리가 허다하다.

천하(天下)는 일인지천하(一人之天下)가 아니고 천하지천하(天下之天下)다.
이말은 반독재(反獨裁)와 민주주의(民主主義)의 핵심을 찌른 말이다.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다.

한 사람이 좌지 우지하는 천하는 군주사회(君主社會)요, 전제주의(專制主義)요,
독재체제(獨裁體制)다.

천하는 일인지천하도 아니요, 일당의 천하도 아니요, 일계급의 천하도 아니다.

일당(一黨)의 천하의 전형이 공산주의사회다. 공산당이 일체를 지배하는
일계급(一階級)의 천하는 어느 한 특권적 지배계급만이 군림하고 다스리는 사회다.
현대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다.

민주주의 사회를 한문식(漢文式)으로 표현하면 천하지천하(天下之天下)다.

천하는 온 천하 사람의 천하요, 온 천하 사람을 위한 천하다.

만민동참(萬民同參)의 사회요, 만민동락(萬民同樂)의 사회다.

모든 국민이 다 사회에 참여하고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즐기는 사회가 천하지천하다.

중국은 민주주의의 정치제도를 확립하지는 못했지만 국민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은 일찍부터 싹텄다.

육도(六韜)의 이 말은 고대 중국의 민주사상(民主思想)의 대표적인 표현의 하나다.

일인지천하(一人之天下), 일당지천하(一黨之天下) 일계급지천하(一階級之天下)는
낡은 시대의 유물이요, 있어서는 아니되는 체제다.

우리는 만민참여 만민동락의 천하지천하를 건설해야 한다.

링컨은 「인민을 위한, 인민(人民)에 의한, 인민의 정치(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라는 민주주의의 명언을 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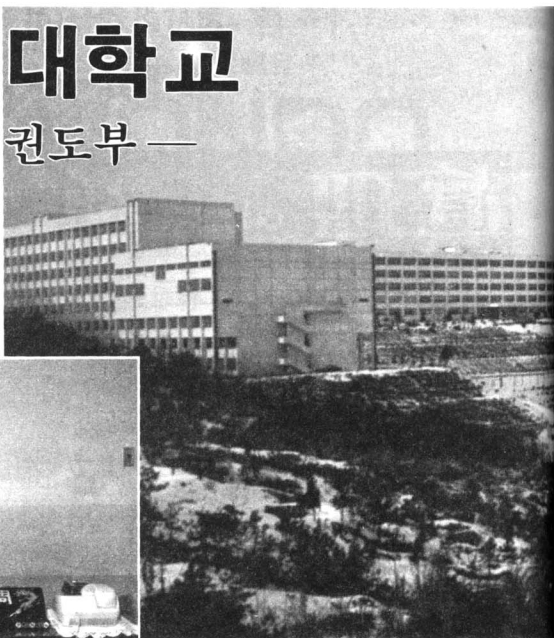
육도는 그와 비슷한 내용을 「천하는 일인지천하」가 아니고 「천하지 천하」라고
갈파하였다.

같이 남을 정치의 명언이다.

비단 정치뿐 아니라 단체를 운영하는 장(長)들에게나 지도자들은 명심해야 할
명언이다.

경기대학교

— 태권도부 —



김한주 총장 (집무실에서)

眞

誠, 愛의 승고한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승고한 교육입국의 뜻을 펼쳐온지 38주년을 맞으며, 경기대학은 6개의 단과대학에 39개의 학과를 보유하고 2개의 대학원을 개설하고 있는 종합대학교로 자리를 굳혔다.

개교 38주년을 맞은 기념사에서 손종국이사장은 선친인 孫祥教先生의 학교설립이념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의 모든것은 전부 학교의 것」이라는 일념으로 본인의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포함한 젊음과 신명을 바쳐 오직 학교발전을 위해 사심없이 헌신하겠다고 다짐하였고, 1983년 5대 학장으로 취임 재직중, 85년 중

합대학교로 승격과 동시에 초대 총장으로 취임한 김한주박사는 모든 경기인은 시대적 명제의 추구에 앞장서며, 개방적이며 진취적이고, 주체적이고도 민주적인 민족의 동량이 되겠다는 창조적인 의지와 개척의 정신인 건학정신으로 모순과 대결에서조차도 진취적으로 대처하는 폭넓은 인격을 도야하는데 숭선하자고 강조하였다.

경기도 용인군 이의리에 위치한 경기대학교는 고려의太祖大王이 산(山)의 광채가 하늘에 걸쳐있어 부처님의 영험이 서린 산이라 하여 광채산이라 명명하였다는 명산에 자리하였으며 다섯 개의 건물의 이름도 眞理館, 誠信館, 愛敬館, 叡智館, 德門館 등으로 명명하여 평소 학교생활에



광채산에 자리한 경기대학 수원캠퍼스 전경

서 진리탐구, 성실함과 책임감, 숭고한 인류애 정신, 고매한 인격도야, 덕육실천으로 가치관 확립을 강의실에 드나들며 느낄수 있도록 하였고 보여진다.

또한, 전경이 교문앞에 대기하여 출입하는 학생을 감시하며, 최루탄 개스냄새 배어있는 서울의 대학가와 달리 공기맑고 활기찬 학생들의 모습은 신성함을 느끼기까지 하였다.

김한주총장은 84년 한국대학태권도연맹회장으로 추대되어 85년도에는 경기대학교에 태권도부를 신설, 체육특기자 7명(강수광, 김도경, 김기홍, 원종철, 한명수, 서정현, 강문섭)을 선발하여 입학시켰고, 이들에게는 체육학과 외에도 본인

이 원하는 학과를 선택하여 정규수업을 받으며 태권도 선수로서의 자질을 키우고 있다.

특기생들에게 졸업정원제에 구애받지 않으며, 대학 4년간의 학비일체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기숙사시설이 보완되는 대로 선수 전원을 기숙시킬 계획이다.

본교는 전통적으로 배구, 유도, 조정종목등에서 국가대표선수를 많이 배출한 체육 명문교로 씨름, 탁구등도 수준급에 진입하고 있으며, 태동 1년생인 태권도부도 전국가대표를 역임한 정찬사범을 코치로 유치하여 열심히 수련한 결과 춘계대학연맹전에서 우수 1명, 준우승 1명, 전국체육대회의 경기도대표 선수 1명을 배출하는 공



깨끗이 시설한 태권도장



대학연맹 대회시 임원(뒷줄 가운데 김한주 총장)과 선수들

과를 올렸다.

최인범 (대학연맹 전무) 체육학과장은 86학년 도에도 6명의 선수를 선발할 예정으로 1985년 11월 현재 선수「스카웃」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고 말하며, 배구, 유도, 조정, 씨름, 탁구등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지 않겠느냐며 기대에 부풀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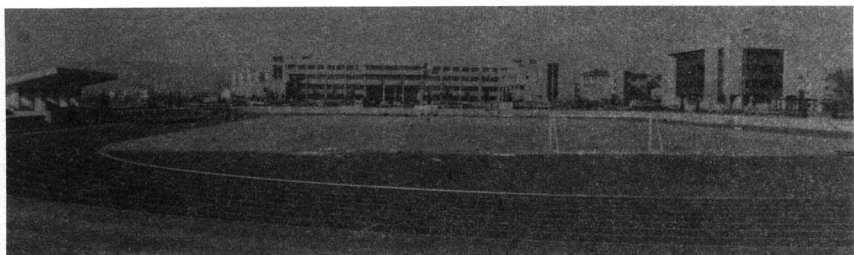
李種連 체육부장의 총 감독하에 열심히 수련하는 체육부, 그중 막내격인 태권도부는, 새로 깨끗이 단장된 태권도부실을 보면서 「나중난 뽀

이 우뚝하다」는 속담에 부합되는 결실이 맺히기를 태권도인으로서 기원하였다.

또한 경기도협회는 인천의 직할시승격으로 인하여 선수층이 얇아 고민하던 숙제가 경희대학교, 유도대학, 명지대학교에 이어 경기대학교의 태권도부 창설과 함께 이제는 풀려지고 있다고 안중웅전무는 전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돌리는 모습도 다행스러운 일면이며, 앞으로 경기대학교 태권도부 창단에 격려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해 본다. ㉠

웅비하는 국립 한국체육대학

江東올림픽타운으로 이전



— 한국 스포츠의 산실 한국체대 —

본 대학은 4년제 국립체육대학으로서 우리나라 교육이념아래 체육발전과 탁월한 체육지도자 및 국제수준의 우수선수 양성과 이에 필요한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위하고 정밀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아울러 애국애족의 투철한 국가관과 지도자로서의 자질 및 인격을 도모함을 임무로 하는 유일한 대학이다.

1976년 12월30일 도봉구 공릉동에 본교를 설립하여 제5회까지 졸업생을 배출하고 태릉골에서 강동구 가락동 올림픽타운의 신축교사로(1985. 7. 25) 이전하여 명실공히 大學의 면모를 갖춘 캠퍼스에서 전학년 국비로서 수업을 받게되며, 안락하고 편리하게 갖추어진 초현대식 기숙사에서의 생활도 모두 국비로 부담한다.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도 사계절 공급하게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은 오직 학문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전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매년 졸업생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우

수학생에게는 병역특례조치를 받게되어 징집이 면제되며 각종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85% 이상이 교원자격증을 받고 있다(일반대학 경우 30%만 해당됨). 따라서 졸업생들의 취업에도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본대학의 태권도부는 이승국 지도교수와 박천재 조교의 지도아래 “모두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모두”라는 구호아래 훌륭한 선배들이 쌓아 올린 자랑스러운 전통을 고수하며 더욱 빛나는 전통 수립을 위하여 47명의 부원 모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태권도부는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무서운 저력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또한, '86 아시안게임 태권도 종목에서 본대학의 학생이 5체급을 석권하여 우리나라가 종합 2위를 차지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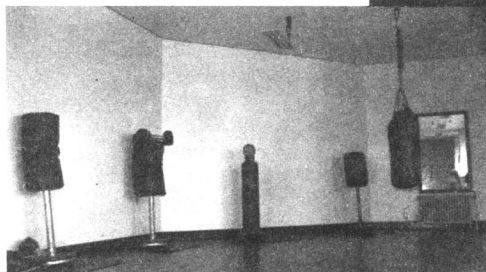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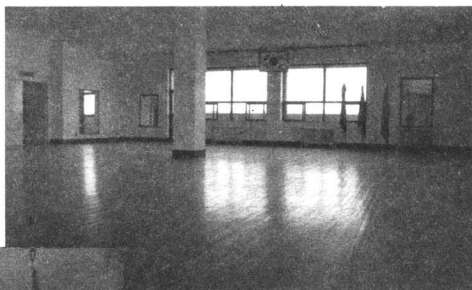
이러한 대 명제 아래 모든 선수들은 오후 전문 실기 수업이 시작되면 자신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강인한 정신으로 100평 남짓한 체육관을

뜨거운 열기로 달구어 놓곤 한다.

일단 운동이 끝나면 각자 안락한 기숙사와 학생회관, 도서관 등을 찾아 학문을 연구하며 독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성숙한 인간으로써 갖추어야할 인격도와 취미활동을 살리는 씨름활동 등으로 학교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이들의 장래나 한국체육의 앞날은 밝게 빛날 것이다.

“모두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모두”라는
구호아래 훌륭한 선배들이
쌓아 올린 자랑스러운



전통을 고수하며
더욱 빛나는
전통 수립을 위하여
47명의 부원 모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역대 한국체대 태권도부를 빛낸 국제대회 참가자

이름	구분	대 회 명	등 위	비 고	직 업
최 재 천	제 3 회	세계선수권대회 (미국 시카고)	라이트급 2 위		도미-사업
김 종 기	제 3 회	아시아선수권대회 (홍콩)	밴텀급 1 위	1978년 입학	경남체고지도
박 오 성	제 4 회	세계선수권대회 (서독)	라이트급 1 위	4 회 졸업	케냐 파견
양 기 모	제 4 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대만)	플라이급 1 위	4 회 졸업	인천체고교사
	제 1 회	월드게임 (미국 산타클라라)	플라이급 1 위		
박 천 재	제 5 회	세계선수권대회 (에콰도르)	웰터급 1 위	3 회 졸업	한국체대조교
정 국 현	제 5 회	세계선수권대회 (")	L.미들급 1 위	4 회 졸업	현재
	제 6 회	세계선수권대회 (코펜하겐)	L.미들급 1 위		대표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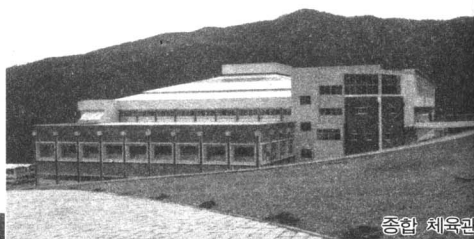
하 문 성 종 국	제 7 회 세계선수권대회 (한국)	웰터급 1 위		
	제 5 회 세계선수권대회 (에콰도)	L. 헤비급 우승	3 회 졸업	전북체고지도
	제 5 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싱가폴)	L. 헤비급 우승	4 학년	
	제 6 회 세계선수권대회 (코펜하겐)	L. 헤비급		
이 재 봉	제 2 회 월드게임 (런던)	웰터급 우승		성동상고교사 신림중학교교사 상무
	제 6 회 세계선수권대회 (코펜하겐)	페터급 우승	4 회 졸업	
	제 6 회 세계선수권대회 (코펜하겐)	웰터급 3 위	5 회 졸업	
	제 5 회 세계선수권대회 (에콰도)	핀급	4 회 졸업	
최 광 근	제 6 회 세계선수권대회 (코펜하겐)	플라이급 우승	3 학년	영화배우
	제 6 회 세계선수권대회 (코펜하겐)	헤비급 우승	2 회 졸업	
	제 6 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마닐라)	밴텀급 우승	3 학년	
	제 6 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마닐라)	라이트급 우승	3 학년	
김 기 호	제 6 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마닐라)	미들급 우승	3 학년	학사 장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재학
	제 1 회 국제대학선수권대회 (한국)	밴텀급 우승	5 회 졸업	
	제 1 회 국제대학선수권대회 (한국)	페더급 우승	5 회 졸업	
	제 7 회 세계선수권대회 (한국)	핀급 우승	1 학년	
고 정 호	제 7 회 세계선수권대회 (")	밴텀급 우승	1 학년	
	제 2 회 월드게임 (런던)	페터급 우승	3 학년	
	제 2 회 월드게임 (런던)	플라이급 우승	2 학년	



웅비하는 한국체대 태권도 부원들



대한 유도학교



종합 체육관



300여 평의 태권도 도장

경기도
용인으로
캠퍼스
이전



품세 실기교육

1953년 故 李濟旻선생님을 비롯한 몇몇 뜻 있는 체육인들의 노력의 결장으로 2年制 초급대학과정의 유도학교로 발족한 후 30여성상을 꾸준히 우수한 선수와 지도자를 양성하여 우리나라 유도를 세계만방에 보급하여 왔다.

1981년 現 李相燦학장이 취임하여 국내 최초로 태권도학과를 82년 신설하였으며, 85년도에는 사회체육학과와 무용학과도 신설 체육학 전반에 걸친 교과과정이 설치되어 문교부 학력인정 4년제 대학으로 발전하였다.

이상찬 학장이 취임한후 李源秀 財團理事長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학교이전계획을 수립 4년간 공사끝에 완공하여 85년 3월 現 용인캠퍼스로 옮겨 정규수업을 시작하였다.

13만여평의 대자연속에 자리한 유도학교는 본관(강의실) 1,062坪, 체육관 3,500坪, 기숙사 1,350坪을 신축하였고 태권도장도 292坪을 '레그롤 프라스틱'으로 바닥을 처리하고, 12m의 경기장 두곳을 설치한 훌륭한 시설을 갖추었다.

이규식 태권도학과장을 정점으로, 김광성, 정영주를 강사로 조교에 진중의, 강성철, 김의영, 윤상

화, 고영철, 박필순등이 504명의 학생지도를 위해 땀흘리고 있다.

특히 이상찬 학장은 태권도학과를 신설한 장본인으로 태권도학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제7회 세계태권도 대회시에도 세계각국의 사범을 초청 세계속에 유도대 태권도학과의 이미지를 심는등 관심을 보였으며, 금번 본기자자 유도대 방문시 때마침 제2회 태권제가 용인읍에서 개최되었는데 그자리에도 참석하여 격려하는등, 몸소 실천에 옮기고 있음은 보는이로하여금 마음든든 하였다.

86년도에 태권도학과와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유도학교 이제 명실상부한 체육대학으로 발전한 유대는 문교부에 가칭 花郎체육대학으로 인가 승인신청 중에 있다.

체육대학으로 시설을 완비하고 유도대 태권도학과 졸업보다는 花郎(?)체육대학 태권도학과 졸업을 다짐하는 이학장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태권도인의 한사람으로 바라며 500여명의 태권학사를 육성하는 전당을 나서는 기자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㉔



서울体育高等學校



교 장 / 손 중 목

는 본교는 그간의 여러 체육정책의 변화에 의하여 현재는 기본 정책종목인 14개 운동부 (태권도, 육상, 체조, 수영, 유도, 복싱, 빙상, 사격, 궁도, 축구, 역도, 사이클, 배드민턴, 레슬링) 를 조직운영 우수 선수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86, 88, 양 대회를 대비하여 국립 경기장내에 교사를 신축 훌륭한 교육 환경과 현대식 체육시설을 마련 이전 하였으며 그 시설이나 체육 지도자들의 자질로 볼 때 타 학교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손중목 교장선생님 이하 42명의 교사와 15명

한 국 체육 교육의 요람이자 전인적 체육 인 육성을 목표로 1974년, 1월 5일 인 가 설립되어 면면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



태권도 꿈나무들



감독/박창덕



전국체전에 6명이 입상

의 전문 코치를 둔 본교는 86, 88을 대비한 우수한 선수의 발굴 육성은 물론, 장차 우리의 체육계를 주도해 나갈 훌륭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입학에서부터 전 종목에 걸쳐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또한 3년간 국비 장학생으로 모든 학생들은 엄격한 기숙사 생활을 통한 규칙적 생활로 학업과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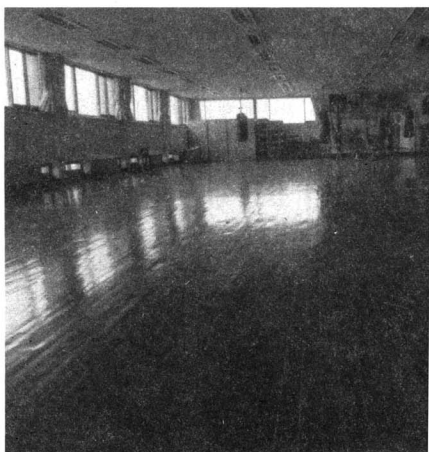
이들의 하루 일과는 4교시 까지 일반 학교와 다름없이 일반 수업을 받고 5교시부터 8교시까지 전문 체육과목으로 과학적인 이론 및 실기를 바탕으로 특히 기초체력 단련과 기본 기술 연마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본교의 시설 현황으로서는 교지 면적 2만평, 건물면적 5,263평에 교사 924명, 기숙사 2동(남·여) 1,688평, 식당 503평, 체육관 890평, 종합체육관 1,169평, 부대시설 86평, 운동장이 8,609평, 특히 단일 종목으로써는 태권도 체육관이 100평으로써 현대식 훌륭한 시설을 자랑하

고 있으며 기타 부대시설도 완벽하게 준비돼 사계절 운동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박창덕 감독은 말한다.

특히 본교 태권도부의 활약은 타 학교의 태권도부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85년에 만도, 제20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대회 우승을 비롯하여 제21회 대한 태권도 협회 장기 및 중·고연맹 개인 선수권 대회 우승, 제12회 한국 중·고등학교 태권도 연맹 회장기 쟁탈 대회 준우승 제4회 서울특별시 시장기 쟁탈 대회 및 개인 선수권 대회 우승 제5회 서울특별시 교육감기 쟁탈 대회 우승, 제66회 전국 체육 대회 금메달 6개 등 크고 작은 전국 규모의 각종 대회를 석권하였으며, 개인전에 출전하여서는 각 체급별 우승에 금메달 29개, 은메달 6개, 동메달 7개, 총42개를 획득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제패의 영광을 떨쳤다.

한국 스포츠의 요람인 본교의 체육 발전의 내일을 위하여 오늘도 짙은 땀을 흘려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수 선수 양성 및 지도자 육성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서울 한강국민학교

지도사범 / 이 종 근



튼튼하게 자라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착하게 행동하자」의 교훈아래 건강하게 자라는 꿈나무들이 모인 한강국민학교, 이 학교에 태권도가 뿌리를 내린 것은 1975년경이었으나 명맥만 유지하였고 이렇다하게 활성화가 되지 못하였다가, 81년 황병재 사범이 학부형(남세연씨)의 적극적인 협조로 학교 옥상에 태권도장을 증축(가건물)하여 활성화시켰다.

83년 황병재사범의 해외파견으로 현 이종근사범이 한국국민학교연맹에 추천을 받고 지도사범으로 태권도선수 육성에 박차를 가하였다.

1, 2, 3학년은 오후 2시~3시까지 4, 5, 6학년

은 오후 3시~4시, 선수단은 오후 4시~6시까지 130명의 어린이들이 수련을 하고 있다.

1982년 9월 1일 부임한 서운중(徐倫重)교장 선생님과 이해목(李慧黠) 교감선생님은 3년간 태권도부 어린이들을 지켜본 느낌을 어린이들의 심신단련은 물론, 자신감에 넘쳐있고, 예의가 바르며, 정신통일이 되는 운동이라서인지 성적이 거의가 상위권에 있는 모범생들이 되더라고 칭찬이 대단하시다.

아침 조회시간에도 자세가 바르고 당당한 어린이는 태권도부 어린이라고…… 말씀하시며, 전교 어린이가 학생회장도 태권도부 구기용군이었고 2학기 학생회장도 태권도부 강석봉군이며 각학



교감/이혜묵



감독/이재선



제11회 국교연맹회장기대회 우승의 주역들과 지도선생님들

년의 반장, 부반장, 부장등 거의가 태권도부 학생들이라고 학년, 이름까지 기억을 하고 계셨다.

또한 서교장선생님께서 태권도부는 학교, 학생, 학부모, 사범의 4위1체가 아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워낙 이종근사범이 열성이며 정신적인 면에서도 훌륭히 지도를 해서 엄려스러움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기자가 학교 방문시에 교장, 교감선생님을 비롯하여 이재선 체육주임, 조재우태권도담당선생님들을 만나보면서 한강국민학교 태권도부는 잘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83년도 서교장선생님 부임후 한, 두달간은 한강국교의 태권도부 해체위기에까지 봉착하였었다. 그 이유는 학교 인근에 위치한 체육도장의 비인도적 행위에 기인하였으나, 조재우(공인 4단) 선생의 적극적인 노력과 부형들의 열성으로 잘 극복하고 교장, 교감선생님들께서 태권도를 이해하고 적극 장려하여 활성화된지 2년만에 제11회 한국국민학교 연맹회장기대회에 우승하는 영광을 차지하였다.

또한 본교의 육성회장이자 태권도부 육성회장

인 김정애회장의 열의와 부형님들의 열성은 "자연스러운 일"로 기자는 반아드릴 수 있었다. 그 이유는 태권도부 어린이 거의가 반장이고 모범생으로 학교의 어린이들 중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니가.

85년을 맞아 승승장구하는 한강국민학교는 85년 7월 국민학교연맹이 주최한 체육부장관기 품세부문 3위. 겨루기부문 갑투상.

8월 제6회 서울시 협회장기대회 단체 3위.

10월 제11회 국민학교 연맹회장기 단체우승,

11월 제5회 서울시교육감기대회 단체 준우승등으로 학교의 명예는 물론 태권도부 학생들과 사기는 충천해 있다.

어느 국민학교를 방문해보아도 태권도부 어린이들은, 모범생이고 성적도 상위권에 있다.

그러나 중, 고등학교에서는 태권도부가 행동은 모범생들이나 성적은 그렇지 못함을 느낀다. 비단 태권도 선수들만의 문제는 아닌 전체 운동선수들이 갖는 한국적인 문제로 체육인들이 해결해야 할 큰 과제라 생각된다. (3)

특별활동 시간에 태권도를

4, 5, 6학년 2, 000여명



부

천시 북국민학교 교사 80여명에 4, 200명이 면학하는 국민학교이다.

본교는 예체능 종합 시범학교로 베드민트와 배구는 전국대회에 출전하고 있는 시범학교이다.

1940년에 교직생활을 시작하여 46년간을 교직에 몸담아온 박창범교장 선생님은 도교육위원회 장학사로 1964~74년까지 근무한것과 경기도 이천에서 교육장 3년을 제외한 나머지 30여년은 어린이들과 같이한 생활이다. 학교를 방문한 기자에게 박교장 선생님은 「본교에서 태권도 지도를 하는 황성무사범이 열성적으로 지도하여 주는 덕택이라며」 황사범을 우선하고, 학교 말씀을 시작하였다.

「태권도는 단체훈련으로 협동심, 단결력, 성취감, 의지력등을 배양하는데 매우 좋은 운동으로 본교에서는 4, 5, 6학년 남·여학생 구분없이 주1시간씩 특별활동시간을 이용 태권도지도를 하고 있다」 말씀하시며, 「교과과목에 있는 태권도 실

무교육을 선생님들께 연수시키는 2중 효과가 있다」고 흐뭇해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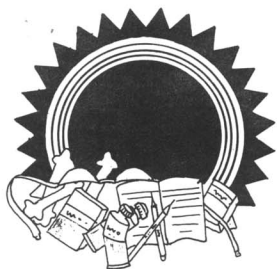
연세를 묻는 기자에게 「난 나이보다 젊게 본다」며 호탕하게 웃으시는 모습은 57~8세로 보면 즉할듯 하였으나 실제는 64세라고……

변군용교감선생님은 경기도협회장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출전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썩썩하게 거수경례를 하는 선수들에게 거수경례로 답하며 「열심히 그리고 정정당당히 겨루어 학교의 명예를 빛내달라」고 당부하며 일일히 격려하는 모습은 흐뭇한 정정이었다.

변교감 선생님은 「선수들 육성도 주요하지만 썩썩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바뀌는 태권도 어린이를 볼때 흐뭇하다」고 말씀하시며 선수들과 나란히 카메라앞에 선수들과 나란히 포즈를 취하였다.

1983년 부임하여서 3년간 근무하시면서 보아온 태권도를 칭찬하시는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 뜻에 부합되는 바른 태권도교육으로 계속 발전되기를 바라며 교문을 나섰다.

외제상품, 외제상표 불매로 外債危機 克服하자!



—홍보실—

정 부는 '88년까지 수입자유화 비율을 95% 이상 개방한다고 한다.

輸入開放엔 개발도상국인 우리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수입이 개방이 되었다고 해서 아무거나 마구 수입을 하면 국제수지는 도저히 개선될 수 없으며, 외채는 줄일수가 없다.

수입개방전에는 不要不急하다는 이유로 수입이 금지 내지는 억제 되어있던 품목들이 수입자유화의 바람을 타고 수입이 개방됨으로서 신규품목의 수입이 늘고있다.

1985년에 신규품목이 급증하고 있는데 불요불급한 몇가지 「예」를 보면,

최근 농촌의 소값 폭락으로 걱정이 되고 있는 즈음에 「쇠뺨」수입이 작년(9월말)엔 25만 2천 달러였는데, 올핸 3백47만 6천달러로 1천3백%에 육박하게 급증하였으며, 여성의류인 「브리 지어」도 작년 2천달러에서 1만8천달러로800%가 증가하였고,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카라멜」수입도 작년 1만5천달러가 3만6천달러로 140%증가하였다고 한다.

어디 이뿐이라, 간장, 새우젓, 국수, 오렌지쥬스, 초코렛, 크래커, 심지어는 학생들의 학용품까지 수

입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일용품으로 사용되는 거개의 물품들인 국산품도 국제수준에 와 있다. 소비성 물품들의 수입과 사용은 외채와 직결되어 있음을 우린 상기해야 하겠다.

정부에서 수입자유화를 서둘러 실시함은 강대국 세계시장의 압력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불요불급한 물품의 수입을 억제하리라는 것을 믿었기에 서둘렀을 것일게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저바리고 상술에 따른 이익에만 급급한 업자 양심에 자제를 촉구하며, 어떤 물건이든 수입할 수 있으나 수입을 아니하는 애국적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소비자인 국민 모두는 불요불급한 외제사용을 금하며, 또한 외제상표를 붙여 생산판매되는 각종 물품도 우리는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상표값에 지불되는 「로알티」도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을 것이다.

불요불급한 외제를 수입하는 상인과 외제상품을 붙여 생산, 판매하는 업체의 자제를 촉구하며

우리 태권도인만이라도 외제상품, 외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을 전개하여 외채난국을 타개하는데 앞장서야 하겠다.

추워?

김영삼



어이 추워



버스

추워서
환장 하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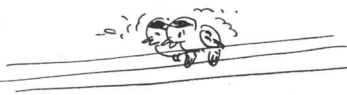
얼어 죽겠어요!



개애
개강



재미
재미



어이 더워!
후! 더워!



에그 더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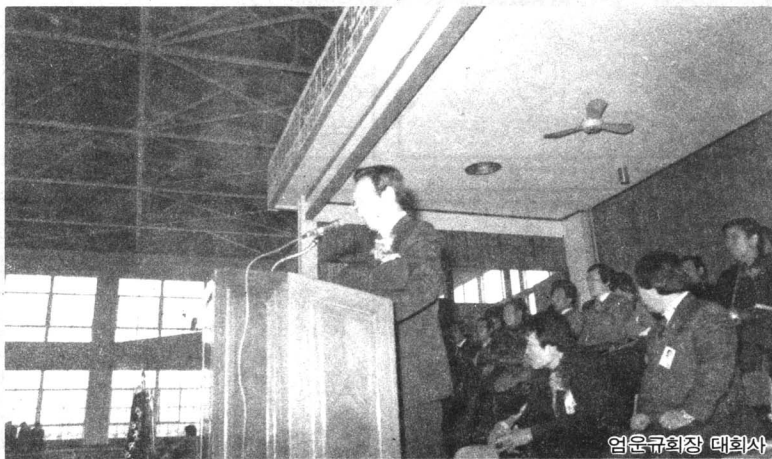




제 5 회

교육감기 초·중·고·단체 대항 개인선수권대회

—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 —



때 : 1985년 11월 21일 11시
곳 : 국 기 원

태권도의 요람인 서울 영동의 원두 국기원에서 제 5 회 서울특별시 교육감기 쟁탈 초·중·고·단체 대항 및 개인 선수권대회를 알리는 힘찬 황파르가 울려 퍼졌다.

대회장인 서울특별시 태권도 협회 엄운규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회에 참가한 선수 여러분은 발전하는 태권도의 주역으로서 그 동안 선배 태권도인들이 닦아온 국기 태권도의 위용을 더욱더 승화 발전 시킬수 있는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여 국내적으로 내실을 기하면서 이제 목전에 닦아선 '86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의 주역으로서의 해 내야할 일이 막중하다는 사명감을가



서울특별시 시범단과
최재무 지도사범



대표선수 선서를 하는 배종인(성동상고) 선



서울시 경기분과위원장 / 박용국

지고 국제 무대로의 나라를 힘차게 펼쳐나가 국위를 선양하는 위대한 태권도 선수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 하였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태권도 협회 어린이 시범단인 서울 신도림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태권도 연무 시범이 있었다. 이 시범단도 지난 여름 방학에 엄운규 회장님의 배려로 동남아 순방 시범을 다녀온후 더욱 실력이 발전하여 한동작의 묘기를 발휘할 때마다 관중과 참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로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

이번 대회는 각 학교마다 1개 팀씩만 출전한 탓인지 첫 계임에부터 선수들은 물론 코치나 심판들도 시종 설승을 치루는 자세로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 역력하였으며, 심판의 판정에는 불만이나 항의하는 물의가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태권도 관계자들이 항상 염려하는 심판원들의 질적 향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또한 코치들의 자질

도 많이 향상되었음을 느낄수 있었다.

금년 제 7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치룬 이후 태권도의 질적 발전이 많다고 느낄수 있도록 선수나 임원 모두의 자세가 확고한데 대해서 마음 흐뭇하며, 국제 무대로의 도약을 위해 점진적인 발전이 있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들간의 대회를 결산하는 11월 22일 오후 5시 폐회식에는 상장 수여식에 이어 그간 태권도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온 본회 위원장과 임원들에게 공로패 수여로 일하는 사람들의 공을 치하하면서 85년도 대회를 총 마무리 지었다.

대회 단체 전적은 다음과 같다.

부별	등위	1위	학 교 명	2위	학 교 명	3위	학 교 명
고 등 부	1위	서울체고	2위	성 동 교	3위	성동상고	
중 등 부	1위	경 수 중	2위	한 영 중	3위	배 명 중	
국민교부	1위	광희국교	2위	한상국교	3위	번목국교	

제 2 회 회장기쟁탈 초·중교대항 태권도대회

전남태권도협회



● 일시 / 1985. 10. 25
● 장소 / 광주실내체육관

박창웅 / 전무이사

본 회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우수선수 조기발굴 및 소년체전의 선수보강을 위하여 지난 84년부터 5월에는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대회와 11월에 회장기쟁탈 초·중교 태권도대회를 신설하여 우수선수 조기발굴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위 두대회에는 단체와 개인에게 칼라T.V, 냉장고, 카세트등을 단체시상하고 개인에게는 손목시계등 푸짐한 상품을 준비하여 출전의욕을 불러일으켰다.

본대회는 전국체전의 피로가 풀리기도 전에 실시하였으나 40개팀에서 350여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성공리에 마쳤음을 임원선수가 혼연일체가 되었음의 증명된것으로 대회 이면의 성과였다고

생각하며 지면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단체임상전적은 다음과 같다.

	등 위	학 교 명	비 고
국 교	1 위	여수서국민학교	칼라T.V. 1 대
	2 위	광주동산국민학교	냉장고 150ℓ 1대
	3 위	광주백운국민학교	냉장고 66ℓ 1대
	감투상	광주월산국민학교	카세트 1 대
부	장려상	영광국민학교	" "
중 등	1 위	전남체육중학교	칼라T.V 1 대
	2 위	광주북성중학교	냉장고 150ℓ 1대
	3 위	승주주암중학교	냉장고 66ℓ 1대
	감투상	목포청호중학교	카세트 1 대
부	장려상	담양수북중학교	" "



85년도 제2차 품세보수교육

— 전남태권도협회 —

전 남협회에서는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국기태권도의 기술 향상과 지도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1985년 11월 3일 광주 실내체육관에서 도내의 28개 시군 각도장에서 180명의 사범 및 교범들이 참가하여 품세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난 85년 3월 31일 제 1 차 품세교육시에는 응급처치법 교육을 실시하여 도장에서 우발적인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품세교육에 강사에는 김정록부회장 윤관석 총무이사, 김민철이사가 수고를 하였다.



제1회 종로 중구 친선 태권도 대회



안 해 옥
(국기원연구분과위원장)



참가 선수들



대회본부석

진 눈개비가 훑날리는 초겨울의 날씨인데도 동국대학교 실내 체육관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겨울을 녹이고 있었다.

1985년 11월 24일(일요일) 하루 동안 제1회 종로 중구 친선 태권도 대회가, 유치부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참가한 태권도 선수와 관중을 합쳐 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회장인 이 지역의 대변자 이종찬 국회의원은 종로 중구 전체 33개 태권도 도장에서 참가한 약 3,000명의 태권도 가족들에게 대회사를 통해 승부를 떠나, 지역의 친선을 도모하여 민족정기를

양양하는 계기로 삼자며, 태권도가 국위 선양과 심신단련에 얼마나 공헌하고 유익한지 실예를 들어 높이 평가하고 지원을 약속했으며 본인은 인사말씀을 통해 대회를 성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태권도가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져 내려오는 민족 전통사상의 형상이며, 자랑이니 태권도 정신으로 지역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대회장이 종로 중구 태권도 연합회로 대회기를 전달할 때는 체육관을 꽉메운 관중과 선수로 부터 열렬한 박수소리가 우뢰와 같았고, 내외 귀빈



대회를 하는 이종찬 대회장

이 참여함으로써 대회가 더욱 빛나게 된 것 같다.

대회의 승인을 가진 서울특별시 협회의 송봉섭 전무이사과 연합회장, 최돈오 집행 부위원장, 이종관 심판, 이영애 여사를 각 기능별 대표로 감사패와 공로패를 대회장으로부터 받았다.

김성호 선수의 선수 대표 선서에 이어서 남산국민학교 어린이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은 관중의 갈채를 받았고, 성암여자 상업고등학교의 브라스밴드는 대회의 분위기를 한층 고도시켜 주었다.

종로 중구 태권도 어머니 회에서는 가설매점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팔소매를 걷어 부치고 열심히 무료 봉사를 하신 것도 인상 깊다.

본 대회는 여러 가지 특기할 사항이 많았다.

첫째, 관중이 놀랄만큼 많이 모였고

둘째, 전국에서 모여서 토착의식이 없는 서울 사람들에게 근거리 의식을 심어주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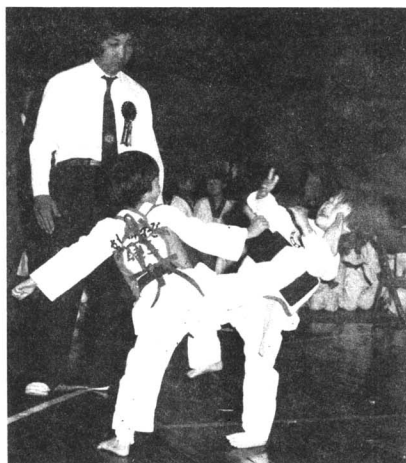
셋째,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한 사상 처음의 대회였으며,

다섯째, 웃음과 여유가 어울려진 화합의 한마당이였다.

정식 대회가 아닌 이 대회는 선수권 대회가 갖는 경직성과 관중들의 무관심을 타파함으로써 앞으로의 태권도 경기가 가야 할 미래상을 제시했다고 자부하고 싶다.

태권도는 국기이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태권도의 발전과 활성화는 태권도 행사가 지역과 나아가서는 나라와 인류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은, 선수와 관중이 개인과 사회가 자식과 어버이가 같이 호흡하고 행동하는 참여와 연계의 의식 속에서만 가능하며, 바꾸어 말하면 태권도의 본질인 행동철학이라야 발전을 가져 온다고 크게 느꼈다.

대회의 성공을 위해 협조해 주신 협회와 심판진들 및 종로 중구 태권도 지도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제 2회 대회는 여러분의 조언을 받아 더욱 더 멋지고 보람있도록 만들고자 한다.



유치부 어린이의 겨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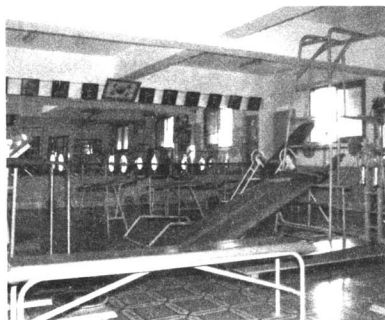
경기도 부천시



홍성무 / 관장



동광신 체육관



국민학교 6학년때 건강이 약하여 시작한 태권도가 이제 직업이 태권도사범이 되었다는 홍성무 관장, 부천 북 국민학교 체육진흥회장이신 이영언 (동원건설 (株) 대표이사) 사장과 부천시 태권도협회 임재선 회장, 조성혁 육성회 회장의 특별한 배려와 도움으로 '85년 초에 재산을 정리하여 이곳 원미동에 연건평 86평의 체육관을 개설 (태권도장 43평, 헬스크럽 35평 기타 부속실) 하여 체육관 운영 10여년에 자리가 잡혔다'고 말하는 홍관장은 태권도인 같지 않은 우람한 체격은, 보는이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낄만 하였다.

헬스크럽을 운영할만큼 육체미 운동에 일가견을 가졌기때문인가 보다.

처음 부천에 정착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몸이 하나인게 안타까울정도로 동분서주하였단다.

전 33사단 현병대, 사단직할 포병단, 새벽 태권도지도, 부천북국민학교, 부천남중학교, 등을 혼자 뛰었으니 말이다.

보람있었던 일은 「새벽마다 나가서 태권도를 가르쳤던 포병단 450여명을 군주력 10대에 분승

하여 승단심사를 보러갔을 때"라고 회고한다.

현재는 유치부원 50명 국민학교부원 150명, 중등부 30명, 고등부 및 일반 20명이 매일 수련을 하는 체육관으로 성장하였고 주 하루를 부천 북국민학교의 특활시간에 할애하고 하루는 남중학교에 나가 태권도지도를 하고 특별히 태권도를 하겠다는 학생은 도장에 나와서 수련을 하고 있다.

부천시에서 주최하는 국민학생부 겨루기 대회는 5연패로 부천시에서는 가히 무적이며, 경기도 대회에는 태권도의 명문교인 성남 제2국민학교에게 늘 눌러서 우승을 못했더니, 이젠 체육관도 안정권에 섰으니 「한판 겨루어 볼 계획이 서 있다」고 주먹을 힘있게 친다.

홍관장은 국군태권도 팀인 상무선수들을 년 5-6회 체육관에 초청, 겨루기 시범외에도 연무시범등으로 태권도의 진수를 어린이들에게 보여줌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운동에는 건강한 체력을 갖추고 자신감있는 어린이 학교에서는 모범생을 목표로 태권도정신인 예의범절을 제일로 교육을 시키는」홍관장은 부천시태권도지회 총무이사 부천청년회의소 제

육이사 원미2동 정화위원회위원, 등으로 사회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는 홍관장 관원배출 현황을 묻자, 입관원서를 내놓고 4단 : 5명, 3단 : 15명, 2단 : 45명, 초단 : 185명으로 890명의 유단자 배출하였고, 3품 : 35명, 2품 : 150명, 1품 : 647명, 으로 832명의 유품자를 배출 총 유단(품)자 배출 1,722명 이라고 소상히 말하는 홍관장은 체육관원 관리와 행정에도 빈틈이 없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홍관장은 부천북국민학교에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엔 특별회원을 모집하여 학교에서 한달간 무료로 지도를 하여 태권도어린이가 저변확대는 물론 체육관과 학교를 연계시키는 촉매역할도 되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음을 감지(?)하였다.

“열심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지도하는 사범님들의 체육관은 불황을 모름을” 기자는 취재경험으로 느끼고 보았다.

「열심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매우 좋은 말이다. 체육관 사범님들! 열심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교육생 모두를 가족처럼 관심을 갖고 지도할때 우리태권도는 발전을 계속하리라 생각하며, 동행한 국민학교연맹 송부회장과 흐뭇한 대답을 하며 체육관을 나섰다. ㉔



권하고 싶은 책

작은 나라는 잘사는

이 책은 우리도 잘 살수 있다는 확신 위에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 면적이 작은 나라들 중에서 잘 살고 있는 나라 다섯을 골라서 쓴 책이다.

작은 나라들이 잘 사는 비결을 국민정신사적 시각에서 찾아 보려고 노력하였다. 역사, 문화, 제도등에서 돋보이는 면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1. 알프스의 꿈(스위스)에 대해 김정환(고려대 사범대학장)

2.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은 나라(덴마크)에 대해 표재명(고려대 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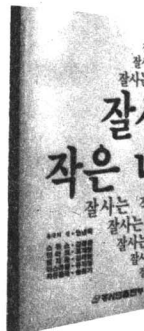
3. 서유럽의 교차로(벨지움)에 대해 김세원(서울대·경제학)

4. 젓과 풀이 흐르는 땅(이스라엘)에 대해 류태영(건국대, 농촌사회학)

5. 삼민주의에 나라(대만)에 대해 송창기(국민대, 중문학)교수가 썼다.

이 다섯나라 모두가 국민교육에 성공한 나라들이다.

註: 태권도 일선도장 지도자들께서 읽으시고 아동지도에 지료를 삼음만하다고 사료되어 이단의 권장도서로 감히 추천합니다. <홍보실>



열성 태권도 가족

— 전남태권도협회 —



제 66 회 전국 체육 대회

전라남도 선수

강릉시자매결연기관단체

스텐드 응원석에 3대의 가족이 모였다.

각 시.도협회 임원중 가히 극성(?)스럽다는 표현을 써도 부족함이 있는 임원들, 그중에서도 극열성파의 가족이 있다. 그가족은 윤연홍씨 가족이다.

금번 제66회 전국체전에 윤연홍씨 내외분, 아들 5 형제, 며느리, 손자, 손녀등 3대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남협회하고도 윤용열, 윤판석, 윤용석, 윤용철, 윤오남의 이름은 그 명성이 태권도 경기사에 찬란(?) 하다.

부친 윤연홍씨는 일정시대에 유도를 하였고- 아들들이 모두가 내성적이라 활달한 기개로 곳곳하게 사회생활을 하라고 운동을 시켰고, 또 운동만 잘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쓸모가 운동 1군데 밖에 필요있는 사람임으로, 지도자가 되려면 문무를 겸하여야 된다고 강조하며 자녀를 육성, 큰 아들 윤용열은 현재 조선대학교 전기과 교수로 근무하며 태권도 공인 7단.

둘째 아들 윤판석씨는 송원전문대 학생과에



양친을 모시고
형제가 한자리에



학다리고교 출신의
메달리스트
중앙 권갑수사범

근무하며 전남협회 총무이사로 협회발전에 기여하는 태권도 공인 7 단.

세째 아들, 윤웅석씨는 국민학교 교사직을 사임하고 체육관과 유치원을 경영하며 후진육성에 진력하고 있으며 현 태권도 공인 6 단.

네째 아들 윤웅철씨는 학다리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중이며, 태권도지도에 심혈을 쏟고 있으며, 금번 체육대회에는 일반부 밴텀급에서 우승을 하는 저력을 과시하였고,

다섯째 아들, 윤오남씨는 조선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조선대 태권도교사로 재직중이며, 금번 대회에 출전 한재구선수에게 석패하였다.

전남 광주시 학다리고등학교의 권갑수사범과 그 제자들, 열성이 지나쳐 땀강처럼 되지 않는다면 정말 아름다운 태권도의 금자탑이 되리라...

5 형제를 모두 문무를 갖춘 자랑스러운 지도자로 키우신 윤연홍어르신께 감사를 드리며, 만수를 누리시기를 기원해 본다.



서부 체육관

조상욱 사범 / 서울마포구망원동404-25호

한 국관광공사에서는 일본 아사히(Asahi) T.V 에 방영할 프로로, 86, 88 양대 대회를 앞두고 일본에 한국을 소개하기 위하여 대한 녹화를 하였다.

전통 스포츠로서는 태권도, 씨름, 양궁이 대상이었다.

태권도는 본 체육관이 대상이 되어서 10월23일 오후 6시~9시까지 3시간 녹화를 하였다. 본인은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먼 나라로 늘 가슴에 양궁이 있어 더욱 더 신중하게 시범을 보였다.

기본동작, 발차기, 품세, 격파, 단도대련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특히, 태권도는 신체단련외에도 정신수양을 강조하는 도의 운동을 강조하는 예의범절에도 신중을 기하였다.

이번 행사는 적게는 관원들의 실력향상을 도모하고 크게는 국위선양을 하였다는 긍지를 갖는 좋은 계기였다.



— 대구태권도협회 —



때 : 1985. 10. 20

곳 : 대구 실내체육관

대 구 태권도 도장 운영협의회에서는 지난 7월 태권도장의 자립을 위한 보호 육성과 지도자 기강확립 및 수준향상과 태권도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출범한 협의회는 1차 사업으로 종합경진대회를 거행하였다.

대구시내 72개 도장에서 선수 450명과 후보선수 700명이 참가한 경연대회는 대구 태권도사상 가장 많은 인원의 선수가 출전하였으며, 경연 종목도 태권도학과시험, 글짓기(태권도에 대하여) 태권도시범등으로 대구 태권도계에 새바람을 일으킬 만한 대회였다.

태권도를 통하여 체력향상과 함께 학과, 글짓기등, 수련생들에게 정서함양을 위한 방향으로 꿈나무들의 실력 겨루기는 지금까지 겨루기(경기) 위주로 시행한 대회를 탈피했음은 태권도 도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새롭게하는데 큰 몫을 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상의 이름도 태극상, 고려상, 금강상, 태백상등으로 새롭게 만들고 종합시험, 글짓기, 학과시험등으로 나누어 시상함으로 5학년 이상만 참가하는 겨루기대회에서 국민학교생은 누구나 참가하는 대회로 진전되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1986년도 대통령하사기대회

제주도에서 개최



회 장 / 정류사



총무이사 / 강중식



개 회 식

제주도 협회에서는 1985년 11월 23일 제 1회 회장배 쟁탈전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였다.

늦가을의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차가운 날씨에도 3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개회식에서 정류사 대회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제주도의 태권도가 충분히 내실을 기하고, 내일을 향해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여야 겠다고 강조하고, '86년 제21회 대통령 하사기쟁탈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 대회를 본 도에 유치하여 선수들의 기량을 전국의 상위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계기로 삼고, 각종 전국 대회에 상위 입상하여 제주도 체육계에서 태권도는 앞장을 서야 할 막중한 책임이 나와 여러 분에게 있다고 주창하며, 힘모아 앞으로 전진하자고 당부하였다.

개회식에서는 태권도 육성 발전에 공헌을 한 문 무용, 고 학봉, 김 두은, 김 영하, 김 순경관 장에게 공로패를 수여, 치하하였다. 대회의 횃수가 적은 제주도에서의 본 대회는 값진대회로 많은 선수가 참여하여 실력을 겨룬은 태권도 발전에 충분한 촉매제가 되었다.

○단체 성적의 우승은—

초등부—서귀포 법환국민학교

중등부—서귀 중학교

고등부—오현 고등학교

일반부—서귀. 중앙체육관이 차지 하였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전한 선수, 도교육위원회, 도체육회, 각 팀의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로 대회를 성황리에 치루게 되었음을 지면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강중식 총무이사는 재차 인사말을 부탁했다. (한)

도장경영에 관한 소고(小考)

일선 도장의 품질관리

사·범 / 李 鳳

I. 序 (도장경영은 교육, 건강 써어비스 제공활동)

본지(本誌) 제53호에서 채택해주신 줄고 “도장 경영에 관한 소고 II”에서는 경영의 주체로서 도장에서 손익 분기점(B. E. P.=Break Even Point)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간략히 기술한 바 있다.

이번 호에는 일반 기업에서 경영 분야를 나눌 때, 생산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도장 경영에 연관지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

경영 주체로서의 도장에서 생산되는 재화는 「태권도 정신과 기술의 교육」이라는 일종의 「써어비스」이다.

바로 이 「써어비스」를 통해 수련생을 「보다 나은 인간」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도장의 궁극적인 경영 목표이기도 하며, 또 그와 같은 「써어비스」 과정의 반대 급부로 금전적 댓가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간단히 설명한다면 그림 (1) 과 같다.

그림(1): 도장 경영의 순환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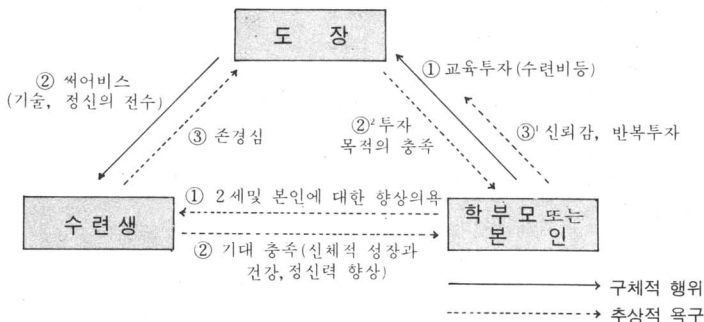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장 경영에 있어 재화의 순환은 극히 간단한 단계로 이루어 지나, 여기서 우리 일선 사범들이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바로 「③」으로 표시된, 수련생으로 부터 받게 되는 “존경심”과 학부모(비용 부담자)로부터 거두게 되는 “신뢰감” 두가지이다. 이 두가지는 사범 개인이 지니고 있는 「퍼스널리티」(개성적 매력)와도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지만 필자는 궁극적으로는 비용 투자 이상이라고 평가받는 교육 효과를 거두어야만 발생 된다고 믿는다.

즉, 도장이 제공하는 교육이 질에 비례해서 경영의 성과 역시 증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다기화(多岐化) 되어 가는 각종 교육시설의 급증에 따라 사회 교육기관 간에, 보다 많은 인원 수용이라는 양적(量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우리 태권도 도장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볼 수 있다.

필자의 좁은 식견으로 착안한 점은 도장 경영자로서의 사범이 추구해야 할 기본 사상은 다음 몇가지에 착근(着根)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첫째, 도장에서 교육 대상자(수련생)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성인인 경우는 수련생 본인)의 투자 의욕을 유발해야 한다.

둘째, 학부모의 투자 의욕은 도장에서 제공하는 「씨어비스」의 질에 비례하며 이는 곧 교육효과에 비례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투자 기간(수련기간=도장의 재적 기간)과 투자의 질량(質量)은 도장에서 창출하는 「씨어비스」의 품질 향상에 좌우된다고 설명 할 수 있겠다.

셋째, 도장에서 창출되는 교육 「씨어비스」의 품질 제고는 교육 효과와 직결되며, 「교육 효과=교육 방법×사범의 지도 능력(수준)÷교육환경」의 공식을 가설로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나열한 세 가지 사항을 인식한다면 도

장 경영의 성공은 교육 기관 또는 사회 체육 시설로서 도장에 대한 지역 주민의 교육투자 또는 건강에 대한 투자가 확대 되도록 「씨어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나에 달렸음을 이해할 수 있다

II. 도장의 품질 관리에 대하여

1. 품질 관리란 무엇인가?

본래 품질관리(Quality Control)란 기업에서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나아가 품질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영관리 기법(技法)”을 말한다. 이것은 기업의 합리화, 과학화를 추구함에 따라 발전한 것으로 1920년대에 미국의 「W. A. Shewhart」에 의해 시작 되었다.

요즘은 「고객의 요구에 맞는 품질의 제품이나 씨어비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뜻한다. 도장 경영에 이런 품질 관리의 개념을 응용한다면 우리 일선 도장을 보다 잘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즉, 도장의 고객인 수련생과 학부모(성인)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사범(경영자)이 제공할 수 있는 씨어비스를 개선하고 또 새로운 효용(쓸모)을 창출해낸다면 바로 이것이 도장이 사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서 변신(変身) 하고, 타 사회 교육 기관에 비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무엇을 어떻게, 품질관리를 할 것인가?

가. 무엇을 개선할 것인가?

앞서 설명한 가설 즉, “도장의 품질관리 대상은 교육 「씨어비스」의 질”이라는 점과 이 「씨어비스」의 질은 교육 효과에 직결」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여기에서 파생된 공식을 생각해 본다.

$$\text{교육효과} = \frac{\text{교육방법} \times \text{사범의 지도능력}}{\text{교육환경}}$$

이 공식을 우선 그림 (2)에 맞추어 각개 일선 도장에 적용해 본다면 품질 지수가 점수로 평가 될 수 있겠다.

그림 (2). 도장 품질 지수 계산(가설)

A. 3개 품질 요인별 가중치

가중치	교 육 방 법 ㉠	지 도 자 능 력 ㉡	도 장 환 경 ㉢
120	연·월·주간교육계획에 의해 체계적교육실행	사범자격+경기지도자자격+기타전문교육이수, 경력5년이상	소규모집중소 신고 등
100	계절별이나 연간 교육계획하에 실행	사범자격+경기지도자 자격, 사범경력 3년이상	시·도 협회등록
80	계획없이 지도자 재량에 의한다.	사범자격, 사범 경력 3년미만	교육청체육도장시설기준이상

B. 가 감 치

가감치	지 도 자 노 력 도 ㉣	비 고
+30	월 평균, 교육, 체육 관련서적 3권이상 독서 또는 정기적으로 외부교육참가	감 점 요 인
+10	월 평균, 교육, 체육관련 서적 2권이하 독서 또는 부정기적으로 외부 교육참가	감 점 요 인
-10	가끔씩 독서	감 점 요 인
-30	본인 능력개발 기회가 없다.	감 점 요 인

K도장은 지도자 교육과 「코치·아카데미」를 수료하고 경력이 4년인 사범이 지도한다.
이 도장은 시(市) 협회에 등록했으며, 연간 교육 계획을 세워 지도하고 있으나
사범은 가끔씩 손에 닿는대로 책을 읽을 정도이며 본격적인 자기 계발 의욕은 없다.

C. 계 산 방 법

㉠ 교육방법 가중치×{㉡ 지도자 능력+㉣ 지도자 노력도}

㉢ 도장 환경 가중치

이 경우 K도장의 품질 지수는 다음 계산에 의해,

$$\text{교육방법 } 100(\text{연간계획}) \times \{\text{지도자능력 } 100(\text{경기지도자로 경력 4년}) - 10(\text{지도자노력도 감점})\} \\ \text{도장환경 } 100(\text{시 협회등록})$$

90으로 산출되며 이것은 평균치로 상정한 100에 미달 되는 것이다. 이 K도장의 경영, 품질 지수 향상을 위해서 교육 방법과 지도자 노력도를 개선한다면 단시일 내에 100이상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개선 대상 사항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경영자(사범) 스스로가 냉정히 도장의 품질 수준을 평가해 보아야만 한다고 믿는다.

또한 경영 상태가 우수한 다른 도장의 품질지수를 평가해서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개선해야 할 부문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아낼 수도 있겠다.

물론 전술한 품질지수 이 외에도 지역 여건에 좌우되는 것이 도장 경영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지역 여건은 논외로 하고 도장의「써비스」수준을 품질 관리의 대상으로 국한시켜 생각키로 한다.

그러면 품질지수의 평가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개선 필요 부문을 어떻게 고쳐 나아갈 것인가?

나. 어떻게 개선(관리) 할 것인가?

앞에서 기술한 3개 요인과 지도자 노력도 중에서는 우선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부문은 「교육 방법」과 「지도자 노력도」라고 생각된다.

우선, 교육 방법의 개선은 다음 몇가지를 고려해야 하겠다.

첫째, 교육 계획의 수립은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연령, 성별, 학력, 직업, 생활 수준이 서로 다르게 혼합된 수련생이지만, 교육 목표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 즉, 태권도의 입단(품)이라는 구체적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 연령층에게는 세분(細分)된 기술의 전수보다는 체력 강화와 발육 촉진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고학력자일 수록 기술 훈련 보다는 정신력 강화에 역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교육 대상자 별로 지도

중점(重點)의 차별이 필요하고 대상자 군(群)별로 입단(품)시의 상태를 미리 설정해 놓아서 그 수준까지의 최종 도달 과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가 바로 교육 계획에 반영 되어야 만 한다.

심지어는 정신 혼화까지도 세밀한 계획하에 실행되도록 짜놓는 것이 꼭 필요하다.

둘째, “도장에 왜 나오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수련 동기의 이해)

이것은 교육 대상자 마다 서로 다른 동기를 지닌채 도장에 입문한 후에 서로 같은 교육과정하에서 단련케 된다는 모순을 지도자가 이해 해야 만 비로서 수련생들의 서로 다른 욕구를 적절히 해소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유치부는 수련생의 호기심과 학부모의 투자 의욕이 상승 작용을 할 것이며, 소년부(국민학생)의 경우 역시 유사하지만 유치부 보다는 수련생 본인의 의욕이 강하게 작용되기 때문이다.

또 소년부의 경우는 도장이 학교에서의 학습동기를 강화해 주는 보완적 역할을 학부모가 더욱 강하게 희망할 것이다. 그리고 유치부의 경우는 국민학교 입학 한 후의 적응력을 부여해 주겠다는 것이 바로 학부모의 투자 동기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도장에 입문하는 동기를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비로써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계획의 수립이 가능케 될 것이다.

이런 두가지 면에서 지금까지의 교육 계획을 투사시켜 보면 각 도장의 교육 방법상 개선부분이 조금은 엿보이게 되리라 본다.

다음은 「지도자의 노력도를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두가지 점에서 제언하고 싶다.

첫째는 사범 교육의 전문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일선 사범의 입장이 스스로 공부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하에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집합식 교육이 단 시간에 큰 효과를 볼 수도 있겠으나 여러 가지 제약을 고려하여 통신 교육 교재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평생교육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일선 사범용 지도 지침서의 발간을 통

해 전반적인 사범 자질향상을 기하고 이를 통해 도장의 품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사범 개개인의 자기 계발 의욕이 선행조건임은 확실히 중요한 일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기회라 해도, 우리 일선 사범들이 급변하는 사회 구조나 의식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려는 의욕이 상실되어 있다면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Ⅲ. 정 리(整理)

본고(本稿)에서도 지난번 손익 분기점 관리에 대한 기술과 마찬가지로 일선 사범들께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밝힌 것만 같아 송구스럽기만한 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미 첨단 의식도 아닌 고객지향(顧客指向)적 사고방식이 일선 도장 경영에서 가장 중시(重視) 되어야만 급변하는 환경변화에서 경쟁력을 유지, 강화할 수 있으리라는 맹신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길은 연구도 없이 도장 품질 평가 지수라는 가설을 세워 보았다.

이물든 소득 수준의 향상과 여가 시간의 급증, 「레크리에이션」 기회의 증가와 사회 교육기관의 난립, 학부모의 도장에 대한 욕구 수준이 다양해지고 높아진다는 주변 상황을 볼 때, 이제는 우리 일선 도장도 적극적인 교육의 질적개선을 통해 최고의 사회 교육(체육) 기관으로 당당히 대우 받으며 성장해야 할 때라고 믿는다.

따라서 추상적이고 구태의연한 교육목표나 교육 계획 및 방법을 전통이라는 미명아래 고집하기 보다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 개선 방법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완결 탈태의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도장의 교육 수준과 그 효과의 개선을 위한 품질 관리는 바로 필자를 포함한 사범 모두의 자기 계발 의욕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선배·동료 사범들께서 가차 없는 질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스포츠 상해를 극복하자 (Ⅱ. 치료편)



김영선 / 국기원 연구분과위원

차 례

I. 머릿말

II. 인체와 상해

1. 운동 선수와 상해
2. 인체를 알자
3. 상해의 종류와 내용

2. 머리의 타박상
3. 얼굴을 맞았을 경우
4. 가슴에 타박상을 입었을 때
5. 복부의 타박상
6. 등·허리에 타박상을 입었을 경우
7. 고환(낭심)의 타박상

III. 스포츠상해의 응급처치

1. 응급처치란?

■ 다음호에 계속 됩니다.

■ 감수

태능 외과병원 박병일 원장님
연세대학교 고흥환, 김종훈 교수님

I. 머릿말

지난 호의 예방편에 이어서 인체와 상해치료, 재활에 대해 알아 본다.
이 글은 최근에 비약적인 진보를 이룬 국내외 스포츠 의학서를 참고하여
태권도 현장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 정리 되었다.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상해에 대한 폭 넓고 깊이 있는 의학적인
사항을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서 선불리 판단하여 치료하는 것에 주의를
요하며,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평소 인체와 기초 의학에
많은 관심을 두었으면 하는 것이다.

Ⅱ. 인체와 상해

1. 운동 선수와 상해

운동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왜 수많은 젊은이들이 위험 부담이 큰 각종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가?

확실히 운동 경기는 모험을 수반한다. 그렇다면 선수들이 운동이나 경기 참가를 포기하는 것이 위험을 피하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의 답은 스스로의 체육과 운동 경기에 대한 가치관에 달려있을 것이다. 결국 운동 선수로서는 자신이 선택한, 스스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에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상해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결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수는 합리적인 트레이닝과 준비운동, 충분한 영양과 휴식, 건전한 일상 생활 영위와 장기적인 건강진단 등으로 건강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고 경기에 임해서는 경기 규칙 준수 등으로 쌍방이 상해발생을 억제 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외에도 경기 참가 횟수는 상해발생과 비례하므로 폭 넓은 선수 생활과 우승고지 탈환을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조절 되어야 할 것이다.

간혹 선수는 물론 지도자가 경기도중 발생하는 골절과 관절 등의 눈에 띄는 큰 손상들만을 문제삼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큰 부상들은 사소한 상해에 의해 야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미한 외상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의 내적인 장해를 경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간 태권도를 포함한 국내 스포츠계에도 상해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증대되어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 중, 남자 태권도 선수와 농구 선수들의 상해에 대한 치료 실태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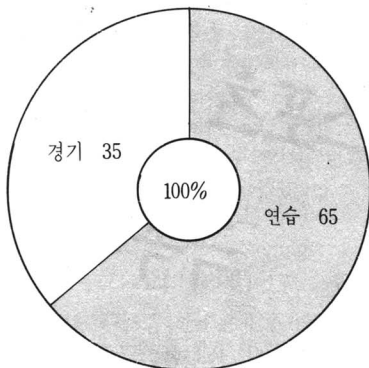


그림 - 1 외상 당시 상황 (태권도) 장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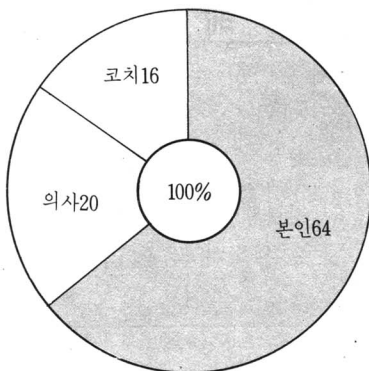


그림 - 2 외상 당시 진단여부 (태권도) 장9)

표 - 1 외상에 대한 치료 방법

내용 \ 종목	태권도 ④ %	농 구 ⑤ %
병 원 치 료	5. 6	37. 4
한 의 · 침구치료	20. 1	24. 4
자 가 치 료	59. 1	34. 4
안마 · 지압치료	15. 2	3. 8
계	100	100

2. 인체를 알아

올바른 상해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신체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바른 의학 지식을 갖는 일은 선수의 건강관리, 외상에 관

한 응급처치 등을 위해 의미있는 일임은 물론이거니와, 의사의 적절한 조언을 받아 선수의 외상, 장애에 대처하고, 치료과정과 회복에 있어서의 트레이닝 진행방법을 올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도 더욱 필요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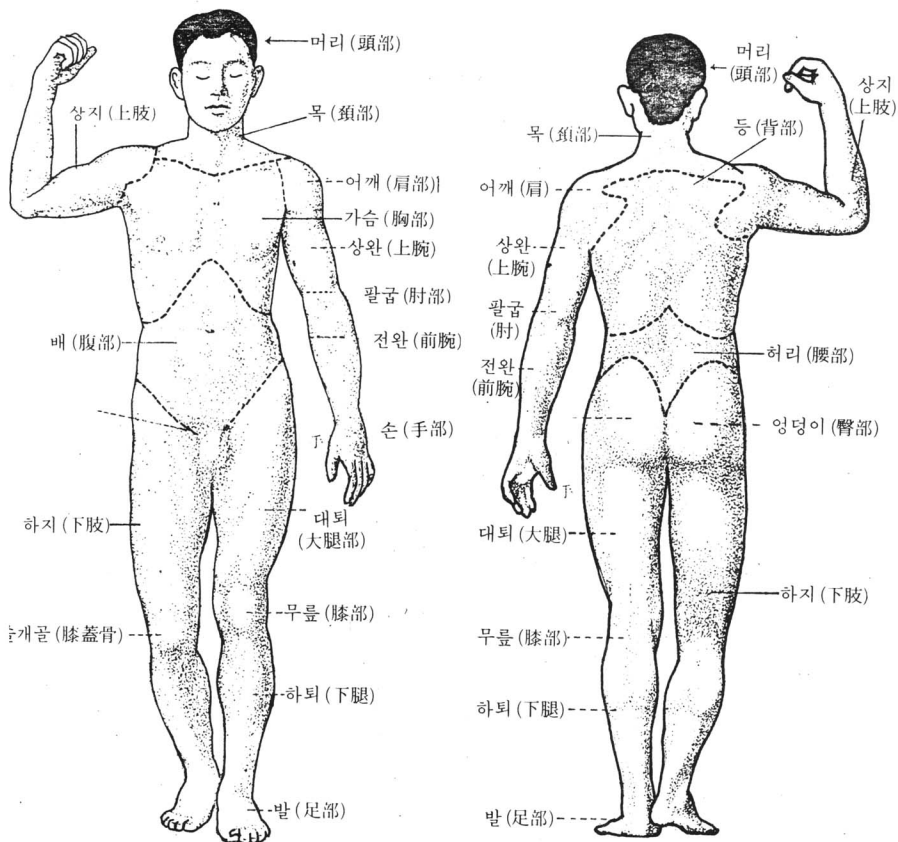


그림-3 신체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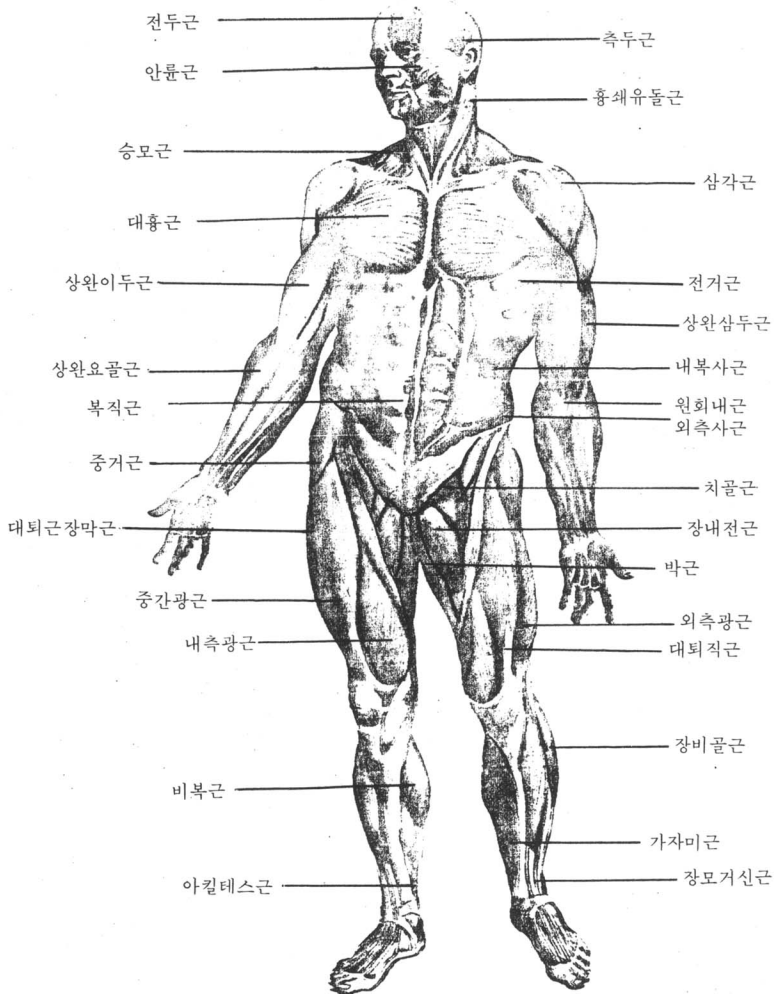


그림 - 4 인체의 근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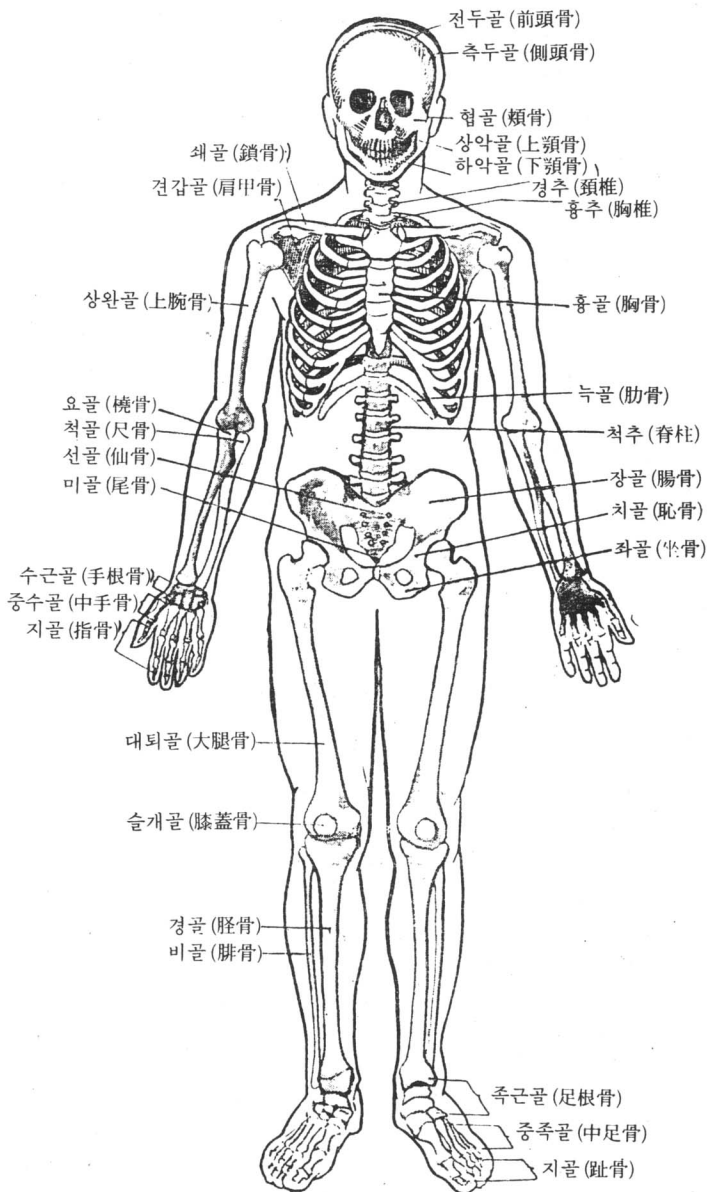


그림 - 5 인체의 골격

3. 상해의 종류와 내용

스포츠상해는 발생원인, 발생부위, 상해 결과에 따라 구분이 각각 달라진다. 대체로 스포츠상해를 상대방과 부딪치거나, 넘어짐 등으로 인하여 신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외력이 작용하여 일어나는 외인성과(외적인 요인, 스포츠 외상) 나날이 연습 중 발생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내인성(내적인 요인, 스포츠 장해 또는 장애) 둘로 대별할 수 있다.

신체부분으로 차고, 막고, 지르는 태권도 겨루기에서는 타격에 의한 상해가 흔히 나타나며 내인성 장해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 스포츠 외상의 종류

① 찰과상(擦過傷, abrasion) — 물체와 스치거나 부딪힘에 의해 피부만 손상된 상태.

② 염좌(捻挫, sprain) — 관절에 관여하는 근육, 건(腱), 인대(忍帶)가 생리학적 운동 범위를 넘어 과잉 신전 되어 동통(疼痛)과 부종(浮腫: 붓는 것) 및 종창(腫脹)만 있을 뿐, 골절이 없는 가벼운 손상, 흔히 빠는 것이라고도 한다.

③ 좌상(挫傷, bruise) — 둔한 물체에 부딪혔을 때 피부는 터지지 않고 피하조직만 상하여서, 피부내 출혈을 일으켜 붓고 아프며, 피부가 청자색으로 변하는 것 흔히 멍든 것 또는 타박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④ 탈구(脫臼, dislocation) — 관절을 형성하는 뼈가 강한 외력에 의하여 관절막이 파열 되면서 관절낭 밖으로 튀어 나오는 상태.

⑤ 골절(骨折, fracture) — 골절이란 뼈가 부러진 것으로서 비교적 경미한 단순골절, 그 부근

의 신경, 혈관, 연조직에 큰 손상이 온 것을 복잡골절이라하며, 뼈가 완전히 부러진 여부에 따라 완전골절, 불완전골절로, 부러진 뼈가 피부의 외부를 손상시킨 여부에 따라 개방성골절, 비개방성골절로 나눈다.

⑥ 근, 건단열(筋, 腱斷裂) — 신체 부위에 견딜 수 있는 이상의 압력이 작용하여 근육과 힘줄이 끊어진 상태, 근육이 굳어 유연성이 결핍되면, 근·건단열을 일으키기 쉽다.

* 타박상(打撲傷): 여기서는 타박상이란 명칭을 폭 넓은 의미에서 사용하였으며, 가벼운 타박상은 좌상으로 구분하였다. 타박에 의해 신체를 구성하는 피부조직, 뼈, 근육, 힘줄(腱), 신경, 기관들에 발생하는 염좌, 좌상, 탈구, 골절, 쇼크, 내장손상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신체부위나 타박 정도에 따라 다른 종류의 상해를 얻는다.

Ⅲ. 스포츠 상해의 응급처치

예방에 만전을 기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해가 따른다. 어쨌든 상해가 발생하게 되면 지도자나 선수 자신이 곧바로 적절한 판단과 처치를 하여 그 손실을 최대한 줄이지 않으면 안된다. 상해 중에는 의사에게 진찰을 받지 않아도 간단히 치료되기도 하는 찰과상이나 염좌 등에서부터 탈구, 골절 최악의 경우에는 경기 생활을 단념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도 있다.

여기에서는 타박상을 중점으로 알아보았다.

1. 응급처치란? (應急處置, First aid)

스포츠 상해에 있어서의 응급처치란 스포츠활동 중 응급사태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경기나 연습 현장에서부터 전문의에게 넘겨질 때까지의 적

절하고도 현명한 최선의 대책인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언제나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의 이론과 실재를 평소부터 습득해 두어야 한다. 아울러 상식의 한계를 넘어서거나 부정확한 판단처치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 시키기도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 응급처치의 원칙

① 안전—증상에 따른 체위조절과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환자를 움직이지 해선 안된다.

② 호흡관리—머리를 한쪽으로 돌려 눕게 한 다음, 입에 손을 넣어 혀가 호흡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무호흡시는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③ 순환 및 체온유지—환자의 두꺼운 옷은 헐렁하게 해 주고, 조건이 허락하면 환자에게 담요 등을 덮어 주어야 한다.

* 응급처치시 주의사항

① 시술자는 두려워 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적당한 방법을 쓰도록 하며 중상의 경우에는 의사에게 연락하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② 가능한 한 환자를 움직이지 하지말 것. 특히 골절인 경우에는 그 부위를 고정시킬 때까지 움직여서는 안된다. 상처의 정도를 조사 하려면 옷을 벗길 필요가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재봉선을 따라 옷을 자르는 것이 좋다.

③ 의식불명인 환자에게 먹을 것을 쥐서는 안된다. 토해 버릴지도 모르고 또 숨을 들어 마실 때 토한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 질식 또는 흡입성 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④ 부상자를 안심시키고 될 수 있는대로 기본 좋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부상자에게 상처를 보이지 않도록 하고 '이제 곧 의사가 올

테니 걱정없다.' 라고 환자를 안심시킬 필요성이 있다.

⑤ 부상자를 운반할 때에는 상처가 어떤 것이든 들것은 발을 앞쪽으로 하고 운반해야 한다.

이것은 들것을 운반하는 뒷쪽의 사람이 환자가 호흡장애나 호흡정지를 일으키지 않나 지켜보기 위해서이다. 단 계단에서는 다리를 아래로 하여 운반할 것.

⑥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적당한 것을 부상자에게 덮어 줄 것.

운반가부의 판단과 환자를 운반할 것인가, 의증상에 따른 체위 사의 구원을 기다릴 것인가의 판단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원칙적으로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만을 취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 환자가 발생해서 안정하거나 의사에게 넘겨질 때까지 그 환자의 병세가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편안하고 처치에 적절한 체위를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① 출혈이 있을 경우 : 출혈하고 있는 부위를 가급적 높이 올려주는 것이 지혈 효과도 있고 바람직하다.

② 안색을 보고 체위결정 : 안색이 창백할 때에는 뇌빈혈이나 쇼크로 추측할 수 있으므로 머리를 낮게 해서 눕히면 된다.

③ 호흡곤란이 심할 때 : 천식, 자연기흉, 심장병 등이 있을 때는, 눕히면 호흡곤란이 심해질수 있다. 이런 환자는, 앉은자세 또는 반쯤 앉은 자세를 취하면 호흡이 편해진다. 또한 기도의 확보에도 유의해야 한다.

④ 토기, 구토, 객혈이 있을 때 또는 의식이 없을 때 (혼수상태) : 토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하는 수가 있으므로, 반 엎드린 자세 또는 복외위(伏臥位 : 엎드린 자세)를 취한다.

* 응급처치로서의 체위

그림-6 병세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편한 자세를 유지시킨다.

의식이 있을 때	바로 누워 다리쪽을 높게 (쇼크체위)		쇼크, 뇌빈혈이 있을 때
	바로 누워 머리를 높게		뇌출혈, 열사병의 경우 머리나 목에 상처가 있을 때
	바로 누워 무릎을 구부린 것		복부에 출혈이 있거나 복통이 심할 때
의식이 없을 때	옆으로 눕는 것 (혼수체위)		구토, 토기, 객혈이 있을 때 의식상실 때.
호흡 곤란 또한	바로 누워 상체를 비스듬이		심장병, 천식발작

2. 머리의 타박상

운동중, 상대와의 신체접촉에 의해 발생되기도 하지만 급격히 움직이거나 넘어질 때에 다른 물체와 부딪침에 의해 일어나기도 한다.

* 의식장애의 경우

스포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식장애로서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을 뿐 아무런 후유증도 남기지 않고 치유되는 뇌진탕과, 생명의 위험 및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는 두개내출혈(頭蓋內出血)이 있다. 이 양자의 감별은 중요하고 부상 후 즉시 감별하기는 더욱 힘들므로, 손상받았을 때의 상황, 회복시간, 환자의 상태 등을 잘 살펴서 전문의에게 알린다.

뇌진탕중 인 경우 ■ 스키, 스케이트, 럭비, 축구, 복싱 등의 스포츠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세로서 두부에 급격한 타박을 받았을 경우, 가장 단순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넘어져서 의식 불명을 일으키지만, 수분 이내에 자연히 의식이 회복되므로, 특별한 위험은 없다.

응급처치 ■ 뇌진탕을 일으켜 넘어져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눕게한 다음에 옷을 너슨하게 해주고 아랫턱을 치켜올려 기도(氣道)를 확보한다. 만약 토할 것 같으면 얼굴을 옆으로 돌려준다. 걱정이 되어서 심하게 흔들거나 부르거나 하면 안된다. 한참 동안 안정을 유지하고 의식회복을 기다린다. 무리하게 일으키거나

걸게하면 안된다. 귀가시킬 때는, 반드시 사람을 달려보내어 사정을 일러주고 하룻밤 충분히 관찰하며, 음주나 목욕을 금하고 식사를 가볍게 한다.

두개내출혈의경우 ■ 산악에서의 추락, 럭비의 태클, 원반이나 포환을 맞았을 때, 뇌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 두개가 골절되거나 두개내에서 혈관이 터져 생명이 위험하게 된다. 증세는 의식소실 전에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끼다가 토기(吐氣)나 구도가 나타나며, 의식이 회미해진다. 의식상실후 회복이 늦거나 구도와 두통이 악화될 때에는 뇌내출혈(腦内出血)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응급처치 ■ 두개내 출혈의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한데, 옮기는 중에는 진동을 피하고, 특히 의식이 없을 때에는 두부를 부축해 주어야 한다. 목을 부자연하게 구부러진(꺾어진) 상태로 두면, 경동맥(頸靜脈)의 압박에 의하여 두개강 내에 모인 피로 인하여 출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옮기는 중에 유의할 것은, 혈압의 유지와 기도의 확보이다.

두개내 출혈의 경우 생명을 구출하는 길은, 알맞은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두개내 혈종을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일이다.

* 가벼운 증세인 경우

가볍게맞았을경우 ■ 머리를 다쳤다고 해도 의식을 잃을 정도가 아니면 우선 안심해도 좋다.

응급처치 ■ 머리를 맞은 직후에는 머리가 멍하게 무겁기도 하고 현기증을 느낄 때도 있는데, 이런 때에는 우선 베개를 없이 머리를 낮게 해서 눕히고 옷의 단추 등을 풀어주어 안정만 시키면 곧 회복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바로 돌아다니면 신경성 쇼크 때문에 수분 후에 갑자기 의식이 없어지면서 식은 땀이 나고 손발

이 차가워져서 넘어지는 일이 있다. 따라서 머리를 맞았을 때는 그것이 가볍더라도 5분간 쫘은 조용히 누워서 머리의 무거운 통증과 현기증이 가설 때까지 안정하는 것이 좋다.

혹이생겼을 경우 ■ 혹은 머리의 피부 사이에 약간의 출혈이 있어서 그 곳이 부어오른 상태이다. 전체가 단단하게 부어오른 혹은 2~3일 경과하면 낫는다. 그러나 전체가 물렁물렁한 혹은 피부 속에 피가 뚫린 것이므로 빨리 외과의에게 보여야 한다. 외과 의사는 혹에서 주사기로 피를 뽑아내게 된다.

* 후유증에 유의

머리에 타박상을 입어 기절했을 경우나 안했을 경우나 일단 회복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다. 또 진찰한 의사도 아무 이상이 없으므로서 집에 돌아가도 좋다고 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대로 안심해서는 안된다. 사고가 발생해서 수시간 뒤나 1~2일 사이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며 이런 경우에는 빨리 뇌신경 외과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3. 얼굴을 맞았을 경우

얼굴의 피하조직 밑에는 전체적으로 단단한 뼈가 있으며, 눈·코·입·귀와 같은 중요한 감각기관이 노출되어 있어 타박찰과상, 열좌창, 골절등의 각종 손상을 받기가 쉽다.

기관에 이상이 생겼을때 ■ 얼굴에 타박상이 생겼을 때에는 눈·코·입·귀 기관의 이상유무를 살펴야 한다. 특히 눈 주변부와 입술 주위의 피하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조그만 외상으로라도 피하출혈을 일으켜 시력장애를 가져오기도 한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피부가 찢어졌을 경우 ■ 출혈이 심하면 청결한 솜이나 거즈로 상처부위를 덮어서 손으로 누른 후 병원으로 간다. 비교적 가벼운 상처의 경우라도 대개 화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상처부위를 깨끗이 소독한 후 청결한 거즈로 덮어서 부어이고 얼음 등으로 상처 주위를 냉각시키면 부어

오르지 않는다. 작은 상처일지라도 깨끗이 소독 치료하여 화농(化膿)을 방지하도록 하고 반창고로 상처를 고정해 두어야 한다.

비출혈(코피) ■ 코나 입을 맞으면 비출혈(鼻出血)이나 입안의 출혈이 심하여 호흡에 곤란해진다. 처치로는 머리를 높게해서 누이고 의복을 느추고 코밑 윗입술이나 안면 동맥(맥간)을 누르거나 양쪽 콧등을 가볍게 눌러 준다. 그래도 멎지 않으면 콧구멍 속의 출혈 부위에 솜을 막고 콧등에 찬물 찜질을 한다. 가벼운 것은 이 정도에 그치나 심한 충격을 받았을 때 나오는 코피는 비골절이나 두개저골절(頭蓋底骨折)이 의심된다.

4. 가슴에 타박상을 입었을 경우

흉부에는 폐와 심장, 식도, 흉부 대동맥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흉골과 늑골, 흉추로 구성된 골성흉곽(骨性胸廓)으로 싸여있다. 넘어지거나 떨어지든지 해서 가슴에 직접 타박을 입거나 큰물체에 가슴이 압박을 받으면 뼈와 그 안의 장기에도 상해가 일어난다.

환자의 상반신을 높여서 편안하게 눕힌다.

가벼운 타박 ■ 가벼운 충격일 때에는 뼈에 손상인 경우 ■ 상을 입지는 않지만 피부, 피하조직, 근육 등에 멍이 든다. 크게 호흡을 해도 통증은 없고 기침이나 가래도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타박상의 처치에 준해서 치료하면 된다.

늑골(갈비뼈) ■ 운동선수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골절인 경우 ■ 는 골절로서 직접외력에 의해 골절하는 수가 많으며, 통상 골절을 일으키는 늑골은 1개나 2개 정도의 단순골절이다. 늑골 골절이 되면 호흡 때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 통증을 피하고자 자연히 호흡이 가볍고 빨라지게 된다. 처치로는 반창고나 붕대를 골절부위에 대하여 여러 차례 고정시킨다. 이 때 호흡을 정지시킨 자세에서 시작된다.

손상이장기대 ■ 멍이 든다든가, 늑골골절 정도 미쳤을 경우 ■ 면 일상 생활에서 자주 있는 일이므로 큰 걱정은 없다. 그러나 손상이 장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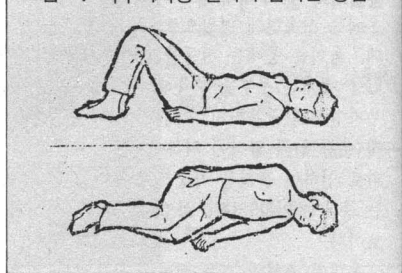
까지 미쳤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무서운 증세가 나타나고 일반 사람의 손으로는 처치를 할 수 없으므로 곧 외과 병원이나 구급병원에 연락하도록 한다.

5. 복부의 타박상

복부에는 소화관이나 간장, 비장, 췌장, 신장 방광, 기타 혈관 등 중요한 장기가 들어 있다. 배를 강하게 타박하면 이들 장기의 손상을 일으킨다.

상대 발생 상황을 본인 또는 상대방,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세히 듣고 부상자의 전신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첫째가 쇼크의 유무이며, 이것이 1차성 쇼크인지 2차성 쇼크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림 - 7 복부타박상 환자의 눕히는 방법



충격의정도가 가벼운 경우 ■ 충격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복근이나 후복막의 별로 크지 않는 혈관이 파열하여 혈종을 이룰 때가 있다. 이 경우에는 장의 작용이 나빠지고 배가 붓고서 가스가 피는데, 이 정도의 부상은 수일내에 낫는 것으로 위험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 충격의 정도와 복강내의 손상 정도는 일반 사람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상이 느껴지면 외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충격의정도가 심한 경우 ■ 심한 충격의 경우는 충격을 받은 부분과 방향에 따라 내부에 장기 파열이 일어난다. 격동과 함께 맥박긴장저하, 오한이 발생하지만 곧 회복될 경우에는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부상자가 허

탈상태가 되어서 2차성 쇼크에 빠지면, 조치에 반응이 없고 맥박의 긴장저하, 빈맥(정상보다도 빠른 맥박) 의식불명, 구토발열이 오는 등 복강 내장기 손상에 의한 출혈이 예상 된다. 타박직후에는 대수롭지 않더라도 차차로 출혈이 많아져 2차성 쇼크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

배에 타박을 입었을 때의 판단과 처치 ■ 위험한 증세가 일어나면 한시도 지체 말고 구급차로 큰 외과 병원에 운반해야 한다.

그러나 위험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배에 타박을 입었을 경우에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증세가 거의 없고 아무렇지 않더라도 반드시 외과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

안정과 체위 ■ 배를 얻어맞은 직후에는 안정을 취해서 환자가 물을 달라고 해도 의사의 허가가 있을 때까지 물은 물론 음식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릎을 99° 정도로 구부려서 똑바로 눕히든지, 옆으로 눕혀 복부의 긴장을 피하도록 한다. 운반할 때에도 허리를 받쳐 복부에 긴장이 가지 않도록 한다. 아프다고 해서 다친 곳을 손으로 만지든가 냉·온 찜질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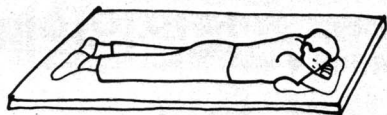
6. 등, 허리에 타박상을 입었을 경우

등에서부터 허리에 이르는 부위에는 상반신을 받치고 있는 흉추(胸椎)와 요추(腰椎), 골반(骨盤) 등이 있고, 흉추에서는 12개의 늑골(肋骨)이 있다. 등이나 허리에 타박상을 입으면 추체(椎體)와 골반의 골절이나 탈구 또는 늑골의 골절을 일으킬 경우가 있다.

단순한 사지(四肢)의 골절과는 달라서 등이나 허리에 골절과 탈구는 등뼈의 중심을 지나고 있는 척추신경의 손상을 가져 온다.

따라서 신마비, 하반신마비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취급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림-8 추체를 다쳤을 때의 환자 다루기



간단한 타박의 경우 ■ 등을 가볍게 맞았을 때 몸을 움직이면 둔한 통증이 있기는 하지만 남이 볼 때 그렇게 아파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 이것은 좌상이다.

응급처치 ■ 일반적인 다른 타박상과 마찬가지로 상처 부분에 냉찜질을 하여 가만히 옆으로 눕힌다. 절대로 상처를 주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도 통증이 가시지 않을 때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외과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옆구리에 타박을 입었을 때 ■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거나 해서 단단한 모서리에 등의 옆구리를 부딪치면 때때로 늑골 골절이 일어난다. 상반신을 좌우로 구부리든지 크게 호흡하거나 기침을 할 때마다 심한 통증이 일어나고 손으로 쓸어보면 골절부에 압통이 느껴진다.

응급처치 ■ 병원으로 가기 전에 넓은 반창고나 탄력붕대(없으면 삼각건)를 호흡하기에도 고통스럽지 않을 정도로 숨을 내뿜은 상태에서 가슴의 반쪽이나 온 둘레에 붙이든지 감아서 골절부를 고정시킨다. 이렇게 하기만 해도 호흡할 때의 통증은 가벼워진다. 그리고 일반적인 늑골골절 정도이면 걸어서 병원에 가도 상관이 없다.

만약 오줌이 붉은 색이면 신장의 파열을 생각할 수 있으므로 안정을 취하고 조용히 외과병원으로 운반한다.

등·허리의 심한 타박상의 경우 ■ 등이나 허리를 심하게 맞으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체(椎體)의 골절이나 탈구를 일으킨다. 이 경우에는 심한 통증 때문에 몸을 굽히고 펴 수가

었다. 또 골절이나 탈구를 한 부분이 튀어 나와서 걸음으로 보아 쉽게 알 수 있을 때가 있다. 척추신경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하지의 운동지각이 마비되어 배뇨(排尿)와 배변(排便)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응급처치 ■ 몸을 움직여서는 안된다. 이럴 때는 편편한 곳에 배를 깔고 눕혀서 목 밑에 얇은 베개를 베게 한다. 갑자기 들어 올리든지 억지로 몸을 움직이면 골절과 탈구부의 손상을 더욱 악화시킨다.

병원으로 운반할 경우에는(외과병원이 가장 적당하다) 환자의 머리와 다리를 들고 등과 허리는 밑에서 받쳐 몸을 수평으로 하여 들어올린다. 들것도 휘청거리는 것은 사용하지 말고 판자와 같은 단단한 들것에 환자를 얹으려 눕혀 운반하도록 한다. 담요가 있으면 그것을 몸에 감아 전신을 고정 시킨다.

7. 고환(낭심)의 타박상

고환의 타박상은 신체접촉 스포츠나 구기에서 드물게 나타난다. 대체로 몹시 아프면 그 직후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놓인다. 대개는 곧 회복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쇼크증상을 동반하기도 하는데 고통이 계속되면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응급처치 고환을 얻어 맞았을 경우에는 잠시 두었다가 겨드랑이 뒤로 손을 넣어서 환자를 일으켜 제자리 뉘게 한다. 또는 환자를 엎드리게 해 놓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미골을 쳐 준다.

이상은 운동중에 발생될 수도 있는 신체 여러 부위의 타박상을 알아보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현재 경기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보호구들은 대부분의 충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습중에도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자. (예방법론 참조)

참 고 문 헌

☐ 다음호에 계속

1. 김 석 련 : 태권도 경기의 외상에 관한 비교고찰, 명지대학원 석사논문, 1983.
부도 스포츠 태권도, 유림사, 1983.
2. 김 중 훈 : 인체구조학, 교학연구사, 1984.
3. 박 병 일 역 : 스포츠 석상과 스포츠 상해, 스포츠 과학연구소, 1983.
4. 오 영 모 의 : 구급처치의 이론과 실제, 명지출판사, 1981.
5. 윤 석 모 : 농구 선수의 스포츠 상해에 관한 연구, 연대교육대학원, 1984.
6. 이 광 호 : 스포츠 의학 시리즈, 월간체육, 198~207호, 1985.
7. 이 규 문 : 스포츠 외상의 발생빈도와 그 예방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 논문집, 1983.
8. 이 금 세 : 코우치 교본 3, 스포츠의학, 스포츠과학연구소, 1983.
스포츠의학, 스포츠과학연구소, 1984.
9. 장 재 이 : 태권도 선수의 외상에 관한 조사연구, 태권도지 44호, 1983.
10. 오 정 희 : 스포츠 재활의학, 월간체육, 198~206호, 1985.
11. 조 강 하 의 : 운동 훈련 중의 외상, 대한의학협회 회지 제 7 권, 1983.
12. 의학서 편찬위원회 : 현대생활의학 신서 응급처치편, 선문출판사, 1978.
13. 하 권 익 의 : 한국 배구선수들의 부상발생요인과 예방책에 관한 임상적연구, 스포츠과학연구보고서, 1982.
14. 佐 藤 宏 : 스포츠障害書, 杏林書院, 1973.
15. 田 中 昇 : 図説 救急處置, 新思潮社, 1972.
16. 清 川 誠 一 : 図説 スポーツ 傷害と處置, 新思潮社, 1974.
17. Arthur, E. Ellison : Athletic Training And Sports Medicine, American Academy of Orthopaedic Surgeons, 1984.
18. Daniel, N. Kulund : The Injured Athlete, J. B. LIPPINCOTT, 1982.
19. Don H. O. donghue : Treatment of Injuries to Athletes, Saunders, 1976.
20. Robert, G. Cantu : Exercise Injuries, S. W. P, 1983.
21. Steven Roy : Sports Medicine, Prentice Hall INC, 1983.

김운용 회장



월드게임위원회 회장 재선 (非 올림픽 경기연맹)

세 계태권도연맹 김운용총재가 월드게임 위원회 (非 올림픽경기연맹) 회장에 재선되었다.

1985년 10월21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한 월드게임위원회 총회는 김회장을 다시 회

장(임기 4년)으로 선출했다.

월드게임은 태권도, 야구등 비올림픽종목 20여개의 종합경기대회로 제 1회 대회는 1981년 7월 미국 산타크레아에서 개최하였고, 제 2회 대회는 지난 1985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하였다.

大學跆拳道報 發刊

대 학태권도연맹에서는 1985년 10월 대학 태권도연맹소식을 담은 대학태권도보를 발간하였다.

“뉴스레터”는 각 대학의 태권도에 관한 제반소식을 실어서 대학태권도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발전을 기원한다.

第 8501號

韓國大學跆拳道聯盟

1985年 10月



大學跆拳道報

KOREA COLLEGIATE TAEKWONDO
FEDERATION NEWS LETTER

發行人: 金 翰 周
編輯人: 崔 仁 範
서울特別市江南區驛三洞
834 大宣빌딩 201號
電 話: 462-4707



제 47기 지도자교육

국 기원 아카데미 교육원에서는 1985년 11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10일간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지도자 교육에는 199명이 신청을 하여, 태권도 기본기 실기 시험을 치루어 176명을 선발하였고, 접수 번호 순으로 127명(장소관계로)이 교육을 받고 49명을 제 48기 지도 교육으로 이월시켰다.

본 교육은 교과 과목 28개와 강의시간 64시간으로 짜임새 있고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본 교육 수료자 122명 중 우등상에는 차용훈, 김상선, 김광수, 강성숙, 정찬, 이재기, 복경수 등 8명이 수상을 하였고, 이덕우(학생장), 김정국(총무) 등 2명은 표창장을 받았다.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수료자 명단

윤명길, 서승준, 김정국, 이재형, 권영호, 안정규, 배형호
조명환, 김수곤, 이덕우, 시인규, 이성국, 최병준, 김광수
박정희, 오학기, 이유일, 윤성모, 정재호, 조귀흠, 이병수
김윤호, 김영호, 박찬식, 김성수, 박충구, 배선욱, 정홍섭
김광수, 정상수, 황삼진, 이석중, 장명호, 옥영은, 이정섭
김도연, 정 찬, 이준희, 이시명, 최용환, 장중위, 장호범
한상진, 강동호, 안용근, 임동균, 진장환, 강성숙, 김교환
이훈우, 최종원, 방중근, 임승철, 이범구, 최광중, 조지훈
김상선, 최익진, 김경진, 김강섭, 임종민, 김경수, 김택수
양철호, 양인석, 홍익표, 장원근, 이덕보, 차용훈, 박철수
허상봉, 김중훈, 김영복, 김한주, 권준철, 변영환, 박민호
전재홍, 안영휘, 강진원, 정지영, 박기정, 유삼도, 한동성
이재기, 김용호, 전인구, 박기주, 서경구, 양희석, 조한일
황영두, 황동길, 안형준, 전전수, 박규남, 윤오남, 오성택
이병호, 이동원, 강호준, 최상철, 송하현, 박성인, 배종학
정보하, 정대목, 최정중, 김수동, 복경수, 김기윤, 주영출
원현식, 최하기, 송홍섭, 양희정, 조억재, 양문석, 유진욱
김원섭, 표락선 (이상 122명)

32개 픽토그램 (Pictograms)

- 서울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에 사용 -

6월 20일 SAGOC (서울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 와 SLOOC (서울 올림픽 대회 조직위)에서는 제10회 아시안 게임과 제24회 올림픽 게임에

사용될 32개의 그림도안을 발표하였다.

이 Pictograms 은 국제 대회 동안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Taekwondo



Archery



Athletics



Badminton



Baseball



Basketball



Bowling



Boxing



Canoeing



Cycling



Equestrian Sports



Fencing



Football



Golf



Gymnastics



Handball



Field Hockey



Judo



Marathon



Modern Pentathlon



Torch Relay



Rowing



Shooting



Swimming



Table Tennis



Tennis



Volleyball



Walk



Water Polo



Weightlifting



Wrestling



Yachting

고단자 승단심사

실기심사 (심사규정 제12조)

논 제

(60분간)

구분	품		세		겨루기
단별	지	정	필	수	
5 단	태극, 고려, 태백중	1지정	평원, 십진중	1선택	1 회
6 단	태극, 고려, 십진중	1지정	지태, 천권중	1선택	1 회
7 단	태극, 고려, 천권중	1지정	한수, 일어중	1선택	없 음

응심단	제	목
7 단	고단자로서 실기심사 참여에 의의를 쓰시오.	
5, 6 단	승단 심사에 임하는 소감을 쓰시오.	

국 기원에서는 12월 9일 오후 1시 고단자 심사를 실시하였다. 12월들어 급강하한 영하의 일기 속에서 86명(5 단 55명, 6 단 18명, 7 단 13명) 응심하였다.

이날 훈시에서 국기원 홍중수 부원장은 영하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상경한 응심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제하고, 지도자의 자세와 현재의 입장을 상세히 밝히고 전원 합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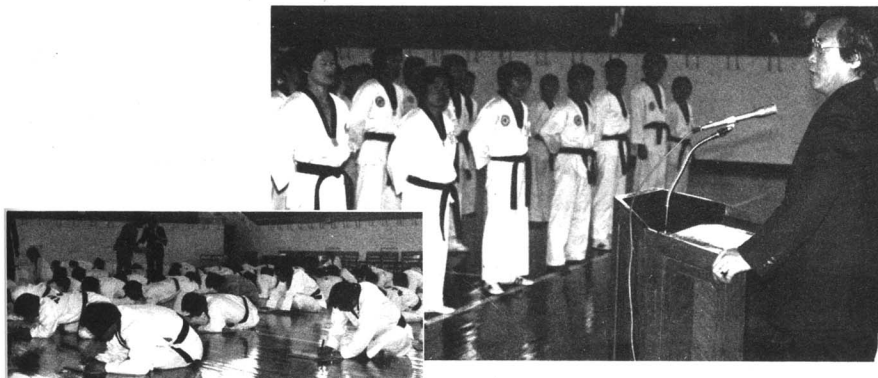
대구협회 서중수 부회장이 7단에 응심을 하였던



는데 왼쪽어깨에 「기브스」를 하고 심사에 응하여 눈길을 모았으며, 마침 지도자 교육 중이라 강의실을 사용할 수가 없음으로 국기원 경기장에서 사무국에서 준비한 신문지를 시험지 받침으로 영하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도복을 입은채 논술

고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처지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열심히 고사를 치루는 응심자들의 정신은 태권도의 수련으로 쌓아진 인내의 소산이리라.

전원 합격되어 영하의 인고에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



안내 86년도 국가대표 선발전

때 : 1986. 2. 17~19. 곳 : 문화체육관

☐ 각 체급별 1 위, 2 위자를
선발하여
최종전에 참가케한다.

● 86년도 여자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

때 : 1986년 2월 24일

곳 : 문화체육관

각체급별 1 위자를 선발한다. 1986년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호주 다위시에서 개최되는 제 7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오픈 경기에 파견한다.

● 86년도 국가대표 최종 선발대회

때 : 1986년 2월 25일~26일

곳 : 문화체육관

85년도 국가대표 1진, 2진과 상비군 각 체급별 3명과 1차 선발된 2명을 포함한 각체급별 5명의 선수로 리그전 방식에 의하여 1, 2, 3위를 최종 선발 한다.

- 1위자를 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에 파견
- 2위자를 제 1회 월드컵 태권도 대회(86.7. 3~5 미국개최)에 파견.
- 3위자를 제 7회 아시아선수권 대회(86.4. 18~20 호주 개최)에 파견케 한다.



경찰 무도대회

서울시경

태권도부

4연패



李澤明 / 감독

태권도는 세계적인 스포츠이며 국제적으로는 경호, 경비를 위한 기본 호신술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세계 1백여국의 국가원수 경호 및 각종 경비업무를 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수련하는 방어술로 각광을 받고있다.

경찰의 날 40주년 기념행사로 거행된 전국경찰 무도대회에서 서울시경 태권도부는 78년, 81년, 83년에 이어 85년에도 우승을 함으로 4연패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1976년 서울시경 기동대 초청 사범으로 기동대원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다가 사명감을 느끼게 되어 순경으로 특채, 경찰관이 된 그는 기동대원과 일반 경찰관의 사범으로 활약해 왔다.

또한 그는 전국 경찰 사범요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사범교육 교관으로 83년부터 84년 9월

두차례에 걸쳐 전국경찰 사범교육을 담당하는등, 태권도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76년에 시경과 인연을 맺고 78년 본격적으로 경찰에 투신, 그해 태권도부를 우승시킨데 이어 계속 4회 우승을 만들은 우승제조기인 그는 70년 초에는 한영중·고등학교에 재직시는 소년 체전에 선수를 출전 우승의 문턱을 드나들었던 그 실력이 경찰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무도대회에는 13개 시도경찰국과 해양경찰대, 경찰종합학교, 치안본부등 16개팀에 480여명(유도, 검도포함)이 출전하여 경기를 거행한다.

서울시경찰국에서는 산하경찰서에서 기량이 우수한 선수를 선발하여 단체전 및 개인전에 출전시켰다.

단체전 구성은 선봉 1번은 전투경찰이나 의무경찰중에서 선발토록 규정이 되어 있고 2,3,4번



서울시경 대표 선수단 앞줄좌 : 윤주열순경, 박형철순경, 최대환순경
 뒷줄좌 : 강성만경장, 윤문희의경, 양영찬경위, 강계령경위
 중 앙 : 이수호경정, 이택명감독, 이성호경장, 최정선경장, 김종오사범

은 경찰로서 비간부요원이어야 하며 5번은 경찰 간부이어야 된다.

시경선수팀은 을지로3가 한국체육관을 훈련 캠프로 9월 1일부터 20일간 1차 예비훈련을 일과후 실시하였고, 9월20일부터 2차 강화훈련, 10월 3일 부터는 3차 강화 합숙훈련을 10일간 실시하여 전력을 가다듬었다.

대회에 출전한 시경팀은 1차전에서 경북 도경을 3:0으로, 2차전에서 해양경찰대를 3:0으로, 3차전에서 제주도경을 3:0으로, 4차전에서 전북도경을 누르고 올라온 치안본부를 3:0으로 누르고 일방적인 우승을 차지 하였다.

4연패의 영광을 「모든 동료들이나 기동대원들

이 열심히 수련을 한 덕분이며, 특히, 이상우(총경)단장의 물심양면의 지원으로 선수단의 사기가 충천함에 큰 힘이 되었다며, 이제 경찰관의 한 사람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한다.

서울시장, 치안본부장, 시경국장등의 표창 12회, 서울시교육감, 학교재단 이사장 학교장등 10여회의 표창등이 그의 건실함을 말해주고 있으며, 태권도계에도 중·고연맹감사 서울시 태권도협회 선수강화분과 위원장으로 태권도발전에도 게으름이 없는 이택명경장은 본대회에 선수로 출전한 9명의 선수들의 바쁜 격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훈련에 임하여 준 것에 고맙다는 말을 몇번이고 되뇌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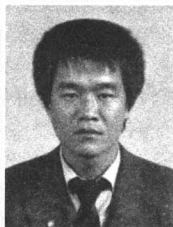
경북 경찰국기동대



기동대장 / 류시환



승단 심사를 마치고



지도사범 / 남인도

경북 경찰국 기동대장 류시찬 경정의 복무지침인 완벽한 교육, 책임완수, 융화단결, 아래 전대원은 태권도수련을 하고 있으며 특히 태권도에 관심이 많으신 기동대장 의 세심한 배려로 전대원이 유단자가 되었으며,

태권도 정신을 바탕으로 강인한 체력, 건전한 정신으로 매사에 임함으로서 대원 모두가 용감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치안본부 검열시 다중범죄진압지휘 부문에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기동대로 선정되는등,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역할을 완수하고 있다.

특히, 9월 승단심사에는 100명이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는 대원들은 오늘도 선진조국창조와 국민의 안녕질서를 위해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황 호 순 회장

한국 중·고등학교 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산하에는 국민학교연맹 중·고연맹, 대학연맹이 있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등, 13기 시·도협회가 있다.

이중 가장 많은 태권도인구를 보유한 협회는 당연시 서울특별시협회이고, 연맹에서는 태권도를 수련하는 인구분포를 보면 숫적으로는 국민학교연맹이 단연 우위이나 실제 협회에 등록된 선수로는 중고연맹이 약 70%의 선수를 확보하고 있다. (1985. 11월 현재) -

구분 인원	등 록 숫 자 (명)
국민학교부	297 명
중 등 부	946 명
고 등 부	2,311 명
대 학 부	581 명
일 반 부	573 명

총등록선수 4,708명중 중·고선수가 3,257명으로 약 70%임은 태권도 경기인구확보에 얼마만큼 중·고등학교의 위치가 중요한 것을 알수 있다.

춘계 중고연맹전에 1,243명의 선수가 출전 6일간 경기를 하였고, 추계 중고연맹전에는 973명의 선수가 출전 5일간 경기를 하였다.

1985년 1월 28일 한국중·고연맹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한 황 호순(동삼건설(주) 레인보우호텔 사장) 회장과 박 광훈(세광건설 대표), 손 근수(사회체육센터 사무총장), 백 은희(베베 의상실 대표), 이 규생(사업)등의 부회장단의 적극적인 협조로 서울 강남구 방배동 750-10번지, 해남빌딩 302호에 35명의 연맹사무실을 갖추고 상조직원을 채용 중·고연맹사상 가장 안정된 운영을 꾀하고 있다.

또한 중·고연맹에서는 멕시코와 자매결연을 맺어 지난여름 멕시코선수단이 내한하여 15일간 전지훈련을 하였고, 86년 1월에는 4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멕시코, 캐나다, 미국등을 방문 친선경기로 태권도 종주국의 면모를 과시함은 물론 선수훈련으로서도 좋은 경험을 쌓게할 계획으로 준비중이다.

1년 6-7천만원의 금액을 본 중·고연맹 발전, 아니, 태권도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중고연맹 회장단에게 태권도인 모두는 감사를 드리며,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목전에 둔 즈음, 회장단이 부재하면 흔들리는 연맹체가 되지 않도록 명실상부한 제도적장치의 필요성을 느끼며, 지면을 빌어 중·고연맹회장을 비롯한 각 연맹장과 협회장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東亞 음악콩쿠르 入賞

태권도찬가 작곡가

강영화 양



(이화여대 작곡과 4년)



대학연맹전에 출전 3위 입상 (강영화)

노회덕부회장 시상

동

아일보사에서는 영창악기(株)의 협찬으로 실시한 제25회 동아음악콩쿠르는 전 통과 권위를 인정받는 음악도들의 관문의 하나이다.

총응모자 2백35명이 참가한 본대회는 예선을 통과한 41명이 10월23일~25일에 열던 경연을 벌렸다.

태권도 찬가 작곡자인 강영화양은 국악작곡부

문에서 3위에 입상함으로써 27명의 동아콩쿠르의 入賞者가 되었다.

본회에서는 태권도찬가 작곡비로 11월 「금일봉」을 전달 격려하였으며,

또한 강양은 제8회 회장기쟁탈 전국대학대학 태권도대회(11월16일~17일 국기원에서 거행)에 출전하여 3위에 입상하여, 대학태권도인으로서의 면모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북한 태권도

“빈”중심가에 진출

「국제 태권도연맹」 앞장세워 유럽 한인 태권도계 침투 기도

북

한은 지난 20여년간 한국태권도 사범들이 심혈을 기울여 널리 보급시켜 놓은 유럽 태권도계에 파고들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최근 중립국인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 태권도 도장을 마련, 유럽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북한은 열렬한 친북인사(親北人士)이자 “국제태권도연맹”(ITF)의 총재인 최홍희씨(캐나다 거주)를 통해 오스트리아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빈 시내 중심가인 서부역(West Bahnhof) 정면에 있는 Stolkasse 8번지에 “태권도센터 ITF”라는 간판을 내걸고 북한의 평양시 파견된 3명의 20대 태권도 교관을 상주시켜 북한의 태권도 보급에 나서고 있다.

빈 시내 중앙부에 북한 태권도 도장개설은 물론 캐나다에 본부를 두었던 최홍희씨가 이끄는 국제태권도 연맹 사무국의 빈 이전과 때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도장의 개설작업은 최씨의 심복부하 사범인 임원섭 사범과 박정태 사범이 앞장서 개설작업을 벌인후 북한에 서온 3명의 사범이 보급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

스웨덴 국적을 지니고 있는 임씨는 개설작업을 끝마친후 스톡홀름으로 떠나고 박씨도 카나다로 간후 3명의 평양출신 “격기도” 사범이 도장의 사범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도장 운영은 빈주재 북한 공관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관리자 명의는 국제태권도협회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개설한 북한 태권도 도장은 넓이 800m²에 월 전세금만 3만실링이 넘는 규모인데 이곳에서 북한의 소위 “격기도”를 보급하고 있는 북한 사범들은 스스로 “공무원”이라 칭하는 업선된 20대의 독신 사범들이다. 도장 개설 당시 이들 개설 요원들은 “중립국인 오스트리아에 정통 태권도를 보급하기 위해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최홍희씨의 태권도야말로 정통태권도”라고 주장하면서 유럽에서 서울에 본부를 둔 세계태권도연맹(총재:金雲龍)과의 대결을 강조했다는 것.

북한 태권도 사범들과 최씨가 이끄는 일단의 사범들은 빈 진출을 계기로 지난 4월 23일에는 빈에서 대규모 태권도 시범대회를 가진바 있다.

한편 이번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로의 북한 태권도 진출은 장차 태권도가 올림픽의 종목으로 채택될 전망을 눈앞에 두고 유럽땅에서 남북한의 태권도 “정통성”의 대결을 시도할 작전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과거의 인연관계를 찾아 국제태권도협회 관계자들 가운데는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 태권도 사범들에게 전화를 걸어 접근을 시도하는 빈도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일부 한인사범들은 말하고 있다.

현재 오스트리아에는 빈에 5명의 한국태권도 사범들이 활약하고 있고 미텔스바하, 그라쯔, 인스부르크 등지에 14명의 한인사범들이 정착, 수천명의 태권도 제자들을 길러오고 있으며, 유럽 전체에는 스페인과 서독에만도 1백50여명 이상의 한인태권도 사범들이 활약하고 있다.

고등부

☆ 퍼 ☆ ☆ 타 박 봉 권 선수



부권/박덕동씨

태극마크를 달고 능률하게 입장하는 박봉권 선수 (오른쪽 2번째)

태권도의 명문 동성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박봉권선수.

과묵하고 예의가 바름으로 대표선수 합숙훈련중에도 선배들에게 귀여움(?)을 받는 모범선수이다. 제 7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국가대표선수로써 고교생이 박선수 한명으로 외국의 기라성같은 강호들을 물리치고 금메달의 영예를 안았다.

박봉권선수는 건축업을 하는 朴德童(48세)씨 이만자(44세) 여사의 1녀 1남인 장남이자 외아들, 아버지 박덕동씨는 박선수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외아들이라 건강관리를 위하여 태권도를 시켰고, 「일반적으로 정신수련을 강하게 교육시키는 태권도를 시키면 四春期에 범하기 쉬운 재반 청소년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꾸준히 운동을 시켰다」고 말한다.

삼양동의 김경찬사범이 지도하는 「지성체육관」엘 6년간 다니며 기초를 닦았다.

물론, 국민학교다닐때도 선수로서 입상 경력이 다양하며, 4학년, 6학년때는 학급에서 반장을 지낸 모범생이었다.

국교 고학년이 되면서 삼양동에서 의정부까지

달리기를 시키고, 주 1회는 삼각산 백운대를 구보로 오르게 하는등, 기초체력과 태권도의 모든 기본을 지성체육관에서 다진 덕분에 동성중학에 입학하여서도 별고없이 꾸준히 실력을 유지하였다고 생각된다고 부친 박덕동씨는 회고한다.

태권도선수로 대회출전, 훈련등으로 중 2학년 때 학교성적이 저조해지자 박선수는 운동을 그만두겠다고 함으로 설득시키는데 좀 애를 먹었다고.....

그후 가족회의를 열어 박선수의 장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때부터 박선수는 훌륭한 체육지도자가 되어 한국의 체육사에 길이 남을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다시 태권도수련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됐다. 이제는 국가대표선수로서 우승을 하였고, '86아시안 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하는게 지금으로서는 최고의 문제로 남아 있다.

중 2학년 운동을 그만두고 공부하겠다는 사건 외에는, 지금껏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하고 얘기할 것이 없이 생활하는 아들이 대견스럽기만 하다고 말하는 박덕동씨는, 합숙훈련을 하지 않을 때는 밤 3시까지 공부를 하는 아들을 볼때는 안타까움이 그지 없으나, 문무를 겸한 지도자가 되기위해서는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단다.

숙대 가정과에 다니는 누나(경림양)도 동생이 자랑스럽고, 훌륭한 체육지도자가 될것을 굳게 믿고 있단다.

박봉권 선수, 약속을 어기지 않는 성격.

말보다 실천하는 선수.

박선수를 6년간 지도한 동성고교 김인수선생은 한군데도 나무랄데 없는 학생이라고 일축한다.

오늘도 박선수의 부모는 멀리 진해에서 합숙훈련을 하는 아들이 부모곁을 떠나있음이 안타까우나, 건강하고, 여유있는 시간에 책을 가까이 하기를 바라며 아들의 꿈이 성취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본회에서는 11월 1일 85우수선수 선발대회 폐회식전에서 훌륭한 아드님을 키우신 박봉권선수 아버지 박덕동씨에게 감사패를 전달 감사함을 표하였다.

박 봉 권 / 68. 2. 20일생 (동성고 3년) 전 적

- 83국가대표 1차선발전 2위
- 제18회 대통령기대회 1위
- 84국가대표선발전 1위
- 85국가대표 최종전 1위
- 제 7 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1위



도장 운영 협의회를 창설하고

대 구 태권도 협회에서는 날로 증설되고 있는 태권도장이 운영에 활성화를 갖기 위해 협회 이사회에 결의에 따라 1985. 7. 30 대구 체육회 대강당에서 대구시 산하 130개 도장 사범들이 한자리에 모여 권위있는 지도자 육성과 도장의 조직적인 운영과 격조 높은 이념을 정립하기 위해 대구 태권도장 운영협의회가 탄생되었다. 현사회에서는 갖

가지 모임의 기구체들이 형성되어 있음으로 태권도 모체인 대한 태권도협회 및 국가원에서는 국내외적으로 갖가지 행사로 바빠, 손길이 일선 도장 운영에 미치지 못함으로 산하 기구체에서나마 지도자들의 단합과 좀더 일찬 권익을 찾기위해 협의회가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리고저 한다.

우선 협회의 사업이라면 사설 강습소인가 발

행체인 교육위원회와 상부상조하여 설치법 자율화 이념을 우리 태권도 지도자들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법절차보다는 태권도인의 윤리와 도덕을 앞세워 도장을 설립코저하는 지도자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과 사회교육 전담의 가치관을 충분히 판단하여 현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태권도 입장을 앞세우자는데 근본 취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회 1차 사업으로 지난 9월 1일에서 7일까지 일주일간 대구시산하 130개 도장을 대구시 교육구청 사회교육 담당자와 합동으로 지도 검열이란 대목으로 도장시설 환경 및 행정부분으로 나누어 실시해본 결과 우수도장을 표창하고 다소 미비점을 안고 있는 도장은 시정을 본회에서 요구함으로써 교육위원회로부터 태권도장의 발전을 한눈으로 보고 인정받게 되었다는데 대하여 본회에서는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도장을 찾아오는 태권도 희망자들과 학부모로부터 대구의 태권도장 운영에 대한 인정도는 날로 높아져가고 있으며, 2차 사업으로 대구직할시 어린이 태권도 종합경연대회라는 타이틀로 대구 칠성동 칠성의원 신상경원장님을 대회장님으로 모시고 대구 현대칼라(주) 이창수 사장님을 대회 고문으로 기타 사회 인사님들의 물심양면으로 협조받아 대구 태권도인들의 큰 잔치를 치루어 3000여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무를 겸한 행사로서 태권도 수련기에 관한 글짓기 태권도 상식에 대한 학과시험 무도에 입각한 풍세, 겨루기, 격파 및 모기대회를 부분적으로 나누어 시상 대상을 만들었으며, 사회에서 보는 태권도가 문무를 겸한 스포츠 단체로 인정시키는데 비중을 두고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대회를 인한 사회교육기관, 언론기관 및 스포츠 단체에서 각광을 받았으며, 이로인해 본회에서는 자부심을 갖고 태권도장 운영의 활성화

를 모색할 수 있다는데 희망을 갖게 되었으며, 태권도 지도자들의 영세성을 벗어날 수 있는 구심점도 아울러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허다히 우리 태권도인들은 「지도자 자질을 향상시키자」, 또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자」라는 기타 등등 구호를 교육의 과목으로 삼고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사회에서는 실질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구에서는 스포츠에서 한차원 앞서 실질을 행동으로 표현시켜 사회로부터 얻어지는 양식을 냉철하게 진단한 결과 도장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위와 같은 행사가 중요시됨을 알게 되었다.

우리 태권도장 지도자들이 영세성을 벗어나야겠다는 단어는 입에담을 필요조차도 없으며, 옛말에 순수한 무도인은 어찌고 저찌고 하는 말들이 있지만 나의 생명의 존엄성도 알고 있어야 되겠기에 국내 태권도 지도자들의 생존 경쟁을 어디로 향하여야만, 태권도인의 이상을 연장시킬 수 있느냐가 숙제로 남을 것 같다.

본회를 운영하면서 여러방면으로 우리 지도자들이 순수한 자립의 재원을 확보 할수 있는 길을 찾아 보았으나, 오직 태권도인의 갈길은 정한 이치라 판단되어 대구에서는 위와 같은 행사를 속속 시도하여 사회인으로부터 인정받는 태권도가 되어, 참여 의식을 심어주고, 수련 희망자로 부터 스스로 발걸을 태권도장으로 향하도록 노력하는 길이 도장운영의 길잡이이며, 태권도 발전을 위한길이라 판단되기에 지도자들이 한데 모여 의식을 서로 교류하고, 친목을 함께하여 갖가지 각자의 소신을 맘껏 토론하고 차별적 대우나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 행사권을 발휘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태권도장 운영 협의회는 사범의 일에 앞장서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발족하였다.

자녀를 전강하고 씩씩하게

박준형 어머니 (한상국교 6-4)



모자와 나팔하

나와 태권도가 인연을 맺게된 것은 약3년 전의 일이다. 나에게는 그 당시 국민학교 2학년과 3학년인 남자아이가 두명 있었다. 형은 성격이 명랑하고 쾌활하며 발랄한 성격이었고 동생은 성격이 운순하고 용기가 부족하며 내성적인 성격에 그나마도 식사는 줄곧 편식을 해 형제간에는 아주 대조적이다.

그래서 아빠와 나는 큰아이에게는 침착성과 조심성을, 둘째 아이에게는 활동성과 용기를 심어 주기 위해 운동을 시키기로 의논했다.

그러든 중 마침 한강 국민학교에 태권도부가 신설 되었다는 것을 알고 아빠와 나는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두명의 자녀를 태권도부에 입관시켰다.

입관시킬 당시 형제는 먼저 피아노와 미술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피아노와 미술은 취미생활

정도로 배우고 있었다.

태권도를 시작한지 몇일간은 무척 고단해 보였고 때로는 안스럽기도 하였다. 그 때마다 나는 운동을 그만 시킬까 하고 몇번이고 망설여도 보았으나 순간의 가엸음을 못봐 어떻게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겠느냐고 마음을 모질게 먹고 계속 운동을 시키었다. 피곤한 내색을 보일 때는 낮잠도한시간씩 재워가며 정신력과 인내로써 극복하도록 신경을 썼다.

그 후 한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두형제는 부모의 의도대로 성격이 변모해 갔다.

덤벼거리던 형은 무척 조심성을 보이면서 형의 위치를 확실하게 할려고 했고 용기가 부족했던 동생은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들 앞에서 그날 배운 것을 형과 연습 하자고 했고, 운동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재미있게 말을 하는 과정에 이르렀다.

중전에는 전혀 보지도 못했던 행동들이었다.

그후 태권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형은 동생에게 공부 및 운동을 지도하고 동생은 형이시키는 대로 잘 따랐다. 운동을 하기 전의 편식과 어떤일에 자신이 없었던 동생도 매사에 용기가 충천하였고 밥한그릇을 남길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인지 지금 6학년과 5학년인 두형제는 체격이 중학생을 능가할 정도다. 간혹 어떤부모들은 태권도를 하면 자녀들에 학업 성적이 떨어질까봐 걱정을 하여서 태권도를 시키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데, 나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부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우리 형제들은 성적으로 자기 반에서 상위권(1

~5등)에 속하며 매사에 충실하고 술선수범하여 행동면에서도 모범생이다. 또한 우리 형제만 그런것이 아니라 우리 한강 국민학교 전교 태권도부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 공부를 잘 하여 교장 선생님, 교감선생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칭찬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그렇기에 자기 반의 학생들이나 여러 반 학생들도 무척이나 따르는 편이다.

방학 때가 되면 친구들은 외갓집이나 친척집으로 놀러 다니고 하는데 우리 형제들은 건강과 정신력으로 새벽 6시에 일어나 새벽 운동을 하러 다녔고 오후에는 미술, 피아노 등 다양한 취미 생활을 탐구해 냈다.

태권도를 배우다 보니, 신체의 모든 신경이 예민하고 발달해져서 인지 어떤 분야에서든 다른 학생에게 뒤지기를 싫어하며, 또 뒤지지 않는다.

이들 형제는 서울시 미술대회, 피아노 경진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해 메달을 받았고 형은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 연맹에서 거행한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 대회」에서도 웰터급으로 출전해 동메달을 따내는 등 다재다능한 실력을 과시했다.

우리 형제들을 키우며 관찰해보면, 몇몇 부모들의 생각처럼 태권도를 배움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미 생활, 정서적인 면 등이 뒤진다는 것

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며, 그렇게 단언함은 바른 생각이 아니라고 말하여 주고 싶다.

운동을 함으로 해서 무엇이든 하겠다는 용기와, 해내고 말겠다는 욕망이 일취월장 하는 것이다.

내가 한강 국민학교 태권도 운영회장직을 재임하면서 어려움이 없지 않았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 이하 여러 선생님 그리고 학부형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사범님의 부단하고, 예의바른 무도 정신의 바탕에 힘입어 지금까지 잘 이끌어 왔다.

앞으로도 태권도의 저변 확대를 위해 열심히 일해 보겠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꾸준히 운동을 시키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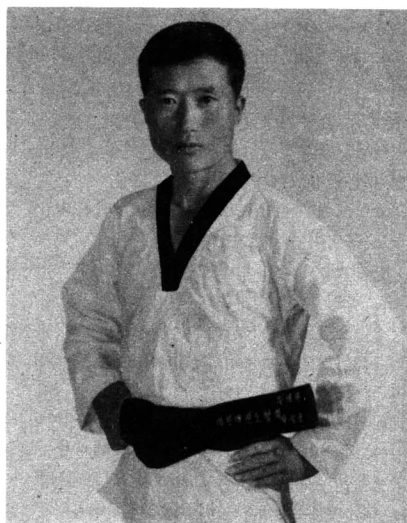
신체적, 정신적으로 강해야 남에게 이길수 있고, 나아가 국가와 민족을 지킬수 있음을 일깨워 주며, 안으로는 허약한 심신으로 어떻게 자신과 가족을 보위할 수 있겠는가?고 채찍을 가하면서

오늘도 나는 도복을 입은 아들 둘을 자랑스럽게 보고 있다.



나와 태권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청대리 충정관사 100-12호
朴 國 雄



○○部隊 上士 朴 國 雄

나의 跆拳道 修鍊記라고 하기보다는 有段者가 되기까지의 考察이라고 감히 내세우고 싶다. 나는 부영이 울음이 들려오는 첩첩 두메 산골에서 태어났다. 온화한 가정이면서도 엄격하신 부모님 밑에서 순하디 순한 촌뜨기 어린애인 한사람으로써 때로는 이웃 어른분들로 부터 法없이도 살수있는 어린애라는 과분한 평을 들어가며 禮儀範節을 철저히 이행했다는 말을 감히 한마디 첨가하고 싶다. 요즘 社會엔 小都市나 大都市나 모두가 都都市의 특징인양 어스름하고 그늘진 뒷골목엔 삼삼오오 떼를 지어 먹이를 잡기위한 줄을 엮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미와같은 人生들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으니 과연 그곳을 무사히 통과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심히 염려스럽다.

등을 치고 간을 내어먹는다는 말이 있다. 양과같이 온순한 시골뜨기들에게 주먹질을 밥먹듯 하며 무언가 요구하는 소위 말하는 깡패 떼거리들이다. 그것은 無法天地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하고도 품을 잡고 어깨에 힘주어 멧을 내고 다닌다. 참 우습다못해 아니꼽고 메시껌다 멧있는 사람이란 그런것이 아니라고 저나름대로 생각해보았다. 그것은 不義보다 正義에 나서고, 약한 자보다 약한자를 도와 犧牲 할줄아는 武藝精神의 그멋, 私慾보다 公義를 앞세우며, 권리보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武道人의 자긍심은 우리들의 人生을 풍요롭게하는 그멋이 말입니다. 어떤 영화의 주인공처럼 신출귀몰의 武藝솜씨로 구석진곳에서 노리며 기다리는 거미 人生들을 시원스럽게 콧대를 꺾어주는 百折不屈의 주인공, 正義와 公義를 위해 犧牲의으로 發揮하는 그런

멧이 나의 마음에 감회를 준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문무(文武)를 겸한 배움이라기보다 跆拳道 修鍊만도 계속하기가 생활환경부터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하고 싶은것은 기필코 하고야마는 성격에 그렇게 하겠다는데는 그누가 막을 수 있을까

첩첩산골에 體育館이 있을리 없다. 요즘처럼 指導師範을 흔히 볼 수도 없다. 그저 한쪽 귀로 듣고 만화책을 보며 영화(가설극장)로 見學을 하면서(跆拳道 合技道 檢客영화 등 안본것이 없다 해도 과언은 아님) 그저 흥내를 내어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뛰는것도 요령이 있고 차보는 것도 법도가 있는 것인데 뒤돌아 차는 것은 오히려 뒤돌아 자기몸을 가누지 못한채 부딪히는 것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그래도 차보고 뛰어보고, 넘어 보고, 노력한 끝에 나의 몸이 말을 좀 듣는것 같았다. 그래서 실험을 해 볼 양으로 내키는 기분으로 하늘 하늘한 수목을 향해(모듬발 열차기) 붕 날랐다(표적을 차고 반동으로 지면

에 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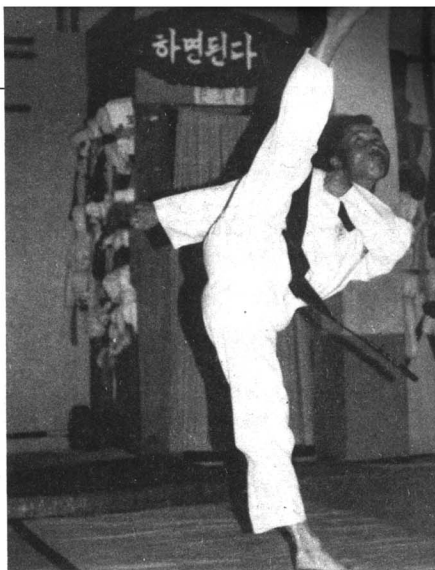
그러나 하늘 하늘한 나무가 힘이 있을리 없다. 그때 낙법이란 낙자도 모른다. 봉튼상태로 감나무-홍시감 떨어지듯 지면에 떨어졌다. 한동안 숨막히는 시간이 지났다. 호흡을 다시 할수 있게된 것이 다행이었다. 좋은 경험을 했든 것이다. 세월이 또 지나갔다. 불행중 다행으로 마을회관이 마련되었다. 이웃 어른들께 양해를 얻어 울통불퉁한 콘크리트바닥이지만 샌드백을 달아 修鍊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날도 영화에서본 見學의実習이다.

뛰어 뒤돌아(고축) 차기를 했다. 묘하게 뒷축이 백의 상단부를 찔라했더니 발이 매달린 끈에 걸려 거꾸로 다이빙을 한 것이다. 얼굴 부분이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치는 안전사고로 인해 윗눈썹 내부에 세바늘질을 해야하는 고통을 당했는가 했더니 담당 의사에게서 진단서 내느냐는 질문까지 받아 민망스럽기도 했었다. 역시 경험이 부족했던 것이다. 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온다는 명언이 있다. 나에게도 국가에서 부름이 있었다. 軍入隊하여 베트남(월남. 이 지금은 공산화되었지만) 참전을 위한 지원을 한 것이다. 파월장병에 필수과목으로 跆拳道修鍊이 포함되어 있다. 最下四級이상의 실력자가 되어야 참전에 자격이 부여된다. 부득이 적과 마주쳐 백병전이 이루어질때 평소 鍊舊한 跆拳道精神과 그 기술로서 적을 무찌르고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있다. 그랜 軍部隊와 社会 体育館(跆拳道場) 품세에는 차이점이 있었다.

일반 社会(跆拳道場)선 품세 평안 1-5가 지 십진 품세등을 실시하였고 軍部隊에선 천지, 단군, 도산, 화랑, 충무형등 옛 유명한 장군의 호(号)나 이름을 따서 했던 품세를 익혔다.

서당개(犬) 三年이면 풍월(風月)을 읊는다 는 우스운 말이 있다.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는 옛 속담보다는 자연법칙에 비유하면 될것이다. 공든탑이 무너지라 조교의 입장에서 더욱 열심히 하였



다. 월남전에서는 우리傳統武藝인 跆拳道로 명예를 떨치고 온 셈이다. 軍生活 이십여년동안 이 사도 많이했다. 가는곳마다 跆拳道場에 入館을 하였다. 짧은 교육 파견생활이라도 그곳 체육관의 館長을 뵈우고 같이 해보는 것이다. 마침 여행길에 주막이나 찻집에 들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체육관 문턱을 넘나들게 되었고, 태권도 생활화가 나에게 유일한 일과중의 하나가 되었다. 조식은 굶어도 아침 태권도수련은 앓고 못배겨내는 습관화가 된 것이다. 그래도 미숙한점이 있지만 자신만만하게 거미人生이 노리며 기다리는 공포의 골목이라 할찌라도 마음 든든하게 지나 갈 것이다.

좀 늦은감이 들지만 멀지않아 있을 五段심사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열심히 수련하고 있다.

- 하면된다.
- 안되면 되게하라.
- 할려면(무엇이든) 끝내주게 하라

위 세가지 指導方針을 바탕으로 퇴직후에도 심박한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태권도로 심어 줄 것이다.

교수 학습 원리에 의한 태권도의 지도방법



강 신 복 (서울대학교 교수)

※ 본 논문은 제1 회 세계 태권도 학술발표회 논문임.

目 次

- | | |
|-----------------------|------------|
| I. 序 言 | 6. 學習 進歩度 |
| II. 태권도 指導의 教授學習理論 | 7. 學習指導模型 |
| 1. 指導者의 資質 | 8. 動機化 理論 |
| 2. 學習目標의 設定 | 9. 運動學習 理論 |
| 3. 內容組織 | 10. 學習 計劃案 |
| 4. 학습모형 A : 기본운동 학습모형 | 11. 教具活用 |
| 5. 학습모형 B : 완전학습모형 | III. 結 語 |

I. 序 言

여가의 증가에 따라 스포츠 붐이 일고 있어 태권도가 평생 스포츠의 하나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따라서 그 참여인구는 크게 증가 일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태권도 인구의 양적 증대에 비례하여 태권도 교육의 질적 향상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태권도는 우리 민족의 고유 스포츠로서 그 가치와 중요성에 비추어 그동안 많은 연구와 발전이 이루어져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태권도는 투기운동으로서 일반 스포츠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태권도 자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지도에 많은 애로를 겪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국기원에서 태권도 지도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여러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시책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왜냐하면 태권도의 양적·질적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우수한 지도자의 확보가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우수한 지도자는 그 운동종목에 대한 이해와 능력이 월등하여야 하며, 또한 그 운동을 적절히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 방법에 남달리 뛰어난 자질을 겸비하여야 한다.

本稿에서는 태권도 지도자의 이상적인 역할 기대의 측면에서 요구되는 지도방법을 이론적 모형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II. 태권도 指導의 教授學習理論

태권도 지도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은 지도자, 프로그램, 그리고 지도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이들 세 요인과 관련되는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태권도의 지도원리와 그 방향에 대하여 고찰 하고자 한다.

1. 指導者의 資質

태권도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수련생에 대해서 역할모델로서 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수련생으로부터 존경받고 추앙받는 지도자여야만 교수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해서 추출된 역할 모델로서의 우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다음과 같이 10개 변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너그럽고 성실하게 수련생을 대하고 돌볼 수 있는 지도자.
- ② 수련생으로부터의 기대치가 높은 지도자.
- ③ 課業 指向的 行動 유형의 지도자.
- ④ 수행될 과제와 연습의 양과 수준 등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수련생의 선택권을 신중하게 부여하는 지도자.
- ⑤ 수련계획을 체계적으로 설계 운영하는 지도자.

- ⑥ 수련과정에서 질의응답을 권장하는 지도자.
- ⑦ 칭찬을 적절히 할 수 있는 지도자.
- ⑧ 피드백(feedback) 이론을 적절히 활용하는 지도자.
- ⑨ 그룹편성(grouping)을 탄력있게 조직 운영하는 지도자.
- ⑩ 학생이 항상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할 수 있는 지도자.

2. 學習目標의 設定

태권도 지도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학습목표가 설정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학습목표 영역은 運動 領域(psychomotor domain), 情意的 領域(affective domain), 知的 領域(cognitive domain) 目標로 분류할 수 있다.

운동영역의 목표는 태권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체력의 발달이 포함되며, 태권도의 다양한 기능(skills)의 발달목표를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태권도 지도자들이 지도현장에서 주로 관심과 노력을 쏟아온 목표영역은 바로 이 운동영역에 해당된다.

정의적 영역 목표는 태권도를 통해서 길러질 수 있는 정서발달과 사회적 발달을 의미한다. 즉 태권도를 통해서 최로애락의 정서감정이 길러지고, 단결심, 경쟁심, 협동심, 감투정신, 인내심과 같은 사회성도 발달할 수 있다.

지적 영역 목표는 태권도의 규칙, 작전 또는 그 운동을 하는데 요구되는 여러 관련 지식의 이해를 그 목표로 삼고 있다.

이상 언급된 세가지 영역의 세부 학습 목표가 설정되어 지도자나 수련생이 명확하게 이해할 때 보다 학습효과를 올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도자는 이들 설정된 세부 목표를 근거로 하여 행동목표(behavioral objectives)를 작성하여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행동목표를 작성할 때 포함 되어야 할 요소는 조건(conditions), 수준(levels or criteria), 그리고 종착행동(terminal behavior)이다.

태권도 지도자는 운동 기능 수준에 따른 개인별 또는 급별 행동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하여야 효과적이다.

3. 內容組織

태권도 지도 내용은 수련생의 발달 특성과 요구 수준에 부합하여 구성되고 조직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지도종목의 학습내용이 연령별, 성별, 학급별과 같은 특성과 개인의 요구, 흥미에 바탕을 두어 설계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편성 운영되어 오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태권도의 내용 중 같은 동작이라 하더라도 앞서 열거된 여러 특성과 요구수준에 따라서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태권도의 기본동작, 품세, 겨루기는 수련생의 기능수준에 의거하여 계열성의 원리에 부합하여 구성 지도되어야 한다.

[표 1] 기본운동 내용의 계열화 모형.

내 용	급별기능 수준		
	백띠	황띠	청띠
기본동작	○	○	○
품 세	○	○	○
맞추어겨루기		○	○
겨 루 기			○

만약 태권도 지도를 3단계의 지도과정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지도하게 될 때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설명될 수 있다.

제 1 단계 : 태권도의 기본기능의 터득단계로서 서기, 막기, 지르기, 치기 및 찌르기, 차기와 같은 기본동작과 태극 1장에서 8장까지의 품세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 2 단계 : 이 단계는 가장 중요한 수련단계 임에도 불구하고 지도과정에서 생략되거나 소홀히 하는 경향이다. 이 단계에서는 시합에 접하기 바로 前段階로서 1단계에서 터득된 기능을 보다 심화하고 응용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1단계에서의 단순한 기능 터득의 차원을 높여 보다 복합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실제 경기의 상황은 아니지만 경기 바로 前段階에서의 여러 응용 동작을 동원한 간단한 간 이시합(lead contest)의 경험을 갖도록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의 주목적은 실제 경기 단계의 직전 단계에서의 여러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적응토록 함에 있다. 즉, 경기와 유사한 상황에서의 기능을 연습하고 다듬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맞추어 겨루기를 도입할 수 있다.

제 3 단계 : 이 단계는 본격적인 겨루기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수련생이 똑같은 학습(연습) 경험을 쌓는다 하더라도 개인차 때문에 같은 시기에 모두 이 단계로 진입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각 어린이의 개인별 능력 수준차에 의한 겨루기 경험의 단계를 두어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학습모형A: 기본운동 학습모형

운동 학습지도 모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운동기능의 수준 여하에 따라서 적절한 모형이 적용 되어야 한다.

특히 초급단계나 중급단계 운동 학습지도는 움직임 교육 지도모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태권도 학습내용 중 기본운동은 기본적인 다양한 운동요소로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제시되는 9개 운동요소 주제(theme)에 의거하여 지도될 경우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주제 1 : 身體認知(Awareness of the Body)

강조 : 일반 이동운동 인지, 여러 신체부위 사용 인지.

목표 : 여러 조작동작을 認知하고 정지 또는 움직이면서 여러 신체부위를 활용 할 수 있다.

주제 2 : 空向認知(Awareness of Space)

강조 : 일반공간과 개인공간, 방향, 신장(Extensions)

목표 : 움직임 활동에 임하면서 공간활용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다.

주제 3 : 무게와 時間認知(Awareness of Weight and Time)

강조 : 다양한 힘과 스피드 사용 방법.

목표 : 힘과 속도(Speed)를 의도하는대로 조절할 수 있다.

주제 4 : 움직임 흐름의 認知(Awareness of the Flow of Movement)

강조 : 주제 1, 2, 3의 통합

목표 : 어떤 동작을 연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연결지어 수행할 수 있다.

주제 5 : 關係 認知(Awareness of Simple Relationship)

강조 : 협동성 인식(Cooperative in Nature)

목표 : 움직임 동작은 어느 의도하는 방향으로(축점있게) 협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주제 6 : 身体認知(Awareness of Body)

강조 : 세부적인 移動운동과 非移動運動의 類型

목표 : 점핑, 슬라이딩, 런닝, 신체동작을 위주로하여 주제 1의 동작을 심화할 수 있다.

주제 7 : 空間認知(Awareness of Space)

강조 : 진로(Pathways)와 수준(Levels)강조

목표 : 주제 2의 동작을 신장(Extension), 확장(Elaboration), 세련화(Refinement)할 수 있다.

주제 8 : 시간, 무게, 공간의 종합개념 認知

강조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움직임.

목표 : 주제 6, 7의 통합개념에 따라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인지 능력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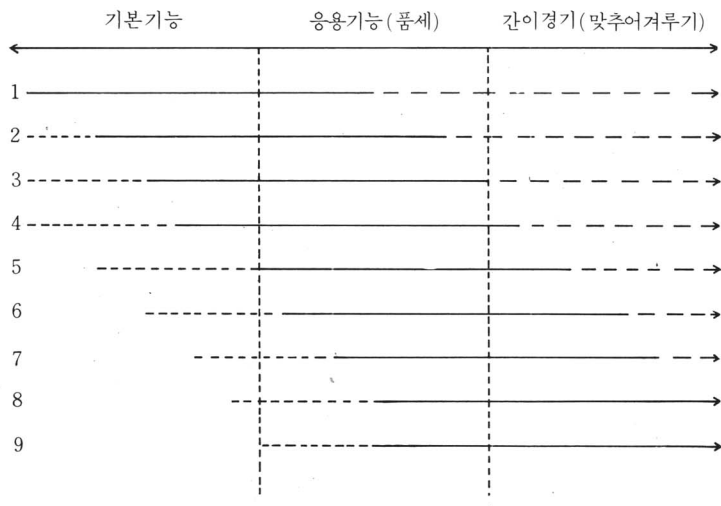
주제 9 : 關係認知(Awareness of Complex Relationships)

강조 : 협동적이며 경쟁적인 개념.

목표 : 움직임에 협동적이며 경쟁적으로 임하여 시합의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태권도의 기본기능의 내용을 위에서 열거한 9가지 주제와 관련지어 체계화하여 도식화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기본운동의 주제별 내용체계모형.



〈註〉 ——— 주로 강조되어야 할 내용

----- 간혹 반복해서 다루어야 할 내용

----- 우수학생 고급반을 위해서 소개되어야 할 내용

5. 학습모형B : 완전학습모형

태권도 지도는 완전학습모형에 의거하여 운영되면 보다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완전학습은 어린이가 어떤 소정의 운동기구를 완전히 터득한 뒤 다음 단계의 기능학습으로 옮겨 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태권도 지도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도 원리가 적용 되어야 한다.

- ① 학습자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각 개인의 진보도에 따라 학습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 ② 운동기능 학습의 시기, 수준, 운동량을 각 개인의 요구와 특성에 맞게 탄력있게 계획되어 지도되어야 한다.
- ③ 학습자에게 광범위하고 깊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④ 개개인의 학습자는 학습참여의 개별화와 학습활동에서의 활발화 위주로 지도되어야 한다.

완전학습모형 개념에 따라 태권도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교육과정, 지도 방법, 그리고 교육환경의 변화가 요구된다. 융통성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만 소정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6. 學習 進歩度

운동기능의 터득은 개념터득관계(Concept Stage), 적응단계(Adaptation Stage), 자동화단계(Automation Stage)를 거쳐 발전하므로(Adler, 1981: 75~80), 앞서 설명된 운동기능 터득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학습 교육과정에서 학습 진보도(Learning Progressions)에 의거하여 학습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습 진보도에 의한 지도는 ①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으며, ②학습자가 성공적인 학습경험을 할 수 있고, ③학습 참여과정에서의 안전상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학습 진보도를 계획 설계하는데 고려되는 요인으로는 폐쇄기능과 개방기능과 같은 기능의 유형이 포함된다.

어느 동작을 터득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수되어야 할 선수기능(先修機能)과 능력도 고려 되어야 한다.

학습계열의 유형은 크게 기능내, 기능간, 그리고 프로그램내로 나눌 수 있다. 어느 한 단순운동 기능은 여러 하위 기능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내 계열은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하위 기능요소를 어떠한 순서로 학습하느냐의 문제와 관련된다. 기능내 계열에 의한 학습은 단순동작 또는 쉬운 동작에서 복합동작 또는 어려운 동작순으로 연습에 임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돌려차기 동작을 학습할 때 각 신체부위별로 관여되는 단순동작(또는 쉬운동작)에서 복합동작(또는 어려운 동작) 순으로 연습토록 하여야 한다. 일련의 운동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여러 단순 운동기능이 조합이 되어 관여하게 된다.

기능간 계열은 이들 단순 운동기능을 어떤 순서로 나열하여 연습 하여야만 효율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느냐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 예를들면, 국민학교 저학년 단계 어린이가 태권도의 여러 기초기능을 어떠한 순서로 하여 연습에 임하느냐의 문제이다.

프로그램내 계열은 학습되어야 할 전체 운동기능을 하나로 묶어 학습의 난이도 수준에 따라 초급, 중급 및 고급기능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학습토록 하는 것이다.

학습의 진보율은 지도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또 다른 요소이다. 각 개인은 운동학습의 속도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지도교사는 지도과정에서 각 개인의 특성과 운동학습의 발전속도, 잠재력 등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관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별 학습 지도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學習指導模型

태권도 학습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도방법(Teaching Methods)이 적용 되어야 한다. Mosston(1966)은 운동학습 지도방법을 지시학습(Command Style), 과제학습(Task Style), 상호학습(Reciprocal Style), 소집단학습(Small Group Style), 개인학습(Individual Program Style), 유도발견학습(Guided Discovery Style), 문제해결학습(Problem Solving

Style) 등 7 가지로 분류제시하고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같이 전통적이며 교사중심 위주의 대표적인 지도방법은 지도학습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태권도 지도는 전통적으로 시범과 설명을하고 반복 연습토록하는 지시 일련도의 학습방법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지도학습이라고도 부른다.

즉, 지도교사나 코치는 학습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시범하는 등 모형 프로그램화하여 이끌어 가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유도발견 학습이나 문제해결 학습유형은 질의응답이나 독자적인 탐구활동을 통해서 학습목표를 성취하는 지도방법으로서 탐색학습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표 3〉에서의 유도발견 학습과 문제해결 학습유형은 학습자의 의사 결정이 많이 반영되는 학생중심의 지도방법이다. 지도자는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목표에 도달하도록 유도하고 안내해 주는 역할을 주로 하게된다.

〈표 3〉에서의 과제, 상호, 소집단 및 개인학습 유형은 학습자 개개인이 자기 학습 보조에 따라 스스로 학습토록 하는 지도방법이다. 과제학습의 예는 체육관 벽에 운동과제가 명시된 포스터의 내용에 따라 독자 학습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피교육자인 학생의 자발적이며 창의적인 학습에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왔다.

학습자의 특성, 체력, 운동기능 수준 등에 개인차가 있으며 각 개인의 요구와 운동학습 동기가 다양하므로 획일적인 한두 가지 지도방법만을 가지고 태권도를 지도할 때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다양한 학습지도 방법이 지도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어 학습효과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표 3〉 학습지도의 유형 (Mosston, 1966)

교사중심							학생중심
A	B	C	D	E	F	G	
지시 학습	과제 학습	상호 학습	소집단 학습	개인 학습	유도 발견 학습	문제 해결 학습	

8. 動機化 理論

학습자가 운동하고자하는 動機 수준이 낮을 때 소정의 운동효과를 올릴 수 없다. 따라서 지도자는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여러 동기화 이론을 이해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동기화(Motivation)란 한 개인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불러 일으키는 무형체를 의미한다 (Kizer, D. and Ather, 1984 : 46).

동기화 기법은 그룹보다 각 개인에 더 관련이 깊다. 따라서 각 개인에게 서로 다른 동기화 기

법이 요구된다. 예를들면 어느 어린이는 태권도의 경쟁적 상황에서 더 훌륭한 운동수행을 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어린이는 그와 반대로 비경쟁적 상황에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전에 그 학습자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운동 참여의 기본적 동기는 어린이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즐겁기 때문에 운동에 참여하며, 아울러 성공감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어떤 값어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같이 지도자는 학습자의 선호도, 취미, 두려움, 능력, 흥미, 요구, 그리고 사회적·정서적 발달 상태등에 대해서 깊이 이해한 후 각 개인에게 적절한 동기기법이 투여되고 처방되어야 한다.

동기는 크게 내적동기와 외적동기로 분류된다. 내적동기는 학습자가 훌륭한 운동수행을 했을 때 칭찬하고, 미소를 짓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과 같은 언어적·비언어적 피드백을 말한다. 외적 동기는 트로피, 공책, 연필과 같은 외적 보상을 말한다.

태권도 지도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동기부여 방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흥미있고 즐거운 태권도 새 프로그램의 개발. 예) 남·여공학 프로그램, 선택 프로그램.
- ② 참신하고 새로운 지도방법에 의한 지도. 예) 움직임 교육, 계약학습
- ③ 코치의 역할을 다하며 열성껏 지도.
- ④ 명성높은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와 같은 자원인사와 새로운 교육매체의 적극적인 활용.
예) 국가대표 선수와의 만남, 재미있는 필름.
- ⑤ 태권도의 지적·정서적 및 사회적 목표 측면에 대한 이해증진. 예) 태권도의 운동효과. 태권도의 정통성과 그 가치.
- ⑥ 학생의 운동 성취도와 장점을 칭찬, 예) 언어적·비언어적 칭찬, 우수학생 공개시범.
- ⑦ 탐방기회의 제공. 예) 태권도 클럽 대항전, 인근 도장과의 교류방문 및 시합.
- ⑧ 동기부여 목적으로 상징적인 상패나 부상수여.

9. 運動學習 理論

운동학습은 운동수행에서의 변화가 일어날 때 또는 연습의 결과로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 이상의 학습준비(Readiness to Learn)가 요구된다. 따라서 태권도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그리고 지적 발달수준, 운동 기능수준, 흥미·요구 수준이 적합한가에 대해 관찰할 필요가 있다. 관찰된 학습준비 수준 여하에 따라 부가될 운동과제의 범위와 수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지도자와 학습자와의 유기적인 의사소통은 성공적으로 기능을 터득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지도교사는 시각적·언어적 또는 다른 매체 등 다양한 의사전달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운동기능 습득은 연습의 량과 質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운동의 量과 質의 적절한 수준별로 단계화하여 점진적으로 높여 연습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技能保持(Skill Retention) 및 그 향상은 과잉학습, 긍정적인 학습전이 또는 정신연습을 통해서 가능하다

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신연습은 자신이 수행하고자 하는 신체동작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고 실제 상황처럼 머리속에서 試演(Cognitive Rehearsal) 하는 연습방법인데 이 정신연습은 모든 운동학습에서 최근 많이 적용되고 있는 연습방법이다. 전통적으로 신체연습(Physical Practice) 만이 활용되어 왔는데 정신연습의 이론이 도입된 후 그 효과가 높다고 여러 연구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태권도의 품새와 겨루기의 연습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해 볼만한 연습방법이다. 신체연습과 정신연습을 함께 적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태권도의 초급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속도(Speed)와 정확도(Accuracy)의 개념과 기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도하느냐의 문제에 자주 봉착하게 한다. 또한 어느한 기능을 전제로 묶어 전습법으로 지도하여야 하느냐, 부분으로 나누어 분습법으로 지도하여야 하느냐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운동기능 연습에서 속도, 정확도 중 어느쪽을 더 강조해야 하는가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터득하는데 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강조할 수 밖에 없다. 태권도의 복합 기능이나 어려운 기능은 전습법으로 간단히 소개한 후 분습법으로 집중 연습토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교적 간단하고 쉬운 운동기능은 전습법으로 연습토록하되 동작의 계열성과 타이밍에 유념토록 한다.

1 회 연습의 시간량과 연습회수 결정은 여러요인에 의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학생의 성별, 연령, 기능수준, 기능의 난이도, 연습의 목적, 그리고 환경여건과 같은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10. 學習 計劃案

태권도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學習案(學習計劃案)을 작성하여 활용 하여야 한다.

學習案을 작성·활용할 경우 여러 잇점이 있다. 학습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따라 학습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교수내용을 조직화할 수 있고 어느 특정영역이나 내용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있게 지도할 수 있다. 또한 시간활용과 교재·교구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학습안에는 교육과정안, 단원안, 沈時案 등이 있는데 이들 案은 지도교사의 철학, 학생의 특성 그리고 지도여건의 상황에 따라 탄력성있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학습안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성취하여야 할 학습목표, 내용의 범위, 시간 할당량, 요구되는 교재·용구의 종류, 지도 방법의 유형 그리고 평가방안 등이다.

11. 教具活用

태권도 지도과정에서 다양한 교구를 확보해야 한다. 교구는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교구는 시각교구, 청각교구 또는 촉각교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교구는 ①학습자료를 정확하게 시각화 할 수 있으며, ②학습자에게 동기를 유발시키며, ③학습지

도의 다양화를 가능하게 하며, ④학습의 물리적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으며, ⑤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교구는 상품화 된 것을 구입하여 쓸 수도 있지만 지도자가 직접 제작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주중을 이루는 대부분의 교구는 필름(Films)이지만 다음과 같은 여러 교구가 있다.

①슬라이드, ②프린트, ③환등기(OHP), ④차트, ⑤레코드 또는 마그네틱 테이프, ⑥텔레비전, ⑦컴퓨터, ⑧게시판, ⑨파제 카드·포스터, ⑩책과 잡지, ⑪모델 등이 있다.

이들 교구는 학습내용의 특성, 교사와 학생의 요구 등 여러 요인에 의거하여 적절히 융통성 있게 선정, 활용 되어야 한다.

Ⅲ. 結 語

運動指導課程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크다. 교구적인 측면에서 지도자는 학습자의 운동 잠재력을 충분히 이해하여 이를 최대한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학습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자신의 운동 잠재력을 느끼도록 지도받은 학생은 자기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며 즐거워하고 또한 적극적이다.

학습 지도자의 일치목표는 모든 어린이가 참여하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어린이들이 어느 스포츠의 인기 상승에 따라 초기에 물밀듯이 운동하러 왔다가 점차 그에 흥미를 잃고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각 어린이가 그 운동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지도될 때, 그리고 자기 능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운동에 참여하게 될 때 평생동안 그 운동에 즐겨 참여하도록 동기 부여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운동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함양 못지않게 그 운동에 대한 技能을 터득하고 지식을 이해함으로서 운동참여의 수준을 있게 된다.

따라서 지도자의 역할은 막중하다. 지도자는 자신이 지도하는 전문종목(태권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건강한 체력과 우수한 기능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현장 지도과정의 현상을 잘 파악하고 그에 대처하여 창의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연구하면서 가르치는 지도자 그리고 코치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학생으로부터 인간적으로 존경받고 추앙받을 수 있는 진정한 스승이어야 한다.

參 考 文 獻

정찬모, 「태권도」, 동양문화사, 1982.

Adler, I., "Stages of Skill Acqutsition: A Guide for Teachers." Motor Skills into Practice, 1981, vol5.

Gilliom, B., Basic Movement Education for Children: Rational and Teaching Units, Addison Wesley Pub. 1970.

Heitman, H., and M. Kneer, Physical Education Instructional Tehniques, Prentice Hall, 1976,

Kizer, D., A Practical Approach to Teaching Physical Education, Movement Publications INC., 1984.

Mosston, M., Teaching Physical Education: From Command to Discovery,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Co., 1966.

Siedentop. Developing Teaching Skills in Physical Education, Mayfield Pub. Comp., 1983.



國內選手와 外國選手的 跆拳道

競技内容에 對한 比較分析 研究

— 제 7 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중심으로 —



국 기 원 연 구 위 원
대성중·고등학교 교사

김 석 린

目 次

- I. 序 論
 - 1. 研究의 必要性
 - 2. 研究의 目的
- II. 研究 方法
 - 1. 研究 對象
 - 2. 研究 범위
 - 3. 研究 方法
- III. 結果 및 考察
 - 1. 총 공격 기술 시도 횟수
 - 2. 기술별 공격 시도 횟수
 - 3. 체급별 공격 기술 시도 횟수
 - 4. 총 득점수
 - 5. 기술별 득점수
 - 6. 체급별 득점수
 - 7. K.O의 분포
- IV. 結論 및 提言
 - 1. 結 論
 - 2. 提 言

表·圖 目次

- 〈表-1〉 각국 연구 대상 인원수
- 〈表-2〉 체급별 게임수 및 인원
- 〈表-3〉 사용 자료
- 〈表-4〉 총 공격 기술 시도수
- 〈表-5〉 기술별 공격 시도수
- 〈表-6〉 체급별 공격 시도수
- 〈表-7〉 총 득점수
- 〈表-8〉 기술별 득점수
- 〈表-9〉 체급별 득점수
- 〈表-10〉 K.O의 분포
- 〈圖-1〉 기술별 공격 시도수 비교
- 〈圖-2〉 한국과 외국 선수의 득점비교
- 〈圖-3〉 기술별 K.O수
- 〈圖-4〉 부위별 K.O수
- 參 考 文 獻
- 國 文 抄 錄
- 英 文 抄 錄

I.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

國技 跆拳道는 하나의 行動 哲學으로서 人間 生存 意識의 肉體의 表現인 同時에 精神의 欲求를 具體化하려는 體育의 活動으로서 先祖로부터 물려받은 고귀한 유산이며 배달의 슬기와 열이 담긴 民族의 武芸로 전해져 내려와 우리 文化의 한 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人間的 투쟁 본능을 순화시키고 고귀한 人品을 승화시키는데 그 根本的 價値가 있는 哲學的 武術인 跆拳道는 그 동안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그 脈을 이어와 1970年代에 들어 國際 스포츠의 하나로 보급 발전되어 全世界의으로 급격하게 뻗어나가 현재 世界 跆拳道 聯盟 (The world Tae Kwon Do Federation)에 108개국의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아울러 아시안 게임 및 팬 아메리칸 게임, 아프리카 게임 등에서 정식 경기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88년 서울 올림픽 경기에서 시범경기 종목으로 채택되어 全世界人들의 관심 종목의 하나로 위치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해를 거듭 할수록 W.T.F.(세계 태권도 연맹) 회원국에서는 한국의 跆拳道에 관한 研究

를 계속하고 있으며 아울러 技術도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9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 7회 세계 태권도 대회를 통하여 여실히 깨닫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研究者는 민족 고유의 무예인 跆拳道의 경기 기술 발전을 위하여 우리 선수들과 비교 분석 하고자 한다.

2. 研究 目的

本 研究의 目的은 世界 各國의 跆拳道 국가 대표 선수들의 競技 內容을 조사 분석하여 각 체급별 기술 유형과 공격기술 시도횟수 및 득점 상황을 파악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대표 선수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앞으로 국제 경기에서의 실점 방지와 競技力 向上에 도움이 되고자 함에 있다.

II. 研究 方法

1. 研究 對象

本 研究은 1985년 9월 4일~8일에 개최된 제 7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각 체급별 결승전 8게임을 포함하여 예선 및 준결승경기 31게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국의 선수와 게임수 및 체급별 인원은 (表-1) (表-2)와 같다.

〈表-1〉 각국연구대상인원

	국 적	인원수
1	KOREA	17
2	U. S. A	7
3	IVORY COAST	6
4	TURKEY	6
5	F.R.GERMANY	3
6	MEXICO	3
7	AUSTRALIA	2

8	CANADA	2
9	ITALY	2
10	KENYA	2
11	CHILE	1
12	COLOMBIA	1
13	COSTA RICA	1
14	DENMARK	1
15	FINLAND	1

16	FRANCE	1
17	IRAN	1
18	MOROCCO	1
19	NETHERLANDS	1
20	SAUDI ARABIA	1
21	SPAIN	1
22	SWITZERLAND	1
	계 62명	

〈表-2〉 체급별 게임수 및 인원

체 급	체 중	게 임 수	인 원 수
F I N	50kg까지	13	6
F L Y	50"~54kg	5	10
B A N T A N	54"~58"	4	8
F E A T H E R	58"~64"	3	6
L I G H T	64"~70"	4	8
W E L T E R	70"~76"	6	12
M I D D L E	76"~83"	3	6
H E A V Y	83kg이상	3	6
計		31	62

2. 연구의 범위

1) 研究 對象은 22개국 대표 선수 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기술 내용에는 공격 기술인 앞차기(앞밀어차기 포함) 옆차기, 돌려차기(반달차기), 뒤돌려차기(뒤후려차기) 뒷차기, 내려찍기, 주먹지르기 7 가지 기술로 선정하여 연구 분석하였다.

3) 공격기술 시도 횟수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술만 조사 하였다.

4) 득점 부위는 얼굴과 몸통(복부, 좌우옆구리) 두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5) K·O의 분석은 제7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전 게임에서 일어난 9건을분석하였다.

3. 研究 方法

1) 方法: Video Camera로 촬영한 Tape을 V.T.R로 녹화하여 경기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매 게임당 보통 속도로 2회, 1/3의 느린 속도(SLOW)로 3회씩 각각 반복 분석하였고 분석은 본 研究者의 국기원 연구위원 1명과 현 중·고등학교 태권도부 감독 생활을 하고있는 고단자 2명의 도움을 얻어 종합 분석 평가 하였으며 사용한 자료는(表-3)과 같다.

〈表-3〉 사 용 자 료

자 료 명	수량	모 델 (型)	제작회사 및 국명
K.B.S 녹화 Tape	2	V. H. S	Japan, Panasonic
대한태권도협회보관용 Tape	6	V. H. S	Japan, Super Arilyn
스포츠과학연구소연구용 Tape	2	V. H. S	Japan, Panasonic
T. V	2	16, 24 inch	Korea, 금성, 삼성
V. T. R	2	GHV-34F, SV-9500	Korea, 금성, 삼성

2) 내용: 제7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게임 중에 일어나고 있는 경기의 활동 상황을 녹화해서 발차기를 중심으로 체급과 기술별로

공격 시도 횟수와 득점수를 비교·분석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
| (1) 총 공격 기술 시도 횟수 | (5) 기술별 득점수 |
| (2) 기술별 공격 시도 횟수 | (6) 체급별 득점수 |
| (3) 체급별 공격 시도 횟수 | (7) K·O의 분포 |
| (4) 총 득점수 | |

Ⅲ. 結果分析 및 考察

1. 총 공격기술 시도 횟수

〈表-4〉 총 공격 기술 시도수

	한 국 선 수	외 국 선 수	계
공격기술 시도수	752	2,054	2,806
게 임 인 원	17	45	62
1인 평균시도수	44.2	45.6	45.3

(表-4)와 같이 62명의 각국 대표 선수가 31 게임에서 사용한 총공격 기술 시도 횟수는 2,806 회로서 한국 대표 선수가 17게임에서 752회의 공격 기술을 시도하여 한 game당 1인평균 44.2 회로 나타났고 외국 대표 선수들의 공격 기술 시

도 횟수는 2,054회로 한 game당 평균 45.6회의 기술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한국 대표 선수와 외국 대표 선수 양측이 경기에서 거의 동한 공격 기술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술별 공격시도 횟수

〈表-5〉 기술별 공격 시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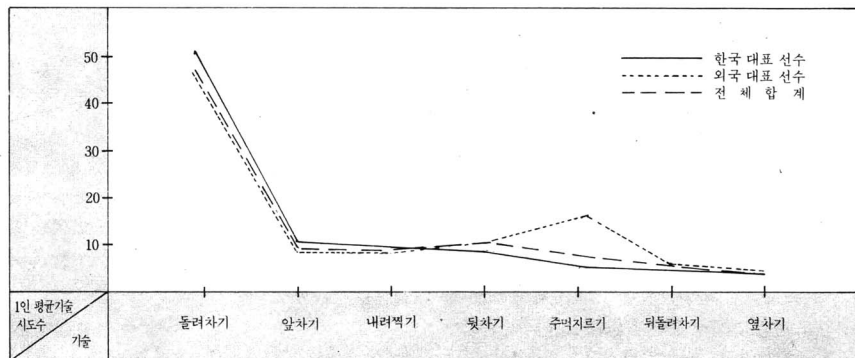
	한국 대표 선수	외국 대표 선수	計 (62名)
앞 차 기	91 (12.1)	166 (8.1)	257 (9.2)
옆 차 기	35 (4.6)	111 (5.4)	146 (5.2)
둘 러 차 기	397 (52.8)	936 (45.6)	1,333 (47.5)
뒤 둘 러 차 기	38 (5.1)	123 (6.0)	161 (5.7)
뒷 차 기	69 (9.2)	241 (11.7)	310 (11.1)
내 러 찌 기	80 (10.6)	165 (8.0)	245 (8.7)
주먹 지르기	42 (5.6)	312 (15.2)	354 (12.6)
計	752 (100%)	2,054 (100%)	2,806 (100%)

(表-5)와 같이 기술별 공격 기술 시도 횟수를 보면 한국 대표 선수가 둘러차기 397회(52.8

%), 앞차기 91회 (12.1%), 내려찍기 80회 (10.6%) 순으로 나타났고 옆차기가 35회 (4.6%)로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외국 대표선수는 돌려차기 936회 (45.6%), 주먹치르기 312회 (15.2%), 뒷차기 241회 (11.7%) 순으로 나타났고 옆차기가 111회 (5.4%)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돌려차기가 1,333회 (47.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어떠한 자세에서도 민첩하게 연속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격후 다음 동작으로 연결할 수 있는 안정된 자세와 수비 동작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반대로 옆차기가 146회 (5.2%)로 가장 적은 것은 태권도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빠른 공격이 어려우며 옆차기에 의한 상대 선수의 수비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습당할 우려가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나 다른 공격 기술을 시도하기 위한 페인트 동작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圖-1〉 기술별 공격시도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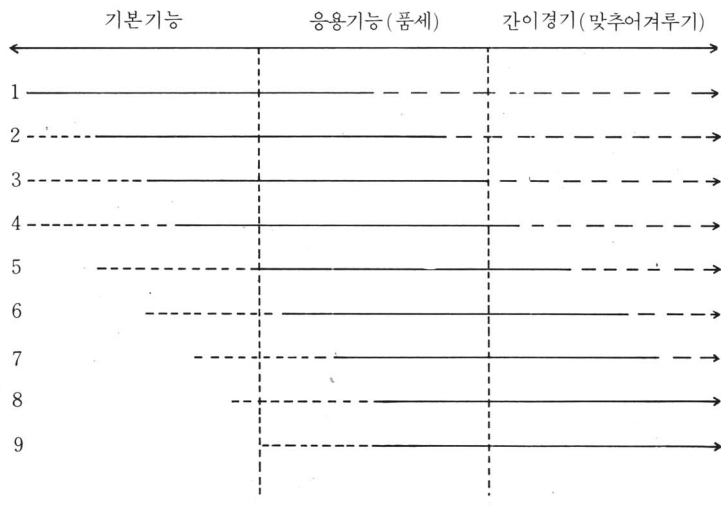


3. 체급별 공격기술 시도횟수

〈表-6〉 체급별 공격시도수

	한 국 대 표 선 수				외 국 대 표 선 수				합			
	기 술 시도수	대 상 인원	1인 평균 기술 시도수	%	기 술 시도수	대 상 인원	1인 평균 기술 시도수	%	기 술 시도수	대 상 인원	1인 평균 기술 시도수	%
FIN	52	1	52.0	14.7	240	5	48.0	13.8	292	6	48.7	13.9
FLY	207	3	69.0	19.5	476	7	68.0	19.5	683	10	68.3	19.6
BAN TAM	85	2	42.5	12.0	253	6	42.2	12.1	338	8	42.3	12.1
FEATHER	95	2	47.5	13.5	168	4	42.0	12.0	263	6	43.8	12.5
LIGHT	87	3	29.0	8.2	187	5	37.4	10.7	274	8	34.3	9.8
WELTER	96	2	48.0	13.6	473	10	47.3	13.5	569	12	47.4	13.6
MIDDLE	66	2	33.0	9.4	126	4	31.5	9.0	192	6	32.0	9.2
HEAVY	64	2	32.0	9.1	131	4	32.8	9.4	195	6	32.5	9.3
합	752	17	44.2	100%	2054	45	45.6	100%	2806	62	45.3	100%

〈표 2〉 기본운동의 주제별 내용체계모형.



〈註〉 ——— 주로 강조되어야 할 내용

----- 간혹 반복해서 다루어야 할 내용

----- 우수학생 고급반을 위해서 소개되어야 할 내용

5. 학습모형B : 완전학습모형

태권도 지도는 완전학습모형에 의거하여 운영되면 보다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완전학습은 어린이가 어떤 소정의 운동기구를 완전히 터득한 뒤 다음 단계의 기능학습으로 옮겨 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태권도 지도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도 원리가 적용 되어야 한다.

- ① 학습자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각 개인의 진보도에 따라 학습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 ② 운동기능 학습의 시기, 수준, 운동량을 각 개인의 요구와 특성에 맞게 탄력있게 계획되어 지도되어야 한다.
- ③ 학습자에게 광범위하고 깊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④ 개개인의 학습자는 학습참여의 개별화와 학습활동에서의 활발화 위주로 지도되어야 한다.

완전학습모형 개념에 따라 태권도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교육과정, 지도 방법, 그리고 교육환경의 변화가 요구된다. 융통성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만 소정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5. 기술별 득점수

〈表-8〉 기술별 득점수

	한국대표선수 (17명)			외국대표선수 (45명)			合 計 (62명)					
	얼	굴	몸 통	計	얼	굴	몸 통	計	얼	굴	몸 통	計
앞 차 기	1		4	5 (10.6)			1	1 (3.2)	1		5	6 (7.7)
옆 차 기			2	2 (4.3)							2	2 (2.6)
돌려 차기	2		23	25 (53.2)	3		15	18 (58.1)	5		38	43 (55.1)
뒤돌려차기	2			2 (4.3)	2		1	3 (9.7)	4		1	5 (6.4)
뒷 차 기			9	9 (19.1)			7	7 (22.6)			16	16 (20.5)
내 려 찌 기	4			4 (8.5)	1		1	2 (6.4)	5		1	6 (7.7)
주먹지르기												
計	9 (19.1)	38 (80.9)		47 (100%)	6 (19.4)	25 (80.6)		31 (100%)	15 (19.2)	63 (80.8)		78 (100%)

〈表-8〉에서와 같이 기술별 득점수는 한국 대표 선수가 돌려차기 25점 (53.2%), 뒷차기 9점 (19.1%), 앞차기 5점 (10.6%), 내려찌기 4점 (8.5%), 옆차기 2점 (4.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얼굴 득점 9점 (19.1%), 몸통 득점 38점 (80.9%)으로 총 47점을 득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대표 선수는 돌려차기 18점 (58.1%), 뒷차기 7점 (22.6%), 뒤돌려차기 3점 (9.7%), 내려찌기 2점 (6.4%), 앞차기 1점 (3.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얼굴 득점이 6점 (19.4%), 몸통 득점이 25점 (80.6%)으로 총 31점을 득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game을 통해서 볼 때 돌려차기 43점 (55.1%), 뒷차기 16점 (20.5%), 내려찌기, 앞차기 각각 6점 (7.7%), 뒤돌려차기 5점 (6.4%), 옆차기 2점 (2.6%) 순으로 나타나 경기중 가장 많은 공격 기술을 시도하는 돌려차기에 의한 득점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상대 선수의 스텝이나 균형에 따라 찬스를 포착하여 신속하게 연속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이며 아울러 다양한 공격을 할 수 있는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6. 체급별 득점수

〈表-9〉 체급별 득점수

	한국 대표 선수				외국 대표 선수				합 계			
	득점수	게임수	1인평균	%	득점수	게임수	1인평균	%	득점수	게임수	1인평균	%
FIN	4	1	4.0	17.6	1	5	0.2	3.5	5	6	0.8	7.9
FLY	9	3	3.0	13.2	3	7	0.4	7.0	12	10	1.2	11.9
BANTAM	6	2	3.0	13.2	4	6	0.7	12.3	10	8	1.3	12.9
FEATHER	7	2	3.5	15.5	5	4	1.3	22.8	12	6	2.0	19.8
LIGHT	8	3	2.7	11.9	4	5	0.8	14.0	12	8	1.5	14.8
WELTER	6	2	3.0	13.2	8	10	0.8	14.0	14	12	1.2	11.9
MIDDLE	5	2	2.5	11.0		4			5	6	0.8	7.9
HEAVY	2	2	1.0	4.4	6	4	1.5	26.4	8	6	1.3	12.9
計	47	17	22.7	100%	31	45	5.7	100%	78	62	10.1	100%

〈表-9〉에서와 같이 체급별 득점수는 한국 대표 선수가 1인 평균 핀급 4.0점, 페더급 3.5점, 플라이급, 반탐급, 웰터급이 각각 3.0점, 라이트급 2.7점, 미들급 2.5점, 헤비급 1.0점 순으로 득점하였으며 한 체급당 평균 2.8점을 득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 대표 선수는 헤비급 1.5점, 페더급 1.3점, 라이트급, 웰터급이 각각 0.8점, 반탐급 0.7점, 플라이급 0.4점, 핀급 0.2

점 순으로 득점 하였으며 체급별 평균 득점수 0.7점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인 것을 보면 페더급 2.0점 (19.8%), 라이트급 1.5점 (14.8%), 반탐급, 헤비급이 각각 1.3점 (12.9%), 플라이급, 웰터급이 각각 1.2점 (11.9%), 핀급, 미들급이 각각 0.8점 (7.9%) 순으로 득점하여 체급당 평균득점은 1.3점을 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7. K.O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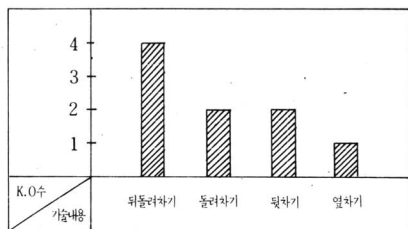
〈表-10〉 K.O의 분포

	F I N	F L Y	BANTAM	FEATHER	LIGHT	WELTER	MIDDLE	HEAVY	計
앞 차 기									
옆 차 기			얼 굴						1 (11.1)
둘러 차 기		몸 통						얼 굴	2 (22.2)
뒤돌려차기			얼 굴	얼 굴	얼 굴			얼 굴	4 (44.5)
뒷 차 기	몸 통		몸 통						2 (22.2)
내려찍기									
주먹지르기									
計	1 (11.1)	1 (11.1)	3 (33.4)	1 (11.1)	1 (11.1)			2 (22.2)	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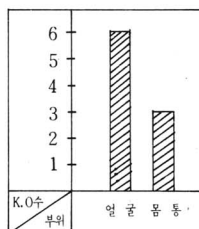
〈表-10〉에서와 같이 제 7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8체급 전 game을 통해서 나타난 K.O의 분포를 기술별로 보면 뒤돌려차기로 얼굴 공격이 4건 (44.5%), 뒷차기 몸통 공격이 2건 (22.2%), 둘러차기로 몸통 공격이 1건 (11.1%), 얼굴 공격 1건 (11.1%), 옆차기로 얼굴 공격 1건 (11.1%) 순으로 나타나 뒤돌려 차기의 K.O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급별로는 반탐급이 3건 (33.4%), 헤비급이 2건 (22.2%), 핀급, 플라이급, 페더급, 라이트급이 각각 1건 (11.1%)으로 나타났으며, 웰터급과 미들급에서는 K.O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얼굴 공격이 6건 (67.0%), 몸통 공격으로 인한 K.O가 3건 (33.0%)으로 얼굴 공격으로 인한 K.O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圖-3〉 기술별 K.O수



〈圖-4〉 부위별 K.O수



VI. 結論 및 提言

1. 結 論

1985年 9月 4日~8일에 개최된 제 7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경기 내용을 Video Camera로 촬영하여 V.T.R로 녹화한 동작을 조사 연구하여 체급 및 기술별로 공격기술 시도 횟수와 득점수를 파악해서 한국 대표 선수와 외국 대표 선수와의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① 공격 기술 시도 횟수는 총 2,806 회로서 한국 대표 선수가 1인 game당 평균 44.2회, 외국 대표 선수가 45.6회의 공격 기술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나 양측이 거의 대등한 공격 기술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국 대표 선수가 약간 많은 공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기술별 공격시도 횟수에서는 돌려차기가 1,333회 (47.5%)로 가장 많았고 앞차기가 146회 (5.2%)로 가장 적었으며 이 중 한국 대표 선수가 돌려차기 397회 (52.8%)로 가장 많았으며 옆차기가 35회 (4.6%)로 가장 적었고 외국 대표 선수가 돌려차기 936회 (45.6%)로 가장 많았고 옆차기가 111회 (5.4%)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체급별 공격 기술 시도 횟수는 한국 대표 선수가 플라이급 69회 (19.5%), 핀급 52회 (14.7%), 웰터급 48회 (13.6%), 페더급 48회 (13.5%), 반탐급 43회 (12.0%), 미들급 33회 (9.4%), 헤비급 32회 (19.1%), 라이트급 29회 (8.2%) 순으로 나타났고 외국 대표 선수가 플라이급 68회 (19.5%), 핀급 48회 (13.8%), 웰터급 47회 (13.5%), 반탐급 42.2회 (12.1%), 페더급 42.0회 (12.0%), 라이트급 37.4회 (10.7%), 헤비급 32.8회 (9.4%), 미들급 31.5회 (9.0%) 순으로 공격 기술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나 경량급에서는 조금 앞서나 무거운 체급인 중량급에서 외국 대표 선수들보다 다소나마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득점수는 31 game에서 총 78점을 득점

하여 이 중 한국 대표 선수가 47점으로 1인 게임당 평균 득점이 2.8점이고 외국 대표 선수가 31점으로 1인 게임당 평균 득점이 0.7점으로 나타나 한국 선수가 득점 획득에 있어서는 4배 정도로 월등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기술별 득점수는 한국 대표 선수가 돌려차기 25점 (53.2%), 뒷차기 9점 (19.1%), 앞차기 5점 (10.6%), 내려찍기 4점 (8.5%), 뒤돌려차기, 옆차기가 각각 2점 (4.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얼굴 득점이 9점 (19.1%), 몸통 득점이 38점 (80.9%)으로 몸통 득점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대표 선수는 돌려차기 18점 (58.1%), 뒷차기 7점 (22.6%), 뒤돌려차기 3점 (9.7%), 내려찍기 2점 (6.4%), 앞차기 1점 (3.2%) 순으로 득점하였고, 옆차기와 주먹치르기 기술에 의한 득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얼굴 득점이 6점 (19.4%), 몸통 득점이 25점 (80.6%)으로 한국 대표 선수와 비교해 볼 때 득점수는 한국 선수가 앞서고 있으나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⑥ 체급별 득점수는 한국 대표 선수가 1인 평균 핀급 4.0점 (17.6%), 페더급 3.5점 (15.5%), 플라이급, 반탐급, 웰터급이 각각 3.0점 (13.2%), 라이트급 2.7점 (11.9%), 미들급 2.5점 (11.1%), 헤비급 1.0점 (4.4%)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고른 득점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대표 선수는 헤비급 1.5점 (26.4%), 페더급 1.3점 (22.8%), 라이트급, 웰터급이 각각 0.8점 (14.0%), 반탐급 0.7점 (12.3%), 플라이급 0.4점 (7.0%), 핀급 0.2점 (3.5%) 순으로 나타나 미들급에서만 득점이 없으며 한국 대표 선수와의 분포 비율은 비슷하며 각 체급별 모두 월등하게 앞선 득점율을 나타냈으나 헤비급에서는 1인 평균 득점 비율이 1.0점 (4.4%) : 1.5점 (26.4%)로 한국 대표 선수가 다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⑦ K.O는 총 9건 중 뒤돌려차기 4건 (44.5%), 돌려차기, 뒷차기가 각각 2건 (22.2%), 옆차

기 1건 (11.1%) 순으로 나타나 뒤돌려차기의 얼굴 공격에 의한 K.O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담급 3건 (33.4%)과 미들급 2건 (22.2%)의 두 체급에서 과반수 이상의 K.O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K.O의 분포를 보면 얼굴과 몸통의 비율이 6:3으로 얼굴 공격에 의한 K.O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提 言

제 7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경기 내용을 분석 비교한 결과 한국 태권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몇 가지 提言한다.

첫째: 총 공격기술 시도 횟수에 있어서 체력이 우세한 외국 선수들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일선 지도자들께서는 우리 선수들의 체력 향상을 위한 집중적 노력을 해야 되겠다.

둘째, 외국 대표 선수들에 비해서 고른 득점 분포를 이루고 있으나 단순로운 기술인 돌려차기에 의한 득점 획득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므로 외국 선수들의 한국 선수와의 게임에서 실점

을 방지할 수 있는 집중적인 연구, 분석을 감할 때 그 대책으로 우리 선수들이 중주국의 위위를 계속 지켜려면 외국 선수가 예상치 못한 득점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격 기술 개발에 모든 지도자들은 연구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셋째: 체중이 무거운 체급인 重量급은 체력과 기량이 우세한 외국 선수들의 경기 기술 내용과 우리 선수들의 실점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외국 선수들에게 득점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찾아내서 순간의 찬스에 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 훈련과 우리 선수의 실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어 기술을 익힌 다음 과학적인 체력 훈련과 기술 연마에 인내를 가지고 계속적인 노력을 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내다본다.

내배, 몸통보다 얼굴 공격에 의한 K.O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몸통은 보호구를 착용한 반면 얼굴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게임을 하는 점으로 볼 때 몸통보다 훨씬 살상 위험이 많은 얼굴 부분에도 선수 보호를 위해서, 보호구를 착용하고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다.

参 考 文 献

1. 김대식, 세계로 뻗어가는 태권도교본, 서울; 나남출판사 1984.
2. 김석련, 武道·스포츠 태권도, 서울; 유림사 1983.
3. 김석련, "태권도 경기의 외상에 관한 비교고찰," 서울; 명지대학교 체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4.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 교본, 서울; 대한태권도협회 출판부, 1975
5. 문교부, 태권도, 서울; 서울신문사 출판국 1973.
6. 이강희, "태권도 경기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7. 이승국, "태권도 경기의 기술 유형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 태권도지, 1983.
8. 정찬도, "고대 우리 나라 태권도의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 태권도지 1972.
9. 최영의, 정통 태권도 교본, 서울; 광학사, 1976.
10. 한승조, "한국 전통사상과 태권도," 세계 태권도 학술 발표회 논문집, 1985.

國 文 抄 錄

本 研究는 1985年 9月 4日 서울에서 개최된 제 7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중 22개국 62명의 선수, 31 게임의 경기 내용을 Video Camera로 촬영한 녹화 Tape으로 게임 전반의 동작을 조사 연구 하여 체급 및 기술별로 공격 기술의 시도 횟수와 득점수를 파악해서 한국 대표 선수와 외국 대표 선수와의 비교 분석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공격 기술 시도 횟수는 총 2,806회로서 한국 대표 선수가 한 게임당 1인 평균 44.2회, 외국 대표 선수가 45.6회의 공격 기술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술별 공격 시도 횟수에서는 돌 차기가 47.5%로 가장 많았고 앞차기가 5.2%로 가장 적었으며 이 중 한국 대표 선수가 돌려차기 52.8%로 가장 많고 옆차기가 4.6%로 가장 적었으며, 외국 대표 선수가 돌려차기 45.6%로 가장 많았고 옆차기가 5.4%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체급별 공격 기술 시도 횟수는 한국 대표 선수가 플라이급이 19.5%로 가장 많았고 라이트급이 8.2%로 제일 적었으며, 외국 대표 선수가 플라이급이 19.5%로 가장 많았고 미들급이 9.0%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득점수는 31게임에서 총78점을 득점하였으며, 이 중 한국 대표 선수가 1인 평균 2.8점을, 외국 대표 선수가 0.7점을 득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기술별 득점수는 한국 대표 선수가 돌려차기 53.2% 뒷차기 19.1% 앞차기 10.6% 내려찍기 8.5% 뒤돌려차기, 옆차기 각각 4.3% 순으로 득점하였으며 이 중 얼굴 득점이 19.1%, 몸통 득점이 80.9%로 나타났다. 외국 대표 선수는 돌려차기 58.1%, 뒷차기 22.6%, 뒤돌려차기 9.7%, 내려찍기 6.4%, 앞차기 3.2% 순으로 득점하였고 이 중 얼굴 득점이 19.4% 몸통 득점이 80.6%로 나타났다.
6. 체급별 득점수는 한국 대표 선수가 1인 평균 핀급이 4.0점, 페더급이 3.5점, 플라이급과 반탐급, 웰터급이 각각 3.0점, 라이트급 2.7점, 미들급 2.5점, 헤비급 1.0점 순으로 나타났고, 외국 대표 선수가 헤비급 1.5점, 페더급 1.3점, 라이트급, 웰터급이 각각 0.8점, 반탐급 0.7점, 플라이급 0.4점, 핀급 0.2점 순으로 나타났다.
7. 제 7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전 게임에서 나타난 K.O는 총 9건으로 그 중 얼굴 부위 공격으로 인한 것이 6건, 몸통 부위가 3건이며, 뒤돌려 차기가 4건, 돌려차기, 뒷차기가 각각 2건, 옆차기 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冥 想 的 時 間

於我善者라도 我亦善之하고
於我惡者라도 我亦善之니라
我既於人에 無惡이면
人能於我에 無惡哉인저



나에게 착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나 또한 착하게 하고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나 또한 착하게 하여야 한다.
내가 이미 남에게 악하게 함이 없으면 남도 나에게 악하게
할 수 없을 것이로다. <銘心寶鑑 中에서> 홍보실.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echniques of Taekwondo between Korean Participants and Foreign participants.

Analysis of the The 7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 games

Seok Ryon Kim, M.P.E

Technology Evaluation Committee, Kuk Ki Wbn
Dae Sung Middle School, Seoul Korea.

This study guided conclusion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and foreien typical players with grasping frequency of attack skill and point divided physical grade and skill by investigation and research about motions of the games at large with afforestation tape that photo using video Camera contents of 31 games, 62 players of 22 countries at the 7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 tournament opened in Seoulon 1985. 9. 4.

1. Frequency of attack skill appeared total 2806 times. These times divided 442 times a man on the average in one game by the Korean typical players and 45.6times a man on the average in one game by foreien typical players.

2. At frequency of attack technically appeared that the most frequency is Dolryôchagi in 47.5%, the least frequency is Apchagi in 5.2%. In this distribution the Korean typical players attempted the most Dolryochagi in 52.8%, the least Yopchagi in 4.6%, and foreien typical players attempted the most Dolryochagi in 45.6%, the least Yopchagi in 5.4%.

3. Separately physical grade, frequency of attack skill found out that fly grade was the most frequency in 19.5%, light grade was the least frequency in 8.2 % by the Korean typical players, and fly grade was the most frequency in 19.5%, middle grade was the least frequency in 9.0%by foreien typical players.

4. Point numbers obtained total 78points at 31 games. These points divided 2.8points a man on the average by the Korean typical players and 0.7points a man on the average by foreien typical players.

5. At point numbers technically appeared that constitution; the Korean typical players pointed with Dolryochagi in 53.2%, Dwichagi in 19.1%, Apchagi in 10.6%, Naeryotchikgi in 8.5%, Dwidolryochagi and Yopchagi in 4.3%separately, and face points and body points have 19.1%, 80.9% in this distribution foreien typical pl-ayers pointed with Dolryôchagi in 58.1%, Dwichagi in 22.6%, Dwidolryôchagi in 9.7 %, Naeryotchikgi in 6.4%, Apchagi in 3.2%, and face points and body points have 19.4%, 80.6% in this distrib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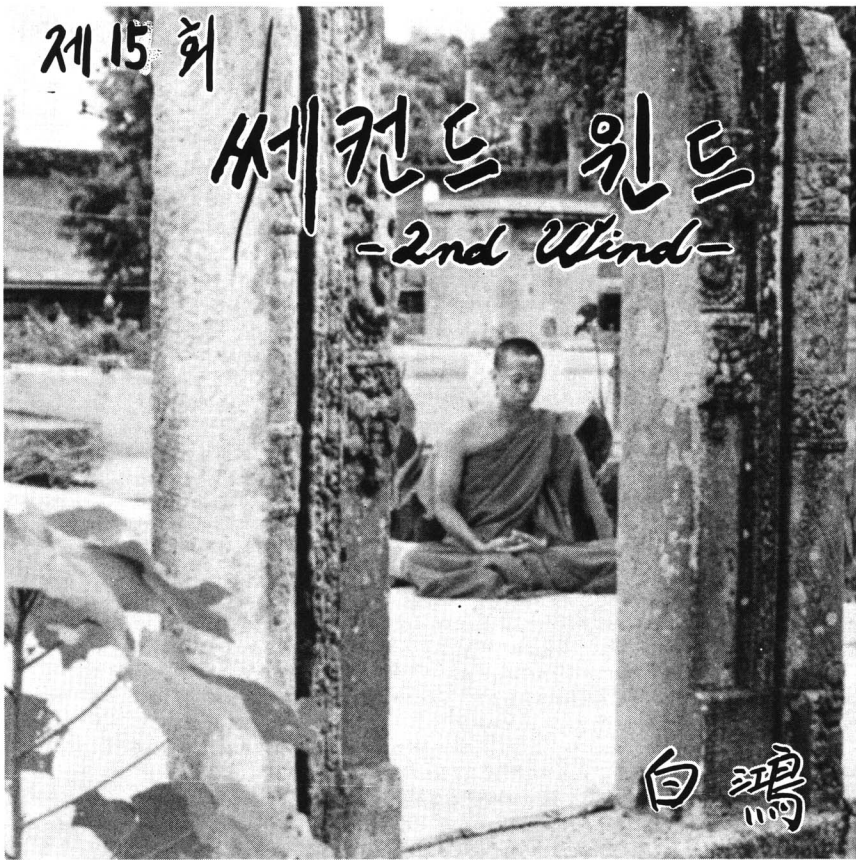
6. Point numbers of physical grade were pin grade is 0.4point, Feather grade 3.5point, Fly grade, Bantam grade, Welter grade 3.0point saparately, Light grade 2.7point, middle grade 2.5point, Heavy grade 1.0point in the Korean typical pl-ayers. And In foreien typical players, these were Heavy grade is 1.5point, Feather grade 0.8point Light grade, Welter grade 1.3point saparately, Bantam grade 0.7 point, Fly grade 0.4point, Pn grade 0.2point.

7. K.O in the games at large of the 7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 tournament was total 9 games. This K.O of 9 games are made up attack of face area is 6 games, body area 3 games, by Dwidolryochagi is 4 games, Dolryochagi and Dwichagi 2 games saparately, Yopchagi 1 game.

제 15 회

세컨드 윈드

-2nd Wind-



白鷗

I. 가을 일기(日記)

해 묵은 화선지 같이 색바랜 수첩이 한 권, 사무실 책상 정리 중에 나왔다.

일상(日常)의 편린들이 누벼져 있었다.

혹시 옛 친구들 연락처라도 있을성 싶어 뒤적거리다가 현옥은 감전된 듯한 느낌을 주는 10월의 어느날 단상(戀想)과 맞닥뜨려졌다.

“정신(精神)이란 무엇인가?”라는 「타이틀」이 었다.

현옥이 지도자 교육을 이수하면서 최우수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자랑하던 스승의 자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심하던 때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다.

사범이라면 의당 규명해야만 할 「오브제」가 바로 “「태권도 정신」이란 무엇인가?”라는 너무도 평범한 난제(?)가 아닐까하고 현옥은 생각했다.

도장을 찾은 벽안의 선교사가 현옥에게 신(神)을 권유하면서 묻는 말이 있었다.

“당신은 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물론이다. 우리 한국인은 「하늘」이라는 신이 누구나의 마음 속에도 실존하고 있다.”

“어떤 종교를 믿습니까?” “내 신앙은 태권도이다.”고 조금은 격양되게 현욱이 답했다.

“태권도는 단지 건강하게 생활하려는 목적으로 땀흘리는 스포츠의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다. 태권도에는 우리 인간이 갖추어야 할 덕목들이 생동하고 있다. 마치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당신들이 신봉하는 「사랑의 신(神)」이 재현되는 것처럼…….”

더듬거리는 우리말과 영어로 나는 대화는 결국, 현욱으로 하여금 태권도의 심연에서 사범들을 혼란케 만드는 문제에 빠져들게 했다.

“과연 태권도 정신은 무엇인가?”

행동철학이라는 추상명사로 설파된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현욱은 운무와 여백이 어우러진 동양화의 운치보다는 극세필(極細筆)로 묘사된 인물화의 점묘처럼 정교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사범 교육에서 명쾌한 정의(定義)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라고 현욱은 생각했다.

어느 선배라서 이 문제를 ‘명증하게’ 후배들을 일깨울 수 있을는지…….

현욱은 극명한 사변(思辯)을 스스로에게 집지었다.

기사도정신, 신사정신, 시민정신, 화랑정신, 군인정신, 기업가정신, 공무원정신, 새마을정신……

태권도 정신(精神)은 어떤 것인가?

어떤 이는 「예의·염치·인내·극기·백절불굴」이라는 고전(古典)과 상무(常武)의 혼합형 미덕(美德)을 표방했다.

그러나 군인정신이 국가와 민족 앞에 목숨을 초개처럼 헌신한다는 군인 특유의 독특한 행동양식을 그들의 훈련과 다짐 속에서 낳고있는 것처럼, 태권도 정신 역시 태권도 수련자들 만이 고유하게 지니게 되는 실체적인 독자성이 살아 움직여야만 할 그 무엇이 아닐까하는 의문이 싹났다.

「공정함」이나 「의연함」, 「자신감」이 태권도 특유의 정신체계라고 주장한다면 태권도인의 행동양식 역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옛 선배들은 신라 화랑의 「세속오계」를 표방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대국가의 세습적이고 혈통보전적인 귀족계급에서 그들의 가치관을 이으며 권리를 유습하려고 했던 저의를 쉽게 간파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현대 시민사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배계층에 국한된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도 생각되었다.

오히려 요즘 거론되는 상인(商人) 정신이나 기업가정신은 좀 더 실용적인 듯 싶었다.

“보다 많은—적절한이라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미화(美化)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이윤을 추구해서 그 이윤을 기업가와 근로자와 사회에 적절히 배분·환원한다.”는 그들의 생각은 이제 비난의 대상일 수 만은 없었다.

애국정신을 호소하면서 권력유지에만 급급했던 수많은 「슬로건」 주창자들을 우리는 슬프도록 많이 겪었기 때문이다.

「정신」이란 어떤 구체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갖게 되는 공통적인 행동양식, 또는 준수하고 계승해야만 할 가치관이나 불문·도덕을 같은 것이라고 현욱은 막연히 기대했다.

태권도 수련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신의 어려움을 극복해서 얻게되는 육체적 강인과 정신적 만족을 딱 잘라서 명쾌히 설명될 수 있는 가치(알맹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름지을 것인가?

체력단련이나 백절불굴의 투혼만을 위한다면 심산유곡에서 가혹한 훈련과정을 거치는 유격훈련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수십·백만명이 흰도복에 색색의 띠를 두르고, 무엇을 갈구하려고 허공에 그들의 손발짓과 몸사위를 띄우고 땀을 끌어안고 땀군단 말인가?……

호신과 방호만을 위해서라면 딱히 태권도가 아니더라도 좋다. 「마이크로·칩」을 이용한 전자총이나 「레이저」 칼이라도 만들어 악당을 잠시 기절케 할 수도 있는 세상이니 말이다.

허물어져가는 인체의 근력과 상실되어만 가는 육체 노동의 기회 때문에 맞게되는 허약을 막아 보려면 또한 태권도가 아니더라도 수단은 많기만 하다.

우람한 근육을 갖고 싶다면 「헬스·클럽」에서 「웨이트·트레이닝」의 전문가가 써준 처방전대로 응용면 될 일이다.

“왜? 왜? 태권도를 수련하는가?……”

이것이 바로 태권도 정신이라는 영롱한 진수(眞水)로 접근할 때 열어야 할 첫 관문이라고 현옥은 깨달았다.

그렇다면 왜 수련하는가?

수련 동기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사색(思索)의 늪에서 끈적이며 얽히는 사유의 실타래에서 겨우 한 끝 동아리를 잡아 쥐며 현옥은 호수의 만월(滿月)을 손에 담아보려는 어리석은 시도처럼 생각되었다.

“깨달음이란 열광(熱狂)의 탈이성(脫理性)적인 몰아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냉철한 오성의 터전에 자리잡히기 힘든 것은 아닐까?”는 회의가 현옥을 번민토록 했다.

선인(先人)들이 방치한 채로 현옥의 대(代)에까지 물려준 숙제에 왜 현옥이 매달려 깨어있어야 하는지…….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오른다”는 선(禪) 문답 같은 말꼬리 잡기는 명증한 답이 아니었다.

시인(詩人)의 섬세한 지성과 유리알 같은 감성이 못 사람을 순수(純粹)로 회귀시키는 것 같은 「에토스」를 태권도가 지니고 있지는 않는가?

태권인의 감성은 창공·벽해를 뛰어 넘어 날라

차는 공중 동작에서 감명되도록 되는 무엇이 있다고 경험치 않는가?

대저, 어떤 부름과 환호가 숨쉬고 있어 태권도는 수백·천의 인류가 한(韓)족의 좁은 땅에서 생겨난 구령 한마디에 태양의 작열 아래서 땀흘리기를 숭선하고, 결빙의 혹한에서 눈보라를 녹이는 경배의 찬미를 도장(道場)에서 수범케 하는가?…….

어떤 가락이 운율되어 일갈하는 기합에 몸놀림은 또 어찌 그리 웅송한가?

이리·저리한 그런 것들이 용해되어 간명한 질서가 체계지는 것이 그것, 태권도정신이 아닌가.

어느 스포츠나 무도에서도 일 순간은 초자아의 경지에 몰입하게 됨은 유사하다.

프로야구 선수가 공중제비를 틀며 나르는 백구를 잡아챌 때, 검도의 달인이 일검(一劍)을 베어 나아갈 때, 태권도의 고단인이 뛰어 창공을 가를 때, 꼭 같이 극기의 암벽을 온 몸으로 씹으며 무명의 등정을 마무리한 후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리적 거리와 피부의 색채, 그리고 말(言)과 문화와 역사의 깊은 단절로 갈라놓은 인류의 현존하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몸사위, 같은 갈망으로 어우러지는 태권도의 정신과는 원류를 달리 한다고 현옥은 굳게 믿었다.

“동틀 무렵에야 잠자리에 든다.”

현옥의 가을 밤 일기(日記)는 그렇게 끝맺어져 있었다.

잊혀졌던 성찰의 시간을 엿보면서 현옥은 생각했다.

일기의 맺음처럼, 태권도 정신을 정의하는 일이 긴 밤의 고뇌 끝에 맞는, 새 날이 열리는 빛으로 다가올지를…….

II. 탄빈곡(彈貧曲)

리건호씨는 자식들을 열지어 세우고는 북으로 난 창을 사분의 일 켜 열어놓고 향을 살랐다.

일년에 두 차례 씩 제사를 지낼 때 마다 리건호씨는 제주(祭酒) 한 잔 마다에 홀려보낸 세월과 나이를 되뇌어온 했다.

오래히 「OSS」로 조국에서 광복(光復)의 넘으로 화(化)했으면 현옥들 형제들이 탄생되지도 못했을 거라는 「에필로그」를 삼십년 간이나 잊지 않고 불후의 대사(臺詞) 처럼 리건호씨는 올해에도 되뇌었다.

현옥은 그런 아버지를 자식인 백선을 낳아 가리면서 이해하기 시작했다.

자식은 아버지의 시간척(時間尺)이었다. 아버지들은 그들의 자식이 턱밑에 차는 성장의 정도에서 현신의 대가를 보상받기 때문이다.

사춘기에 들기도 전에 안중근(安重根)의사(義士)의 장인(掌印)이 찍힌 휘호 “見利思義, 見危致命”(눈 앞에 이로움이 있을 때 올바른을 따르고, 국가 민족이 위태로울 때 목숨을 바친다)을 현옥에게 일깨워 준 리건호씨였다. 그러나 현옥들을 바라보는 그의 회한과 어눌한 일생이 점철된 시선은 청빈낙도(靑貧樂道)에 유유하는 옛 선비의 그것은 이미 아니었다.

오히려 현옥에게는 아버지의 탈속적(脫俗的)인 비범이 짐스럽게만 생각되었다.

상미는 그런 시아버지의 강직을 현세의 득실에 쫓아 해결하기를 거둬하는 저명인사보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고 현옥에게 아첨했다.

상미가 시집을 때 예물로 드린 보료를 털어 첫손자의 이불로 만들어 주라던 시아버지가 그녀에게는 경이로웠던 것이다.

그녀는 종가택 막내딸로 자라면서 속된 말로 유복하게만 지내와 도장에서의 신흥생활에 놀랄 일이 많았다.

단꿈이 미처 깨지도 않은 새벽부터 수련생들이 몰려와 문을 두드리고 밤 늦게 까지도 사무실에서 수련생들과 담소하기를 즐기는 현옥의 가정경시 태도에 실망이 거듭되었다고 백선의 백일예 토로했었다.

현옥은 상미의 친구들이 도장에 몰려와 그들의 생활과 너무도 동떨어진 상미의 환경에서 받은 충격을 가슴아파했었다. 불령장과 수영장을 즐겨 찾는 그녀들의 눈은 현란하고 광택나는 쪽으로만 경사지는 곤충들의 겹눈처럼 물질의 편이에 기름져 있었다.



현옥은 그런 젊음에 이미 식상하고 있었다.

도장은 이미 밝아있는 쪽 만이 아니라 어둡고 추운 산비탈 동네의 항상 주린 어린이와 근로자들에게 더 큰 빛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옥이 부의 집착력이 부족하지만 했던 아버지를 연민했던 시절에는 그 역시 대기업의 휘황한 후광을 업고 장신구 「콜렉션」에 관심이 많은 「해바라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상미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나 현옥의 내면에서 숨쉬고 있는 아버지의 유전자는 현옥이 거짓 값에 매겨지는 결혼이라는 거래에서 상미의 빼어난 감성과 경탄을 자아낸 만한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직관력을 택했다.

현옥의 다혈질 속에서 감추어진 끝없는 고독의 미세한 숨소리도 그녀는 본능적으로 감지해곤 했다. 부러지기 쉬운 현옥의 강직을 유연하게 감싸는 분위기가 기류(氣流)로써 그녀를 맴돌았다.

열 한명이나 되는 동창들을 전화 한통없이 동방하고 들이 닥친 현옥의 돌발에도 그녀는 웃어

보이는 여유를 지냈다. 가식이라도 현옥은 그런
그미가 미더웠다. 표정이 굳을라치면 그녀는 「멘
델스존」의 선율로 그들의 방(房)을 조각했다. 사
방 두자가 안되었던 그녀의 밥상은 실내악 같은
포근함이 머물렀다.

백선을 재울 때의 그녀는 오히려 먼저 잠들것
같이, 아기의 젖내음 같은 안타까움이 눈썹 사
이로 배어나오곤 했다.

한 동네에서 이웃한 뉴질랜드인(人) 신부는 간
혹 현옥네를 찾아와서 들고온 「코피」병을 혈어
끓인 진한 향과 상미의 음악을 즐기고 가곤 했다.
「윌리엄」 신부는 컹컹이 같은 천진함을 전혀 감
추려하지 않았다.

그가 찾은 것은 주로 「파이프·올겐」의 성가
(聖歌) 들이었다.

그도 현옥도 같은 구도자(求道者)였으나 이
미 「윌리엄」 신부는 기도의 길에서 한눈을 팔 여
가없이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현옥은 가난의 불편이 거북하기만 했으나 신
부님은 “소유욕이란 사랑의 실천에 방해물일 뿐
이었다.”고 쉽게도 말하는 것이었다. 당신네 나
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행복의 참뜻과는 거
리가 먼 쪽으로 이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신부
님은 자식을 낳아 키워보지도 못했으면서 어찌
그리 잘 아실까?” 현옥의 빈정거림에 상미는
“많이 가졌다는 것보다는 많이 베풀다.”는 것이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구획선이어야 한다고 거들
었다. 그러나 현옥은 현실과는 깊은 간격이 있
다고 생각했다.

말은 그리 하지만 상미 역시 레스토랑에서 외
식을 갈망하고 있다고 현옥은 자조의 한숨을 내
쉬었다.

그녀의 친구들이 늘어놓는 아파트 청약에서 언
출되는 축재(蓄財)의 무용담을 들으며 지성의 힘
으로는 멸시의 창을 고추 세우지만 그녀라고 하
루 저녁에 두 번씩이나 되는 연탄같이를 운동삼
는 것은 아니었다. 상미는 “그래도 우리는 행복

한 편이예요! 상현이네는 배달 연탄이 비싸다
고 시장에서 새끼줄에 낀 연탄을 날 개로 사다가
뎡다는 데요 뭐!.”

사범이 문하생보다 잘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기
만한 건 아니라고 현옥이 핀잔하자 상미는 그저
웃어 보였다.

장모는 재원이라고 혼처가 많았던 딸이 평생
가보지도 않았던 도장의 한 귀퉁이에서 방을 들
여 사는 꼴이 여간 가슴아프게 아니었나 보다.

언젠가는 현옥에게 용자라도 해 줄테니 조그
만 아파트라도 마련하라고 권하더라고 상미를 시
켜 말을 건넸다.

백선이 아빠라고 처음 현옥을 부르던 날 상미
는 조심스럽게 장모의 권유를 현옥에게 전했다.
현옥은 상미의 조심스러움에서 대를 이은 결벽
한 자존심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것인지를 깨
달았다.

이튿날 현옥은 졸업하던 해에 은행에 틀어박
혀 주판과 인주에만 파묻힌 태상을 찾았다.

“너 돈 좀 빌려 줘야 겠다”

“어디다 쓰게?”

“나도 아파트에 좀 살아가 겠다”

“얼마나?” “임마 아무데나 썬 아파트 살 돈이
면 돼!”

“알았어”

3학년 2학기 때 학과 대표였던 그가 수배 중
일 때 현옥은 긴 겨울 방학 동안 도장에서 먹이
고, 재우고, 운동 가르치고 해서 마음 잡고 취
직까지 하도록 했었다.

직장에 취직할 때나 불꽃 나타나서 “너 보증
인이 돼어 주어야 겠다”는 한마디에 도장 찍던
태상이었다.

“임마, 너 이자 얼마 줄거야?”

“네 마누라 내의나 한 일년치 사줄게”

6년이나 은행원 소리를 들은 놈이 같은 은행
출신의 부인을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불가사의였
다.

도장 살림에서 늘어난 것은 현옥의 책과 상미
의 「디스크」였다.



그러나 아들 백선의 재산은 거만에 이르렀다. 높은 「롤스·로이스」로 시작해서 소형 승용차가 대·여섯종에다가 화물차가 너댓 종, 그리고 전용 비행기와 전용 열차까지 온갖 탈것은 다 갖춘 재벌 2세였다. 게다가 마천루를 「빌딩」할 수 있는 불력이 두 상자나 되었다.

그만하면 현옥이네는 열세평짜리 위성도시 아파트 찜을 채우고도 남을 집이 생긴 것이라고 상미는 즐거워 했다.

그들의 결혼 선물로 기옥이네 엄마가 이어다준 김치독을 평생 지니고 살겠다고 거드는 엄마들에게 상미는 다짐하는 것이었다.

그네의 방은 도서실로 꾸며졌다.

현옥은 관악의 웅자가 아침이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동창의 첫 살림방을 풍요롭게 보살핀 것은 음악이 있다고 회상했다.

곡명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생(生)의 한 「크레

바스」에 깊이 침잠될 뻔 했던 기억마다에서 그를 이끌어 관악의 청정한 기개를 흡입토록 한 선율이 분명 있었다고 느꼈다.

비애와 고독이 치밀 때마다 상미의 어깨를 감싸고 그녀의 머리결 사이에서 묻어나던 애련한 생활의 슬픔에서 스스라치게 떨어져 나오곤 한 현(絃)의 공명(共鳴)이 무엇이었던냐고 현옥은 새 집에서 첫날밤에 물었다.

산비탈에서 끓어오른 연이 뱅뱅 맴돌던 전선에서 배어 나왔던 가난한 삭풍에서도 식지 않았던 그들의 사랑은, 동(東)으로 난 창가를 맴돌던 선율이 바로 관악의 웅자에서 엮어내는 생명의 환희였다고 확인했다.

상미는 작명(作名) 했다.

“탄빈곡(彈貧曲) 이라면 어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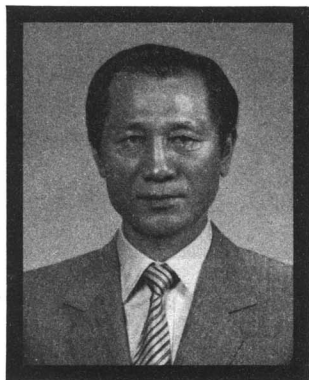
다음호에 계속

謹

吊

국제올림픽위원회

朴 鍾 圭 위원



국 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인 박종규 씨가 1985년 12월 3일 서울대 병원에서 지병인 간암으로 별세하였다.

경남 창원 출신인 그는 육사 8기로 5.16 이후 63년부터 대통령경호실장을 지내다 文世光 사건으로 물러났으며, 스포츠관계이외에도 10대 공화당 국회의원, 경남대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70년부터 대한 사격연맹 회장의 직을 맡아 체육계와 인연을 맺었다.

1971년 아시아사격연맹 회장, 76년 세계사격연맹 부회장을 역임했고, 78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서울에 유치하였었다.

1979년 故 김택수씨 후임으로 대한체육회장겸 K.O.C 위원장에 선출됐고, 81년엔 서독 「바덴 바덴」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88년 서울올림픽 유치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84년 I.O.C위원에 피선됐다.

朴鍾圭씨는 아시아 경기단체 총연맹 회장, K.O.C 상임고문, 서울올림픽조직위 집행위원의 직무를 수행했었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4 남1 여가 있다.

발인은 12월 5일 오전10시, 장례는 대한체육회장으로 성공회 묘지에 안장하였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국기원에 오신 손님들

Visitors to Kuk Ki Won



미국 올림픽 위원회 부위원장
Mr. William Tutt 씨가 시범단 어린이
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1985. 11. 1)



미국 올림픽 위원회 사무총장
Gen. George D. Miller 씨 에게
김준용 총재가 명예 회원증을
수여하고 있다. (1985. 11. 1)



우간다 NOC 위원장
Gen Nyangweeso
씨가 김준용 총재를
예방 (1985. 11. 4)

이런 일 저런 일

제 7회 세계 대회기간 중 WTF 총재를 예방한 VIP 요원들

새마을 중앙본부 방문 기념촬영 (1985. 9. 7)



좌로부터

- 이집트 내무차관 DARWISH
- 캐나다 하원부의장 Marcel Danis
- IOC Sports Director 부인 Mrs. Walter Troger
- 새마을 본부 회장 전경환
- IOC Sports Director Walter Troger
- 나이지리아 내무차관 Issakou Abru
- WTF 총재
- 노르웨이 IOC위원 Jan Staabo
- 뒷줄 좌로부터
- 캐나다 IOC위원 Jarues Worrall
- " " " " 부인

제 7 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임원표창 (세계태권도연맹)



표창패를 수여하는 세계연맹 김운용 총재



해단식에 참가한 국가대표 남·여 선수단



표창패를 받은 제 7 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조직위 임원들



85 강원

때 : 1985. 10.
10~15일

곳 : 강릉 시
강릉상고

제66회 전국체육대회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각 시도협회 임원들



강원도협회에서 배운 환영연회장의 모습



경 기 장



대회를 주관한 강원도 협회 임원들





대회장에
김운용 회장이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단체입상

- 1 위
서울시
송봉섭
전무이사
- 2 위
전라남도
박창웅
전무이사
- 3 위
강원도
박병철
전무이사



김성태 강원
도 협회장이
강원도 우승 선수에게 금메달을 걸어주고 있다.



단체 2위를 시상하는 황춘선 전무이사



강릉지회의 임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엄운규 부회장



우승의 행가레! 조남수(서울) 코치



심각한 표정의 코치 모습



겨루기 모습



흡족한 코치의 모습



승패의 순간!



김진선 국군체육부대장이 상무팀 소속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일반부 우승자 명단

- 핀 금 / 송영협 / 설악케이블카 <강원>
- 플라이급 / 김기호 / 상 무 <서울>
- 밴 텀 급 / 윤웅철 / 전남체육관 <전남>
- 페 더 급 / 정범수 / 상 무 <서울>
- 라이트급 / 이강일 / 상 무 <서울>
- 웰 터 급 / 정국현 / 전남도협회 <전남>
- 미 들 급 / 이동준 / 설악케이블카 <강원>
- 헤 비 급 / 강승우 / 상 무 <서울>

대학부 우승자 명단

- 핀 금 / 최 천 / 경희대학교 <경기>
- 플라이급 / 인해진 / 한국체육대 <서울>
- 밴 텀 급 / 지용석 / 청주대학교 <충북>
- 페 더 급 / 하계수 / 한국체육대 <서울>
- 라이트급 / 최공집 / 조선대학교 <전남>
- 웰 터 급 / 최상진 / 경희대학교 <경기>
- 미 들 급 / 김중석 / 원광대학교 <전북>
- 헤 비 급 / 이계행 / 조선대학교 <전남>



고등부 우승자 명단

- 핀 금 / 김태형 / 부산체육고교 <부산>
- 플라이급 / 양훈열 / 서울체육고교 <서울>
- 밴 텀 급 / 장 혁 / 서울체육고교 <서울>
- 라이트급 / 김경환 / 서울체육고교 <서울>
- 페 더 급 / 백봉진 / 동일실업고교 <전남>
- 웰 터 급 / 윤순철 / 서울체육고교 <서울>
- 미 들 급 / 이용혁 / 서울체육고교 <서울>
- 헤 비 급 / 김동욱 / 서울체육고교 <서울>



최우수 선수상을 받는 최상진 (경희대) 선수



박상식 (한국체대) 선수의 대표 선수 선서

1985년도 선발

때 : 1985. 10. 31 ~ 11. 1



이완욱 코치의 작전지시를 받고있는
윤을균 (계명대) 선수



'85년도 우수선수1위자

- 핀 금 : 김철호 (동성고교)
- 플라이급 : 이인재 (경 회 대)
- 밴 텀 급 : 윤정욱 (동성고교)
- 페 더 급 : 하계수 (한국체대)
- 라이트급 : 양대승 (서울체고)
- 웰 터 급 : 최상진 (경 회 대)
- 미 들 급 : 윤을균 (계 명 대)
- 헤 비 급 : 정택주 (한국체대)

전국 우수선수 대회

곳 : 국 기 원



겨루기 모습



박천재 코치의 작전
지시를 받고 있는
이준명 (국가대표) 선수



국내경기 최초로 사용한 전광판 조작대
(Key Board)를 사용하는 경기부 임원들
(전광판을 주시하는 임원의 모습)



고교 수퍼스타 양대승과
이상헌 코치



전광판에 청, 1회전 2점, 2회전 1점, 3회전 진행중이 공개된 전광판

제8회 회장기쟁탈전국 대학대항태권도대회

때 : 1985. 11. 16~17

곳 : 국 기 원



김한주 회장의 대회사



— 개 회 식 —



최우수 선수상을 받는 경희대 김광섭 선수 노력희 부회장이 시상



A 조 우승자들

- 핀 서 금/ 동 현 / 경상대학교
- 플라이 금/ 송 재 / 인천전문대
- 밴 텀 금/ 용 섭 / 경희대학교
- 페 더 금/ 도 경 / 경기대학교
- 라이트 금/ 성 철 / 대한유도대
- 웰 터 금/ 용 석 / 한국체육대
- 미 들 금/ 성 겸 / 한국체육대
- 헤 비 금/ 광 섭 / 경희대학교

- 핀 금/ 경 숙 / 충남대학교
- 플라이 금/ 명 화 / 경희대학교
- 밴 텀 금/ 신 자 / 경희대학교
- 페 더 금/ 선 자 / 경희대학교
- 라이트 금/ 지 숙 / 경희대학교
- 웰 터 금/ 오 순 / 경희대학교
- 미 들 금/ 영 숙 / 성신여자대
- 헤 비 금/ 윤 정 / 명지대학교



여대부 우승자들



- 핀 화 금/ 경 만 / 경희대학교
- 플라이 금/ 창 호 / 단국대학교
- 밴 텀 금/ 영 근 / 세종대학교
- 페 더 금/ 수 창 / 한양대학교
- 라이트 금/ 교 학 / 충남대학교
- 웰 터 금/ 현 수 / 한양대학교
- 미 들 금/ 태 형 / 세종대학교
- 헤 비 금/ 정 기 / 충남대학교

B 조 우승자들

제16회 주한 외국인 태권도 개인 선수권 대회

때 : 1985. 10. 6.
곳 : 국 기 원



한봉수 (무역진흥공사 사장) 부회장이
어린이 시범단원들에게 꽃다발을 받고있다.



겨루기 모습



각조 1위 입상자들